

환경친화적인 농촌개발을 위한 정책지원방안

2000년 9월

연구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책임자: 최 재 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이 동 근 (상명대학교 환경조경전공 교수)

박 용 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연 구 원: 권 정 아 (상명대학교)

조 정 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현장조사원: 김 은 영, 김 중 식, 김 희 중,

신 춘 희, 심 정 선, 오 순 교,

엄 지 연, 은 송 희, 이 승 주,

정 문 혁, 최 혜 연 (상명대학교)

< 목 차 >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1 연구의 배경	1
1.2 연구의 목적	2
II 연구의 구성 및 수행방향	3
III 환경친화적인 농촌개발에 관한 이론적 검토	5
3.1 환경친화적 개발의 이론적 고찰	5
3.2 선진외국 및 국내의 환경친화적 농촌개발계획 사례연구	15
IV 환경친화적인 농촌의 목표 및 지표설정	25
4.1 환경친화적 농촌개발을 위한 목표 및 주요실천전략	25
4.2 DPSEI구조에 의한 환경친화적 농촌개발의 지표	27
4.3 환경친화적인 농촌개발을 위한 평가지표 체계 구축	28
V 농촌의 유형화	30
5.1 유형분류	30
5.2 실시조사 사례지 선정 및 연구내용	33
VI 현황분석 및 문화마을 사업평가	35
6.1 문화마을 현황분석	35
6.2 주민 및 공무원 설문지에 의한 문화마을 사업평가	54

Ⅶ 요약 및 결론	99
Ⅷ 참고 문헌	106
< 부 록 1 > 일본의 むらづくり(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례집	1
< 부 록 2 > 개별사업 예시	21
< 별 첨 1 > 도시로부터 거리산정 및 군집분석의 결과	27
< 별 첨 2 > 주민 및 공무원 설문지	31
< 별 첨 3 > 예비조사 결과	42

< 표 차 례 >

< 표 3-1 > 환경지표의 구성(이동근 & 윤소원, 1998:99-100)	9
< 표 3-2 > 사례 연구의 개요 및 환경친화적인 농촌개발을 위한요소	24
< 표 5-1 > 도시로부터의 거리 및 군집분석의 결과(일부예시)	31
< 표 5-2 > 문화마을 조성현황	34
< 표 6-1 > 문화마을 현황분석을 위한 체크리스트	35
< 표 6-2 > 용문면 인구현황	56
< 표 6-3 > 대강면 인구현황 및 이동추이	58
< 표 6-4 > 공무원 설문지와 인터뷰에 의한 각 문화마을의 평가결과	60
< 표 6-5 >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 분석결과	62
< 표 6-6 >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 분석결과	62
< 표 6-7 > 사회·경제환경에 대한 만족도 분석결과	63
< 표 6-8 > 각 하위평가항목의 만족도에 대한 중회귀분석	63
< 표 6-9 > 개선도에 대한 평균 분석결과	65
< 표 6-10 > 하천·호수의 개선도에 대한 이유분석	65
< 표 6-11 > 공기의 깨끗함의 개선도에 대한 이유분석	65
< 표 6-12 > 토양의 양호함의 개선도에 대한 이유분석	66
< 표 6-13 > 소득의 개선도에 대한 이유분석	66
< 표 6-14 > 조사자의 성별·나이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67
< 표 6-15 > 장래거주 희망여부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68
< 표 6-16 > 장래거주 희망에 대한 이유분석	68
< 표 6-17 > 자연환경의 만족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전체)	69
< 표 6-18 > 생활환경의 만족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전체)	69

< 표 6-19 > 사회·경제환경의 만족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전체)	70
< 표 6-20 > 자연환경의 Scheffe에 의한 다중비교 분석결과(전체)	71
< 표 6-21 > 생활환경의 Scheffe에 의한 다중비교 분석결과(전체)	71
< 표 6-22 > 사회·경제환경의 Secheffe에 의한 다중비교 분석결과(전체)	71
< 표 6-23 > 하위항목에 대한 개선도 분석결과	72
< 표 6-24 > 자연환경의 만족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문화마을)	73
< 표 6-25 > 생활환경의 만족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문화마을)	74
< 표 6-26 > 사회·경제환경의 만족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문화마을)	75
< 표 6-27 > 지역별 자연환경에 대한 Scheffe방법의 다중비교 분석결과(문화마을) 을)	75
< 표 6-28 > 지역별 사회·경제환경에 대한 Scheffe방법의 다중비교 분석결과 (문화마을)	76
< 표 6-29 > 하위평가항목에 대한 중회귀분석(일부예시)(문화마을)	76
< 표 6-30 > 하위항목에 대한 개선도 평균결과(문화마을)	78
< 표 6-31 > 자연환경의 만족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문화마을 외)	79
< 표 6-32 > 생활환경의 만족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문화마을 외)	79
< 표 6-33 > 사회·경제환경의 만족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문화마을 외)	80
< 표 6-34 > 하위평가항목의 만족도에 대한 중회귀 분석결과(문화마을 외)	81
< 표 6-35 > 각 항목에 대한 개선도 평균분석 결과(문화마을 외)	82
< 표 6-36 > 자연환경의 하위항목에 대한 개선도 이유분석	83
< 표 6-37 > 생활환경의 하위항목에 대한 개선도 이유분석	84
< 표 6-38 > 사회·경제환경의 하위항목에 대한 개선도 이유분석	84
< 표 6-39 > 자연환경의 하위항목에 대한 개선도 이유분석	85
< 표 6-40 > 생활환경의 하위항목에 대한 개선도 이유분석	86

< 표 6-41 > 사회·자연환경의 하위항목에 대한 개선도 이유분석	87
< 표 6-42 > 자연환경의 하위항목에 대한 개선도 이유분석	87
< 표 6-43 > 생활환경의 하위항목에 대한 개선도 이유분석	88
< 표 6-44 > 사회·경제환경의 하위항목에 대한 개선도 이유분석	90
< 표 6-45 > 지역별 직업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90
< 표 6-46 > 지역별 소득에 대한 빈도분석	91
< 표 6-47 > 지역별 t검정 결과	92
< 표 6-48 > 자연환경의 만족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92
< 표 6-49 > 생활환경의 만족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93
< 표 6-50 > 사회·경제환경의 만족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93
< 표 6-51 > 하위평가항목에 대한 개선도 분석결과	94
< 표 6-52 > 용문면·목면 문화마을간 신상조사 분석결과	95
< 표 6-53 > 자연환경의 만족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96
< 표 6-54 > 생활환경의 만족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96
< 표 6-55 > 사회·경제환경의 만족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97
< 표 6-56 > 하위항목에 대한 개선도 평균분석 결과	97
< 표 6-57 > 군서면·목면 문화마을간 신상조사 결과분석성별 나이	98

< 그림 차례 >

< 그림 2-1 > 연구의 흐름도	4
< 그림 3-1 > 본 연구의 평가체계의 구조 및 대상범위(이동근&윤소원(1998))	9
< 그림 4-1 > 환경친화적 농촌개발을 위한 목표 및 주요실천전략	25
< 그림 4-2 > DPSEI구조에 의한 환경친화적 농촌개발의 지표	27
< 그림 4-3 > 환경친화적인 농촌개발을 위한 평가지표 체계	29
< 그림 5-1 > SAS통계에 의한 군집(Cluster)분석 결과표	32
< 그림 6-1 > 설문지 분석 흐름도	54
< 그림 6-2 > 생활환경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74
< 그림 6-3 > 사회·경제환경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75

< 사 진 차 례 >

< 사진 6-1 > 용문면 문화마을 입구	36
< 사진 6-2 > 용문면 문화마을 태양열주택의 예	37
< 사진 6-3 > 용문면 문화마을 주택 및 도로	37
< 사진 6-4 > 용문면 문화마을 주택 1	37
< 사진 6-5 > 용문면 문화마을 주택 2	38
< 사진 6-6 > 용문면 문화마을 도로 1	38
< 사진 6-7 > 용문면 문화마을 도로 2	38
< 사진 6-8 > 용문면 문화마을 공용주차장	39
< 사진 6-9 > 용문면 문화마을 회관	39
< 사진 6-10 > 용문면 문화마을 휴게 및 놀이시설	39
< 사진 6-11 > 용문면 문화마을 체육시설(게이트볼)	40
< 사진 6-12 > 용문면 문화마을 상가 및 편의시설	40
< 사진 6-13 > 용문면 문화마을 쓰레기 처리	40
< 사진 6-14 > 대강면 문화마을 입구	41
< 사진 6-15 > 대강면 문화마을 도로	41
< 사진 6-16 > 대강면 문화마을 도로 및 밭	42
< 사진 6-17 > 대강면 문화마을 내 신 마을의 주택	42
< 사진 6-18 > 대강면 문화마을 내 구마을의 주택 및 도로	42
< 사진 6-19 > 대강면 문화마을 회관	43
< 사진 6-20 > 대강면 문화마을 공용주차장 및 체육시설	43
< 사진 6-21 > 대강면 문화마을 상가 및 편의시설	43
< 사진 6-22 > 대강면 문화마을 공용주차장	44

< 사진 6-23 > 대강면 문화마을 쓰레기 처리	44
< 사진 6-24 > 대강면 문화마을 진입도로	44
< 사진 6-25 > 대강면 문화마을 놀이시설	45
< 사진 6-26 > 대강면 문화마을 휴게시설	45
< 사진 6-27 > 군서면 문화마을 진입도로	46
< 사진 6-28 > 군서면 문화마을 하수시설	46
< 사진 6-29 > 군서면 문화마을 휴게시설	46
< 사진 6-30 > 군서면 문화마을 공공시설과 마을회관	47
< 사진 6-31 > 군서면 문화마을 자연경관 1	47
< 사진 6-32 > 군서면 문화마을 자연경관 2	47
< 사진 6-33 > 군서면 문화마을 주택 1	48
< 사진 6-34 > 군서면 문화마을 주택 2	48
< 사진 6-35 > 군서면 문화마을 주택 3	48
< 사진 6-36 > 군서면 문화마을 주택 4	49
< 사진 6-37 > 군서면 문화마을 도로	49
< 사진 6-38 > 목면 문화마을 입구	50
< 사진 6-39 > 목면 문화마을 도로 및 주택	50
< 사진 6-40 > 목면 문화마을 도로	51
< 사진 6-41 > 목면 문화마을 주택 1	51
< 사진 6-42 > 목면 문화마을 주택 2	51
< 사진 6-43 > 목면 문화마을 주택 3	52
< 사진 6-44 > 목면 문화마을 주택 4 및 도로	52
< 사진 6-45 > 목면 문화마을 회관	52
< 사진 6-46 > 목면 문화마을 공공시설	53

< 사진 6-47 > 목면 문화마을 하천 53
< 사진 6-48 > 목면 문화마을 저수지 53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 산업혁명 이후 이차산업 중심의 경제발전은 도시로의 급격한 인구이동 현상을 야기시켰으며,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 농촌에서는 도시로의 대량이동으로 인한 농업인구의 감소로 주민들의 고령화와 함께 농업의 계승이나 신규취업자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도시영향권지역의 농촌을 무분별하게 도시화하고 있고 주민생활환경은 더 악화되고 있음.
- 농촌에서는 도로 및 의료·문화시설 등 생활환경의 낙후나 획일적인 농촌정비체계로 인한 경관훼손 및 지역적 특성의 소실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며, 도시인접 지역에서는 비농세대의 증가와 별농세대의 유입 등으로 인한 비농가와 농가의 혼재화가 증가하는 양상임.
- 이러한 현상은 기본적으로 농촌이 가지고 있는 많은 공익적 기능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도시에서는 열섬현상이나 수해, 수질악화 등의 환경오염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 또한, 농촌에서는 분산투자로 인한 왜곡된 불균형적인 점적 발달과 담당자의 감소로 인한 이차림의 파괴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농촌지역은 서서히 황폐화 되고 농지는 점차 감소되고 있음.
- 농촌개발은 농촌주민에만 국한된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지역종합개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임.
- 농촌개발에 있어서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환경친화적인 농촌개발에서 우선 「환경친화」라 하는 것은 이러한 환경파괴의 악순환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여 살아가는 것을 의미함.
- 이는 인간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인간이 속해있는 생태계의 순환을 보전시킴

로서 현세대의 개발이 미래세대의 복지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 지속가능하도록 한다(Our Common Future, 1987)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1.2 연구의 목적

○ 국토의 불균형에 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하에도 구체적인 도시나 농촌개발을 위한 정책적 방안이 미비한 상황임.

○ 농촌에서는 도로 및 의료·문화시설 등 생활환경의 질적인 저하나 획일적인 농촌정비체계로 인한 경관훼손 및 지역적 특성의 소실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도시인접지역에서는 비농가세대의 증가와 별농세대의 유입으로 인한 비농가와 농가의 혼재화가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기본적으로 농업의 생산성 저하를 비롯하여 많은 공익적 기능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으며, 나아가 도시에서는 도시인구의 과밀화로 인하여 열섬현상이나 수해, 수질악화 등의 환경오염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따라서 농촌개발은 농촌주민에만 국한된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지역종합개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중요한 영역임.

○ 농촌 삶의 질적향상을 위한 마을문화 육성과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의 방향정립으로 21세기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투자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농촌의 자연경관, 환경친화성, 문화특성과 현대적인 시설의 조화로 공익적인 기능향상을 계획하여 도시로부터 농촌으로의 유입을 유도하고 반대로 농촌으로부터 도시로의 유출을 억제하여 농촌에는 공익적 이익의 극대화를, 도시에는 인구과다 집중으로 인한 환경부하 감소를 목적으로 함.

II 연구의 구성 및 수행방향

○ 본 연구는 크게 7단계로 구성되어 있음(그림 2-1).

(1) 제1단계

○ 서론부분으로 연구의 배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등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2) 제2단계

○ 우선적으로 환경친화적 농촌개발에 관한 이론적인 검토를 위해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기초적인 여러 가지 지속가능한 개발, 생태마을, 어메니티 등의 개념들을 정리하고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이론적으로 고찰함. 또한, 친환경적 농촌개발을 위한 요소 즉 환경친화적 농업, 농촌기반정비, 커뮤니티, 환경보전, 마을의 문화적 요소 등에 관하여 이론적으로 검토함.

(3) 제3단계

○ 최근 선진외국의 환경친화적인 농촌개발계획사례 즉 일본, 호주, 영국 등의 농촌개발사업에 대한 사례와 국내의 사례연구를 실시하여 지금까지의 환경친화적인 농촌개발을 위한 정책적인 현황을 분석하고 각각의 계획에서 지향하였던 기본목표의 틀을 종합하여 도출함.

(4) 제4단계

○ 지금까지의 이론적인 연구를 통해서 검토된 지표를 바탕으로 하여 도출된 계획의 지표들과 3단계의 국내·외 사례연구를 통해서 검토된 효과적인 계획방향의 틀을 접목시켜 환경친화적인 농촌개발을 위한 목표 및 주요실천전략을 설정함. 주요실천전략에 의해 국내농촌현황을 분석할 평가지표에 대한 항목을 설정함. 평가지표는 항목의 단순한 평가지표의 체계가 아닌 최근 국내에서 이·윤(1998)에 의해 OECD의 DPSR구조를 바탕으로 연구된 D(Driving Force), P(Pressure), S(State), E(Effect), R(Response) 체계에 기초하여 평가지표의 체계를 완성함.

(5) 제5단계

○ 농촌을 평가하기에 앞서 3가지의 서울(도시)인접형 농촌, 서울(도시)근교형 농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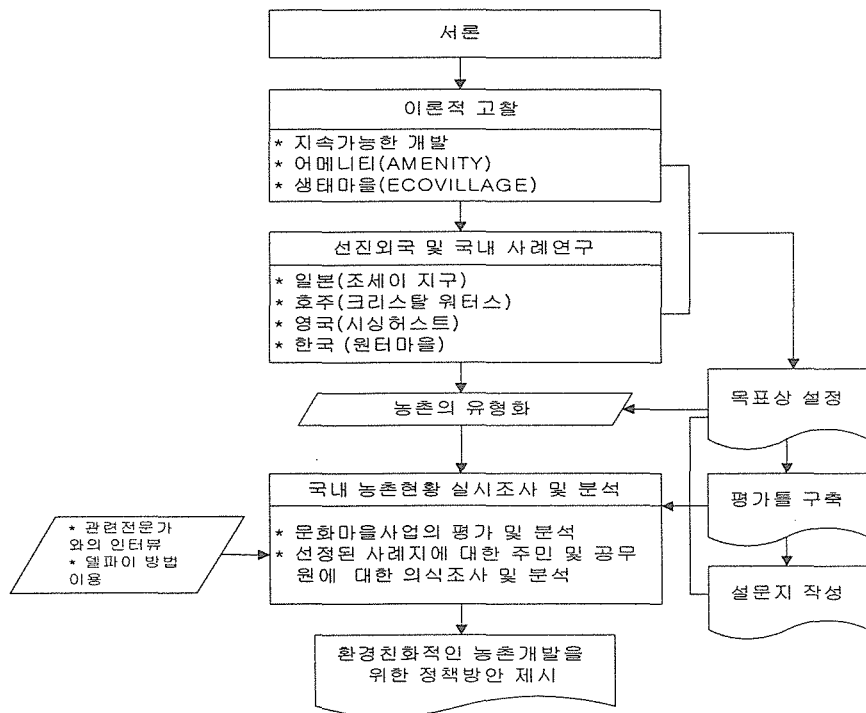
중산간형 농촌으로 유형화함. 이는 농촌을 유형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각각을 지역 특성별 여건에 따라 달리 분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본 연구의 기본개념에서 기인함. 이를 통하여 국내 농촌현황을 지역의 특성에 준하여 분석하고 사업계획의 추진실태를 점검하며 그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에 의해 문제점과 해결과제를 도출함.

(6) 제6단계

○ 국내농촌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구분된 유형화를 바탕으로 실시조사할 사례지를 선정함. 현황분석은 우선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10여년간 전국농촌마을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정주권 개발사업과 마을문화사업, 마을하수처리 시설사업들을 조사된 통계자료와 사례지역 방문조사에 의해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사례지역의 주민 및 공무원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현황분석 및 정주권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7) 제7단계

○ 앞서 연구된 6단계까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향후 바람직한 환경친화적인 농촌개발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



< 그림 2-1 > 연구의 흐름도

Ⅲ 환경친화적인 농촌개발에 관한 이론적 검토

3.1 환경친화적 개발의 이론적 고찰

- 환경친화적인 농촌개발의 개념정립을 위하여 지금까지 쓰이고 있는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개발에 관한 이론들을 살펴보기로 함.
- 환경친화적 개발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난개발에 의한 국토의 황폐화가 심각해 지면서 생태계의 파괴에 대한 문제성을 인지하여 1970년을 시작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보존을 위한 움직임이 일어남.
- 그러나 인구의 급증 및 산업의 과도한 집중은 개발제한구역 등의 보존영역을 서서히 좁혀 나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제는 개발과 보존을 대립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계획방법은 그 한계성을 드러냄.
- 이젠 환경을 보존하여 생태계의 파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개발에 대한 즉 환경과 대립되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에 대한 관심이 확산됨.
- 환경친화적인 국토개발이란 환경과 조화를 이뤄 어메니티(Amenity)를 향상시킴으로서 지속가능한 생태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방향임.

3.1.1 지속가능한 개발

3.1.1.1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

-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되었던 유엔인간환경회의는 환경보존을 위한 전 지구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인간환경선언, 원칙선언을 채택하고 지구환경의 날을 설정하는 등의 공식적인 성과를 거둔 최초의 대규모 국제 환경회의임. 그러나 이 스톡홀름 회의는 지구환경문제를 둘러싼 선진국과 제3세계 국가들간의 현저한 견해 차이로 말미암아 회의 초반부터 난항을 거듭하였으며 그 성과는 미약하였음.

○ 그 후 스톡홀름회의의 추천에 따라 유엔총회는 지구환경문제를 전담하는 유엔의 공식적인 기구로 유엔환경프로그램을 설립하게 되었고 1983년에는 세계환경 및 개발위원회(WCED, 일명 브룬트란트 위원회)를 구성하여 2000년대를 향한 장기 지구환경보전전략을 수립함.

○ 이 작업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가 브룬트란트 보고서(Our Common Future)이며, 여기서 정의된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개념은 1988년 유엔총회가 이를 유엔 및 각국 정부의 기본이념으로 삼을 것을 결의하게 되면서 널리 확산되기 시작함.

○ 이 보고서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해 "Development which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미래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능력을 손실시킴이 없이 현재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개발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 지속가능한 개발은 환경보호, 미래를 위한 제공, 삶의 질과 공정성이라고 하는 4가지 가치를 묶는 개념으로 환경적, 개발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관심을 통합하는 새로운 정책의제를 형성하고 있음. 지속가능한 개발의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음.

- (1)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개발의 전제조건이며 개발에 대한 장애는 아님. 환경과 개발은 서로 대체적이거나 반대되는 것이 아니며 상호의존적임.
 - (2) 많은 인간적 활동은 환경의 물리적 "수용능력" (carrying capacity)에 의해서 제한을 받음.
 - (3) 인간의 복지는 물질적 차원을 가짐. 개발은 모든 차원의 복지를 추구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다른 차원의 복지를 희생하면서 특정차원의 복지를 추구해서는 안 됨.
 - (4) 개발은 경제성장과는 아주 다른 개발없는 경제성장이 가능하며, 경제성장이 없는 개발도 가능함. 개발은 정책의 일차적인 목표가 되어야 함.
 - (5) 개발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 외의 광범위한 지표가 필요함.
- 이후 1989년 유엔총회에서는 1972년 스톡홀름회의의 20주년을 기념하여 지속가능

한 개발을 범세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대규모 국제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의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 일명 지구정상회담(Earth Summit)임.

○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는 지속가능성에 대해 “Sustainability is that the welfare of future generations should not be less than the welfare of the current generation.” (우리가 지금 속해있는 환경은 미래세대의 환경을 담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미래 세대의 혜택이 현세대의 혜택보다 적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지속가능성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국제환경자치체협의회(ICLEI)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자연과 사회체계의 생명력에 위협을 주지 않으면서 기초적인 환경, 사회, 경제적인 서비스를 모든 공동체 거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이상의 개념 규정들을 살펴보면 언어의 표현이 다소 다르긴 하지만 ‘자연의 환경용량을 미래를 생각하여 이루어지는 개발’임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지구환경용량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개발이란 자연자원이 개발의 과정에서 다소 손상을 입더라도 그 손상의 정도가 자연계가 지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것이어서 자연계 스스로의 회복과 자생적인 환경용량의 성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개발을 의미함.

○ 따라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은 성장과 보전의 단순한 조화가 아닌 “환경용량 내”라는 제약조건이 첨부된 상태 하에서 성장과 보전의 조화와 환경용량의 증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함.

○ 그러나 현재 세계각국의 지방정부와 국내에서 작성하였거나 진행중인 대부분의 지방의제21은 환경용량의 한계를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소극적인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에 입각한 행동계획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급격한 환경보존과 환경창조의 논리로 진행되는 것이 현실적인 무리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완화한 소극적인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개념이 채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음.

3.1.1.2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 지속가능한 개발은 미래세대의 이익이 고려되어야 함.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4가

지 개발의 원칙이 성립됨.

- (1) 환경자원은 보호되어야 함.
- (2) 시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 (3) 사회적 형평이 추구되어야 함.
- (4) 문화와 전통이 존중되어야 함.

○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은 완전히 합의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목적이 과연 무엇이며, 진보나 삶의 질에 대한 측정에 있어서의 주관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모호한 면이 있으며, 경제적 가치와 역사적·문화적 가치 사이의 비교의 한계, 개발을 둘러싼 선·후진국간, 지역간, 빈부간의 격차에 따른 갈등요소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결국 정책결정자의 의지에 많이 좌우된다는 점 때문임.

3.1.1.3 지속가능한 개발의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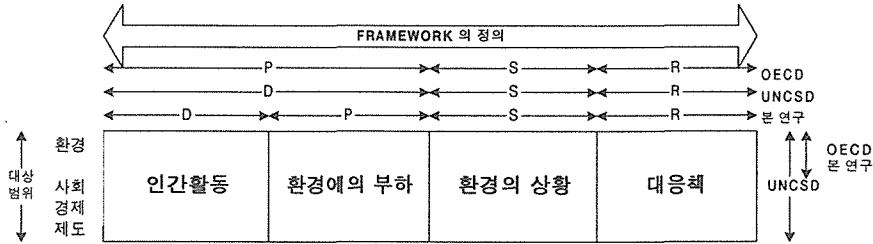
○ 다음 <그림 3-1>은 지속가능한 개발에 있어서 지표설정의 방향에 의해 도출된 환경지표의 DPSR¹⁾구조임. 이는 구동력지표(Driving Force), 압력지표(Pressure), 상태지표(State), 대응지표(Response)로 크게 구분됨.

○ 평가체계는 먼저 농촌의 발전양상을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등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통합하여 시간적인 단계별로 구분하며 각 단계별로 구성요소간 영향관계가 각각 다를 것이라는 전제하에 각 단계별로 DPSR을 설정함(표 3-1).

○ 평가체계의 기본적인 구조는 종래의 환경오염, 자연환경, 쾌적성과 같은 종적인 환경요소별 지표체계와는 달리 생태계적인 시점 즉 “부여받은 자연환경”과 “이를 이용해 생활하는 인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DPSR구조를 바탕으로 하며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인 인자를 고려하여 이에 따른 국가적·도시적·농촌적차원의 시대적 단계를 구분함.

1) 환경의 부하를 일으키는 인간활동을 구동력(Driving Force)지표로 하며 인간활동에 따라 나타나는 환경부하의 크기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압력지표(Pressure), 도시내 자연환경의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지표(State), 이에 대응하여 환경의 부하를 저감하고 상태를 진전시키는 대응지표(Response).

○ 각 단계별 구성요소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DPSR을 설정하고 각 단계별 DPSR을 대표하는 개별지표를 설정함.



< 그림 3-1 > 본 연구의 평가체계의 구조 및 대상범위(이동근&윤소원(1998))

< 표 3-1 > 환경지표의 구성(이동근 & 윤소원, 1998:99-100)

중합	중간지표	개별지표	산출방법	
구동력 지표 (Driving Force)	인간의 활동	인구	인구밀도	
		교통	자동차 등록자수	
	자원의 이용	에너지 소비	석탄류	사용량
			석유류(경유, 가솔린등)	*
			가스류(LNG 등)	*
		전력류	*	
		수자원 이용	상수사용량	
산림이용	공업용수 사용량			
생물이용	국유지·사유지별 산림벌채면적			
압력지표 (Pressure)	토지이용변화	도시화율	시가지구역면적/전체도시면적	
		지속별 토지이용변화	지속별 토지이용변화율	
		하천변화율	일정기간동안 하천목개율	
		동·식물변화율	일정기간동안 동·식물변화율	
	환경부하	대기오염원배출	대기오염배출원	대기오염배출원소수
			대기오염배출량	대기오염배출량
		수질오염원배출	수질오염배출원	수질오염배출원소수
			수질오염배출량	폐수배출량, 하수배출량
		폐기물배출	폐기물배출원	폐기물배출원소수
			폐기물배출량	폐기물배출량
중금속배출	중금속배출원	중금속배출원소수		
	중금속배출량	중금속배출량		
상태 지표 (State)	토지구조	이용가능토지면적	경사도 8° 이하의 면적/시면적	
		녹지구조	시주변 공원의 유형 및 수	
	생물	양	생물종다양성	식물종 다양성/동물종 다양성
			녹지량	지역내 현상녹지량
		질	자연성	녹지자연도
			안정성	식생천이정도, 식생수령
			대표성	동·식물상 대표종(우점종)
			회귀성	보호해야할 식물군락/동물 분포율, 천연기념물 수
	분포	고립성	패취사이즈, 패취수	
		연속성	(심재로 연속하고 있는 선 수) / Lmax(계산상 연속이 가능한 선 수) X 100	
환경부하	대기	NOx	대기내 NOx 농도	
		SOx	대기내 SOx 농도	
		TSP	대기내 TSP 농도	
		BOD	공공역 구역의 BOD농도	
	수질/수량	COD	공공역 구역의 COD농도	
		수자원 고갈	하천 유량 및 호수저수량	
	토양	Cu	토양 중 Cu 농도	
		Pb	토양 중 Pb 농도	
Zn	토양 중 Zn 농도			
대응지표 (Response)	자원의 재이용	쓰레기재활용지표	쓰레기의 재활용 비율	
		물순환지표	중수 재활용비율/우수이용비율	
		에너지효율이용지표	난방에너지 중 지역난방시스템에의 이용율	
	환경질 향상	자연에너지이용지표	자연에너지 이용시설수	
		거리의 아름다움지표	시가지내 미관지구 면적비율	
		친수공간지표	자연적 수변연장	
		식식공간의 보전창출지표	지역내 보전 및 창출가능 면적/전체농촌지역면적	
	시민행동·정책지원	시가지의 여유지표	시가지내의 공지 면적비	
		자연과 인간의 공생지표	visitor center 이용자수, 공원민간 봉사자수, 자연공원이용자수	
		민원지표	처리건수/환경오염피해건수	
환경보전	보전창조투자지표	시민1인당 환경보전 지출액		
	시민생활·활동지표	환경보전 창조의 시민활동 참가율		
	환경보전자립도지표	폐기물의 지자체처리율		
	제도기구조지표	협정·제도 건수		
환경시설	환경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지구환경문제	지구환경예산/전체예산		
환경인력·기구	환경인력·기구	인구천연당 환경담당 공무원 수		

3.1.2 어메니티(amenity)

3.1.2.1 어메니티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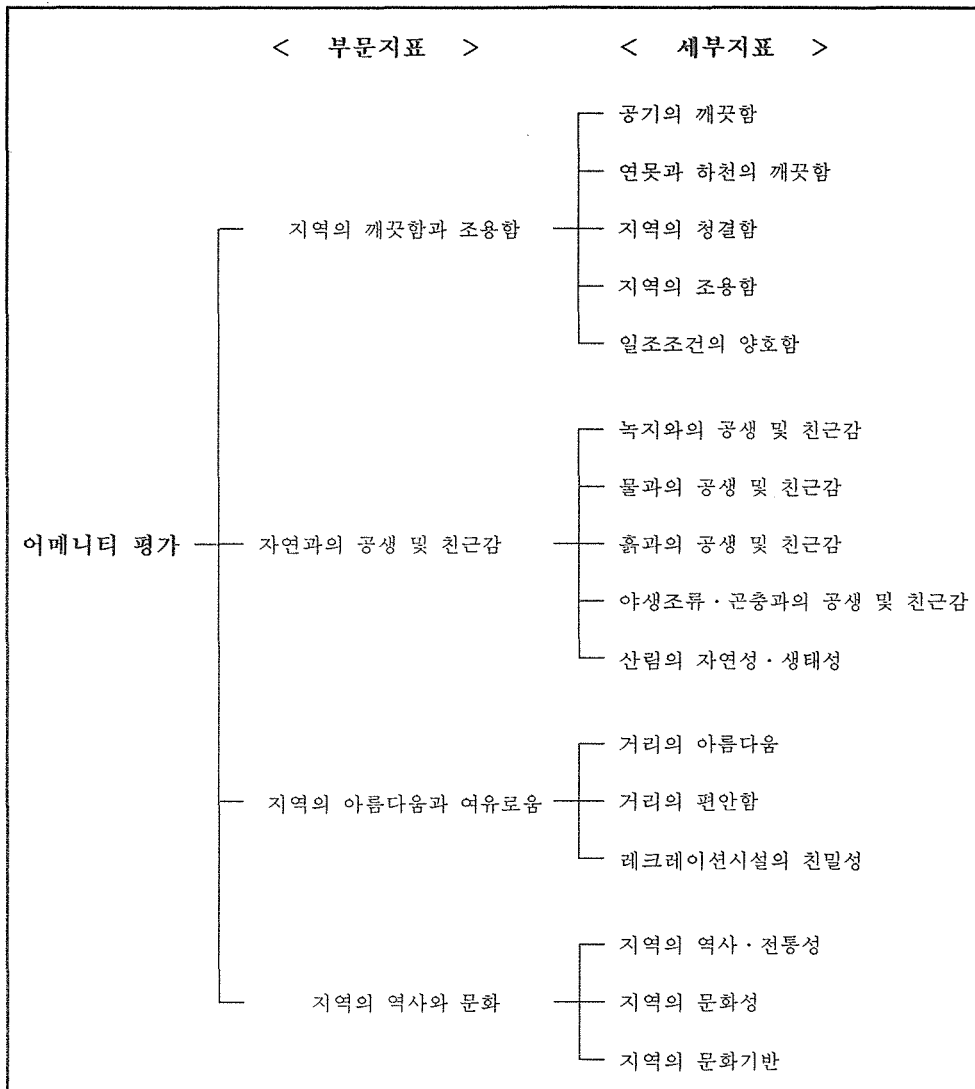
○ 어메니티(amenity)란 본래 라틴어(Amare=사랑하다, love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말로 일반적으로 쾌적한 환경, 인간의 삶에 없어서는 안될 상쾌함 등으로 정의되며, 일상 생활에서 보고·듣고·느끼고·맛보는 종합적인 개념으로서 인간과 인위적 구조물, 자연이 함께 하며 주민에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행위제거, 범죄와 사고 예방 등의 안전성, 공해방지·건강관리·환경위생 등의 보건성 공공시설의 질과 접근성, 관광 레크레이션시설 등의 편리성, 오픈 스페이스의 보전, 노후주택 및 불량미관의 개선, 역사적 풍토 보존, 경관 보존 등의 광범위하고 총괄적인 개념임(경기개발연구원, 1998). 또한 총체적인 환경의 질이며, 인간이 기분이 좋다고 느끼는 물리적 환경상태로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개념이라고 정의됨(이·윤, 1998).

○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부산을 시작으로 1998년도에는 경기개발연구원 주체로 경기도 6개시(부천, 성남, 수원, 안산, 안양, 의정부)를 중심으로 어메니티 계획에 관한 보고서가 수립된 상태이며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어메니티란 풍요로운 녹지, 깨끗한 수변, 아름다운 경관, 역사적인 분위기를 강조하여 쾌적한 환경을 확보하여 인간의 생활에 윤택함과 평온을 주는 계획을 의미한다(경기개발연구원, 1998)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용어는 그대로 어메니티라고 사용하고 있음.

○ 어메니티 플랜은 지금까지의 계획처럼 지역내에 정형화된 물적환경을 제공하고 그 환경에 맞추어 주민들이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느끼기에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환경 및 공간전체를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정비하고 창출해 나가는 것’ 임(경기개발연구원, 1998). 그러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활자체가 쾌적한 생활이 되도록 계획초기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해가는 것을 의미함.

3.1.2.2 어메니티 플랜의 구성

○ 어메니티 지표의 구성체계는 다음<그림 3-2>에서와 같이 크게 지역의 깨끗함과 조용함, 자연과의 공생 및 친근감, 지역의 아름다움과 여유로움,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4가지와 그 하부의 세부지표 16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경기개발연구원, 1998).



< 그림 3-2 > 어메니티 지표의 구성체계와 지표의 내용

3.1.3 생태마을

3.1.3.1 생태마을(Eco-village)의 개념과 특성

○ 생태마을(Eco-village)이란 농촌의 낙후성과 질 낮은 환경을 개선하고자 건설적인 면에서 추진되어온 환경공생지역으로 인간과 자연이 잘 공존하는 국토공간의 재생을 꾀하기 위하여 대도시에 대해 증대하고 있는 환경부하를 경감시키며 질이 높아진 자연환경재생 뿐 만이 아니라 농촌에서는 자연환경과 자연자원을 관리하고 그와 동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금 현재의 환경개선만을 위한 계획구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생태계의 재생을 꾀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촌정비를 목표로한 계획방침임(武內, 1996). 여기서 말한 생태계 재생이란 환경보존과 양립되는 그 자체의 농업을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재구축하는 개념과 더불어 Ecology + Economy의 개념임.

○ 마을의 공간구조와 생태계, 그리고 마을내의 건물과 시설이 친환경적으로 되어 있으며 마을주민들의 생산방식이나 생활양식까지도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을을 의미하며 몇 년 전부터 시범적으로 조성해 가고 있는 농촌문화마을 사업과의 차이점은 농촌문화마을은 상하수도, 오페수시설 등의 생활기반시설과 마을회관, 어린이 놀이터 등의 편익복지시설 뿐 아니라 경지정리, 용수개발 등 생산관련시설을 확충해 주고 현대식 주택신축 등의 신주거단지 개발사업에 의해 조성된 마을로서 농어민과 도시민이 함께 살 수 있는 전원마을(임승빈외, 1995)인 데 반해 생태마을은 마을의 공간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을 농촌의 자연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도록 조성하여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마을을 의미함.

○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환경보전형 주거단지와의 차이점은 환경보전형주거단지는 도시주거단지를 주로 염두에 두고 자연조건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건축과 자연환경이 공생할 수 있으며 자원 및 에너지를 절약하고 물질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여(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95) 주거단지를 친환경적으로 조성한 단지인 데 반해 생태마을은 농촌마을을 주대상으로 하여 농촌의 생활환경 뿐 아니라 농업생산활동과 생활양식까지도 친환경적이 되는 마을을 말함.

3.1.3.2 생태마을의 구성요소 및 특성

- 농촌에 조성되는 생태마을은 마을의 생태계라는 관점에서 고찰하면 여러 가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는 즉 자연환경, 주민, 생활공간, 생산공간, 마을조직, 마을공동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로는 자연환경을 들 수 있으며 농촌환경자체가 자연환경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생태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연환경이 생태마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 생태마을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주민임. 주민들의 생활양식이나 태도, 생산활동 등이 생태마을의 오염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 친환경적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가치관과 환경에 대한 인식정도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생태마을의 생활공간은 마을의 인공적인 요소로서 생활공간 자체가 친환경적으로 조성되는 것이 생태마을에서 지향하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음. 또 하나의 요소인 생산공간은 농업생산을 위한 농경지를 말하는 것으로 농업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환경오염을 유발하기도 함.
- 마을조직은 마을의 사회적 조직을 말하는 것으로 이들 조직이 친환경적 생활양식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함. 마을공동체는 마을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심리적인 동질감을 갖게 하는 우리 동네라는 사회적공동체를 의미하며 생태마을은 생활양식의 변화뿐 아니라 사회적공동체의 동네의식과 마을주민들간의 유대관계가 중요한 요소가 됨.
- 생태마을은 마을구성원들의 공동체가 잘 이루어졌을 때 생태마을조성이 용이해지며 생태적 삶을 영위하는 것도 용이함.

3.1.3.3 생태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생태계획의 기본목표

- 생태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생태계획 및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데 생태설계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설계라고 할 수 있음(Sim Van der Ryn & Stuart Cowan, 1996).

(1) 그 지역의 토착적인 공간적 특징이나 재료 등으로 이루어져 그 지역의

고유한 특징을 갖는 설계

- (2) 자연의 과정(nature's process)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고 통합하는 설계
- (3) 설계가 생태과정(living process)에 통합됨으로서 환경적으로 훼손을 일으키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설계

○ 생태설계와 유사한 개념으로 녹색설계(Green Design)와 지속가능한 설계(Sustainable Design), 환경적으로 민감한 설계(Environmentally Sensitive Design)라는 개념도 이용하고 있음(양병이, 1995). 지속가능한 설계란 생물학적 다양성과 환경적 통합성을 유지하고 대기, 물, 토양의 건강에 기여하며 생물지역의 조건을 반영하도록 설계와 건설을 통합하고 인간의 이용에 의한 영향을 감소시키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U.S., National Park Service, 1993).

○ 생태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생태계획에서 달성되어야 할 목표는 다음과 같이 크게 네가지를 설정할 수 있음.

- (1) 물질순환이 원활한 마을
- (2) 에너지와 물, 식량 등의 자급자족을 이루는 마을
- (3) 자연생태계가 잘 유지되는 마을
- (4) 환경오염을 유발시키지 않는 마을

3.1.3.4 생태마을 개발 후보지의 특성

○ 전국의 모든 농촌마을을 생태마을로 조성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잠재력이 높고 여건이 좋은 후보지를 선정하여 생태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생태마을로 조성하기 좋은 그리고 조성할 필요성이 높은 후보지로는

- (1) 상수원보호구역내의 마을과 그린벨트내의 마을
- (2)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할 지역주변의 마을
- (3) 임상이 수려한 숲의 주변마을이나 전원주택단지 등

상수원보호구역내의 농촌마을은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해 많은 규제를 받고 있으며 특히 수질오염을 일으키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생태마을로 조성하여 환경오염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그린벨트내의 마을도 그린벨트의 녹지를 보존해야 하는 여건을 고려하고 개발을 규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생태마을로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후보지이며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할 지역의 주변은 자연환경보존지역의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완충지역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지역의 농촌마을은 생태마을로 조성하는 것이 자연환경보존지역의 생태계를 보존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완충지역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임상이 수려한 숲의 주변마을도 생태마을로 조성할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숲의 생태계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마을의 생태계를 숲의 생태계와 연결이 가능하고 인접마을이 생태마을로 조성됨으로써 숲의 생태계를 보호해 주는 기능도 할 수 있기 때문임.

○ 농촌마을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도 생태마을로 조성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며 전원주택단지는 입지조건상 자연환경이 수려한 지역을 찾아가기 때문에 생태마을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고 전원주택단지가 잘 못 조성되면 수려한 자연환경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생태마을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3.2 선진외국 및 국내의 환경친화적 농촌개발계획 사례연구

3.2.1 일본 에코 빌리지 <조세이 지구(長生地區)>

3.2.1.1 정비개요

○ 조세이(長生)지구는 해안과 접하고 있고 온난한 기후대에 속하며 평온한 일본의

논의 경치가 넓은 지역임. 또한 농업생산성이 높아지고 있어 농촌생활환경의 한 단계 향상이 기대되고 있는 지역임. 따라서 농업생산과 조화한 집주형 전원집락을 정비하여 모바라(茂原)시, 지바(千葉)시 등의 근린도시 주민을 포함한 주민교류를 깊게하는 것으로 지역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였음. 또한 환경친화적 농촌환경 정비계획(Eco-village)은 기존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역에 맞는 도입 방안을 구상하였음.

3.2.1.2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위한 계획요소

(1) 생활시설 정비계획

① 단지계획

○ 지역구분에 기초하여 각 시설의 배치계획을 함. 생활기반축으로는 기존의 마을은 물론 증가하는 인구를 감안한 시설의 재정비를 함.

○ 중앙도로의 개통에 의한 교통량의 증대로 인해 환경악화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는 것 부터 국도를 따라 주택을 건축상후퇴(set back) 시켜 완충지대로서 그린벨트를 설치함. 국도와 교차하는 4개의 가로를 통해 교차점에는 광장을 설치함. 국도에서 집락으로 자동차의 접근은 이 4개의 도로에서만 가능하게 하여 교차점 수를 감소시키므로서 정체를 감소시켜 대기오염이나 발전시의 소음을 방지함. 역 앞길과 국도의 교차점 광장부근은 현재에도 공공시설이 많은 곳이지만 공공시설을 더욱 집약하여 공공서비스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

○ 생활기반축과 자연환경축의 교점의 광장에는 생활시설과 습지를 설치하여 집락에서 발생한 배수를 정화하여 자연으로 환원함. 자연환경축으로는 자연생태계의 회랑으로 근자연형 수로와 그린벨트를 정비하며 수로의 상류측에는 구릉지로 부터의 토사유입을 막은 침사지, 해안부에는 수조가 생식할 수 있는 비오토프를 설치함. 자연환경축과 도시교류축의 교점에는 원형광장을 만들어 Farmers Market, Antenna Shop, Nature Center, Cycling Center 등을 배치하며, 여기에서는 조세이(長生)지역의 자연관찰의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며 자전거나 도보에 의해 자연관찰 여행을 하기 쉽도록 Nature Center와 Cycling Center를 인접시킴.

② 환경오염 관리계획

○ 농촌의 특성을 살리고 도시에서는 어려우나 농촌이기 때문에 가능한 쾌적함이 높은 생활시설의 도입을 검토하였음. 특히 쓰레기의 발생은 처리기계 이용과 발생찌꺼기의 퇴비화로 환경부하를 감소시켰으며, 이는 처리시설에 의해 생활쓰레기의 발생을 극소화 하고, 동시에 발생찌꺼기를 퇴비화하는 것으로 지역농업에 환원을 통해 지역의 질소순환을 극력달성 할 수 있는 계획으로 했음. 처리후의 물은 시설주변의 습지로 방류하고 더욱 자연적으로 정화를 기대할 수 있도록 계획했으며, 조세이군(長生郡)의 경우 습지의 면적이 제법 크기 때문에 처리시설과의 조화에 의해 야생소식동물의 서식지(sanctuary)로서의 역할이 기대됨.

(2) 자연환경 정비계획

○ 경관보전은 전통적인 농촌에서의 경관구성요소의 배치와 면적배분은 자연시스템과 생산구조나 생활양식에 근거해 만들어 계획되며 요소의 미적, 기능적, 생태적 의미를 검증하여 보존할 것과 새롭게 정비할 것에 대해 계획을 작성하였음.

○ 생물서식공간(Biotop) 창출은 생태계를 조사하고 중요 생태환경을 선정하여 보호지역과 토지이용 개선지역을 계획하며 현재 존재하고 있는 지역내의 녹지의 존재형태를 점, 선, 면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작성함.

(3) 농촌·도시교류 정비계획

○ 산지직송계약재배 정도로 그치던 소극적인 교류를 보완하여 인간, 사물, 정보의 쌍방의 교류를 구상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예로 Farmers Market을 통해 단순한 매매가 아니라 중산간형농촌의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장소의 선전 및 홍보의 기회로 활용되며 도시민의 요구도를 파악하여 장래 보다 발전된 교류를 위한 기반으로 삼고 도시민은 농촌에서의 문화활동 순회공연을 실시하고 농촌시민은 지방영화제나 지방연극제 실시로 인해 도시민에게는 농촌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농촌주민들에게는 관광자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음.

3.2.2 호주의 퍼머컬처 빌리지 <크리스탈 워터스(Crystal Waters)>

3.2.2.1 정비개요

○ Crystal Waters는 평범한 녹색농업가들의 그룹으로 1985년에 스위스 출신의

Max Lindegger가 참여하여 보다 공식적이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토지의 이용을 추구하게 되었음. 또한 식재전문가인 Robert Tap이 파트너로 참여하여 토지이용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들이 추구한 목표는 ‘식량, 에너지 자원, 경제활동, 사회활동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환경, 정치,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변화가 적게 일어나도록 하는 것’ 이었음.

○ 이곳의 면적은 250ha(640 acres)로 여기에서는 농업, 경공업, 교육, 서비스산업 등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Crystal Waters는 자율적으로 특별한 규칙이나 규제없이 생태적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곳의 토지를 구입하고 함께 살 수 있음.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Crystal Waters에는 거주자들사이의 독립성과 다양함이 존재하고 있으나 전체를 포괄하는 강력한 커뮤니티의 부재가 염려되고 있으며, 이곳은 지형을 고려하여 평지는 농경지로 사용하고 구릉지에 주택을 배치하였다. 공간계획은 공적공간, 반공적공간, 사적공간의 3단계의 위계를 갖는 영역계획을 기본개념으로 도입하였음.

○ 주거지역은 저수지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의 최소단위의 커뮤니티를 갖도록 3-12개의 주거들을 단지형으로 배치하였으며, 각각의 단지에는 충분한 평탄지를 제공함으로써 단지 주민들이 공유하는 아동공원, 야채정원, 과수원을 갖도록 하였음.

3.2.2.2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위한 계획요소

(1) 토지이용 방식

○ 평지는 농업생산을 위해서 사용하고 구릉지에 주거를 배치하는 기본적인 기본개념으로 시작하여 두 개의 생태적 영역을 동시에 갖는 숲과 평야의 중간지대는 주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므로 이곳에 주거의 위치를 설정하였음. 이 지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접한 경계선을 곡선 혹은 지그재그로 설정하여 보다 많은 주택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2) 에너지 이용방식

○ 겨울철에는 낮 동안에 북측으로 향한 높은 측창을 통하여 낮은 고도의 태양빛이 들어와 축열성능이 좋은 두꺼운 흙벽속에 저장되고 밤이 되면 서서히 열을 방출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연출함. 여름철에는 고도가 높아 태양빛이 창을 통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축열벽은 낮은 온도를 유지하게 되어 서늘한 실내환경을 연출함.

(3) 자연자원의 이용 및 관리

○ 건물벽 혹은 단열재로 6-7%의 시멘트가 첨가된 흙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재료를 이용하여 보통 2층 규모 약 7.5m정도 까지 높일 수 있음. 우수를 이용하기 위해 집집마다 1-2개의 우수저장고를 설치하였음.

(4) 환경오염관리

○ 주거지역에서 발생된 쓰레기(폐기물)는 각자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저수지로의 오염이 없도록 해야 함. 생활하수의 유입으로부터 저수지가 안전하도록 주택을 이격 배치하고 있으며, 집집마다 음식물과 잡초 등을 처리시설에 넣어 퇴비를 생산하여 농작물의 생산에 이용하고 있음. 또한, 3단계의 연못을 만들어 물을 흘려 보내면서 폭기시켜 자연적인 정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훌륭한 조경요소도 되고 있음. 또한, 연못에는 정화식물을 두어 물을 정화하고 있으며 이 물은 다시 이용되고 있음.

(5) 환경친화적 건축물 계획

○ 옥상을 녹화하여 주택과 자연이 어우러지도록 하고 있으며 동시에 단열의 효과를 얻고 있음. 또한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나무와 진흙을 이용하여 건축물을 건설함으로써 친환경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으며, 재료의 장거리 운반이 불필요 하므로 수송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음.

○ 북측창으로 크게 하여 태양빛을 받아들이고 자연을 조망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온도와 습도 등 기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건물을 지상으로부터 1-3m 가량 높은 필로티 방식으로 건설하고 있어 쾌적한 환경의 제공과 여름과 겨울철의 냉난방 부하를 줄일 수 있음.

(6) 환경친화적 단지구성 방식

○ 공공교통이 없는 관계로 대부분의 가구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나, 지구내에서는 보행자와 자전거, 동물들이 우선권을 갖음. 지구내에는 연장 7.5Km에 달하는 도

로가 있어 경관과 자연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어 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생물들의 이동과 물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도로폭은 3m로 제한되었고 구배도 자연구배에 맞추어 건설하였음. 식재의 방식도 독특한데 주거단지의 입구에는 문과 같은 느낌이 있도록 뺄뺄하게 식재하였고 단지에 들어오면 나무들은 군데군데 식재되어 주거단지의 느낌이 들도록 계획하였음.

3.2.3 영국의 생태관광단지<Sissinghurst 허브가든>

3.2.3.1 정비개요

○ 이곳은 영국 런던에서 기차로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며 Kent주의 Sissinghurst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농촌마을로 규모는 약 20,000평 정도이며 현재 환경기금단체인 내셔널 트러스트(National Trust)에서 경영·관리 운영하고 있고 지역을 하나의 가든형식으로 기획한 공간임.

○ Sissinghurst Garden은 영국의 전통적 자연풍경인 구릉과 전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가든의 일부는 HaHa수법<차경(借景)수법>을 도입하고 있음. 이곳은 처음에 영주관저로서 중세에 세워졌는데 15세기 경 Backer가족에 의해 큰 저택으로 증축되어 이용되었으나 1756~1763년에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시에는 프랑스 포로들의 감옥으로 사용되었고 전쟁의 막바지 무렵에 저택의 대부분이 허물어져 방치되었음. 그 후 1930년 Vita Sackvill-west와 Harold Nicolson부부가 허물어진 저택과 정원을 사들여 허브를 이용하여 새롭게 정원을 조성하였으며, 1938년 조성된 정원을 유료화하여 대중에게 처음으로 공개하였는데 당시 방문한 관객은 약 800명 정도였으며 입장료는 5펜스였음. 그 후 Vita부부는 1967년 National Trust에 이곳을 기부하면서 점차 세계적인 허브가든이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였음.

3.2.3.2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위한 계획요소

(1) 지역의 특색을 살린 토지이용계획

○ Sissinghurst Castle Garden은 허브도입 시기가 기원전으로서 환경기금단체가 주체가 되어, 6ha규모의 정원형태로서 영국의 Sissinghurst에 위치해 있음.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Sissinghurst는 런던에서 자동차로 약 1시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는 농촌지역으로 이용객의 접근성 또한 매우 양호하다는 것임. 또한 자연환경조건을 보면 위도상 고위도에 위치하며 지형 지세는 평원 저지대로서 허브산업의 자연친화적 개발여건이 우수하고 토양은 회백토로서 배수조건이 좋으며 연간강수량은 약 590mm, 연평균기온은 약 10.5 °C로서 허브의 생육조건으로서 최적임. Sissinghurst Castle Garden은 역사유적지를 배경으로 허브원을 조성하여 영국의 대표적인 허브원인 동시에 세계적인 허브관광명소로 정착되었는데 Sissinghurst Castle Garden의 오랜전통과 허브원의 특별한 경험을 체험하기 위해 지금도 세계각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음. Sissinghurst Castle Garden내에는 상점, 식당, 전시장 등의 편의 시설도 포함되어 있으며 제한적인 시간내에 동시입장제를 실시하고 있음. 이는 입장객수가 20만명에 이르렀던 1992년부터 시행되었는데 방문자가 쾌적한 분위기속에서 자연을 충분히 만끽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고 다른 하나는 과도한 이용에 따른 환경보전적 측면을 고려한 것임. 또한 이곳 상점에서는 허브관련자료 및 상품 등을 전시 판매하고 있음.

(2) 커뮤니티 계획

○ Sissinghurst Castle Garden에 대한 전체적 구조 및 배치측면을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외곽부분에 허브의 특성을 살린 각각의 전형적 가든 형태로서 뿐만 아니라 가든 중앙에는 자연적인 과수원을 배치함으로써 자연과 인공미를 살린 독특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배식을 이용한 생울타리로 오솔길을 형성하고 있어 변화와 통일성으로 조화되어 방문자들에게 충분한 흥미와 욕구를 채워주고 있음. 정원 내부에는 쾌적성을 위하여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쓰레기통도 비용절감을 위해 설치하지 않아 집으로 되가져 가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시설물들을 가급적 피한 것은 방문객들에게 자연그대로를 충분히 만끽하도록 하기 위함임(정·조, 1998).

(3) 지역 주민을 위한 소득증대 계획

○ Sissinghurst Castle Garden에서 실시하고 있는 관리운영방식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며, 수확한 허브를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인해 그 관리자의 소득증가는 물론 상품을 특화시킴으로 해서 자연을 만끽하고 싶어하는 방문객들에게 주변의 크고작은 도시공원보다 이곳에 관심을 갖도록 도와주고 있는 또 하나의 큰 매

력요소로서 작용하고 있음. 현재 향기산업은 미래의 유망산업으로 허브 재배야말로 농촌지역의 고소득을 보장해주는 새로운 수입원이 될 것임.

3.2.4 국내 전통정주지 사례 (원터마을)

3.2.4.1 개요

○ 원터마을은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상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1510년경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농촌마을임. 이는 원시부락형태로서 인위적인 계획에 의해 형성된 마을이 아닌 전형적인 延安 李氏의 동족마을임.

3.2.4.2 환경친화적인 농촌개발을 위한 요소

(1) 종다양성을 위한 다양한 토지이용의 결합

○ 원터마을은 감천을 중심으로 남서-북동 방향의 저지대를 사이에 두고 동서방향으로 점차 지형이 높아지는 협곡의 동사면에 위치하고 있음. 마을의 토지이용은 택지가 조성되어 집들이 들어선 주거지, 연료와 목재 그리고 묘지의 터를 제공하는 산림, 농경지 등으로 나뉘며, 원터마을은 세 개의 지점에서 주거지, 농경지, 산림 등 세 가지 토지이용이 결합되는 다양한 토지이용상태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토지이용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원터마을의 뒷산에는 왜가리를 비롯하여 다양한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음.

(2) 자연정화를 도모하는 수자원의 활용

○ 원터마을의 주거지는 마을 후면의 계곡으로부터 형성된 수로를 끼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이는 수자원을 확보하고 마을 전면의 농경지 또는 하천으로 방류되는 수량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임. 또한, 각 주거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는 남측 안길을 따라 매설된 하수로를 통하거나 주거지 전면의 노출된 하수로를 통하여 마을입구 방초정의 앞 연못에 모아지며, 이때 수로에서 고형물이 일부 걸러지고 일부는 연못을 거치지 않고 수로를 따라 흘러 논으로 유입됨. 수로의 바닥은 잡초와 이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수로에서 하수는 이차적으로 정화됨.

(3) 생물서식지로서의 자연요소 도입

○ 녹지와 수공간 등 마을에 도입된 자연요소는 마을공간에 생물적인 다양성을 부여하는 조건이며, 마을 후면의 경사녹지, 수변공간은 단일한 구성이 아니라 복합적인 생태적 요소를 포함하여 생물들의 서식지로서 적합함.

(4) 에너지절약을 고려한 마을 및 단위주거 배치

○ 마을배치시 마을내부를 주변부보다 지형이 낮은 곳에 위치시켜 방풍에 유리하도록 하였으며, 단위주거의 평면상 공간배열은 툇마루, 광 등 비난방공간을 난방공간의 주위에 배치함으로써 열적인 완충효과를 얻고자 하였고 처마는 열적 완충공간을 형성하여 여름철에는 외부의 가열된 공기, 겨울철에는 외부의 한랭한 공기의 침입을 억제하도록 하였음.

(5) 폐기물의 순환

○ 유기성 쓰레기(주방쓰레기), 분뇨, 농업생산부산물은 모두 농업생산에 재활용하였음. 유기성 쓰레기와 가축의 오물은 퇴비로 활용되며, 분뇨는 발작물에만 퇴비로 쓰임. 농업생산의 부산물인 겨는 닭똥(鷄糞)과 혼합하여 퇴비로 이용하고 퇴비작업은 대체로 농경지에서 이루어지나 단위주거 내에도 유기성 쓰레기를 퇴비로 처리하는 장소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3.2.5 사례연구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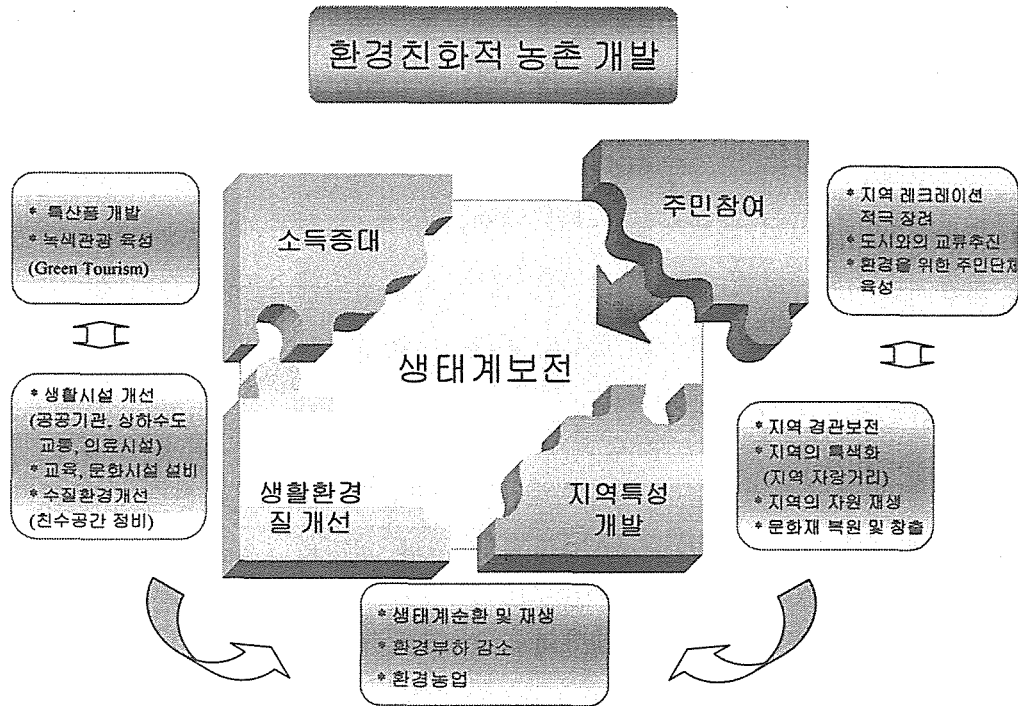
○ 앞서의 국·내외 사례를 보면, 환경친화적인 농촌개발은 인간생활의 기본요소인 물과 경작지와 연료가 동시에 고려되어졌으며, 이와같이 형성된 인간거주지 내에서의 생활은 물, 생산지, 연료, 에너지, 일조, 어메니티, 자원을 얻기 위해 그곳의 자연에 순응하고 재순환, 재생산 및 절약하는 원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음. 이것은 바로 지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것의 개요와 환경친화적인 농촌개발을 위한 요소는 다음<표 3-2>와 같음.

< 표 3-2 > 사례 연구의 개요 및 환경친화적인 농촌개발을 위한요소

사례	일본 조세이지구	호주 크리스탈 워터스	영국 시싱허스트	한국 원터마을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난한 기후대로 논의 경치가 넓은 지역. • 농업생산성이 높고 근린도시와 인접하여 도시민과의 교류를 통한 지역활성화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다 공식적이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토지의 이용을 추구 • 농업, 경공업, 교육, 서비스산업 등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런던에 인접하여 환경 기급단체가 경영·관리 운영 하는 가든형식의 공간 • 방문객을 끌어들이어 입장료에 의한 수입확보 및 허브를 생산하여 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10년경에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통적인 마을 • 원시부락형태의 자연발생적인 동족마을
환경친화적인 농촌개발을 위한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시설정비(단지, 환경오염관리) • 자연환경 정비(경관보전, 생물서식공간 창출) • 농촌·도시교류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이용 • 에너지 이용 • 자연자원 이용 • 환경오염 관리 • 환경친화적 건축물 • 환경친화적 단지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특색을 살린 토지이용계획 • 커뮤니티 계획 • 지역주민을 위한 소득 증대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다양성을 위한 다양한 토지이용 • 자연정화를 도모하는수자원의 활용 • 생물서식지로서의 자연요소 도입 • 에너지절약을 고려한 마을 및 단위주거 배치 • 폐기물의 순환

IV 환경친화적인 농촌의 목표 및 지표설정

4.1 환경친화적 농촌개발을 위한 목표 및 주요실천전략



< 그림 4-1 > 환경친화적 농촌개발을 위한 목표 및 주요실천전략

○ 지금까지 실시되어온 농촌개발 사업(정주권 사업, 문화마을 사업)을 분석·평가하기위해서 본 연구는 우선 3.1(2단계)의 이론적 연구와 3.2(3단계)의 선진외국의 사례검토를 바탕으로 주요 지표축을 설정하였으며 그에 대한 실천전략은 <그림 4-1>과 같음. 그 지표축은 생태계보전, 생활환경질 개선, 소득증대, 지역특성 개발, 주민참여의 5가지 항목으로 설정하였음.

4.1.1 생태계를 보전

○ 환경친화적인 농촌개발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생태계 보전을 근본목표로 함. 우선 환경부하를 감소시키고 유기농업을 비롯한 환경농업을 지역적으로 실시범위를 확대시켜 생태계를 보전 및 재생시킴.

4.1.2 농촌경제의 소득증대

○ 각종 환경오염과 농업취업자수의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생산성의 저하하는 현실하에 농민의 소득증대를 목표로 함. 세계적으로 농민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녹색관광(Green Tourism)을 구상하여 도시민들을 유입시켜 과수원을 비롯한 특산품을 개발하여 체험농장이나 분구원(주말농장) 등을체계화시켜 소득증대로 인한 지역의 활성화 도모함.

4.1.3 농촌의 생활환경 질 개선

○ 문화·교육기반이나 생활시설기반의 낙후로 인해 저하된 생활환경의 질을 개선시킴. 공공기관 이나 의료·문화시설 기반을 정비·구축하고 각 가정의 상·하수도 정비를 실시하며 인근의 하천 및 호수의 수질을 개선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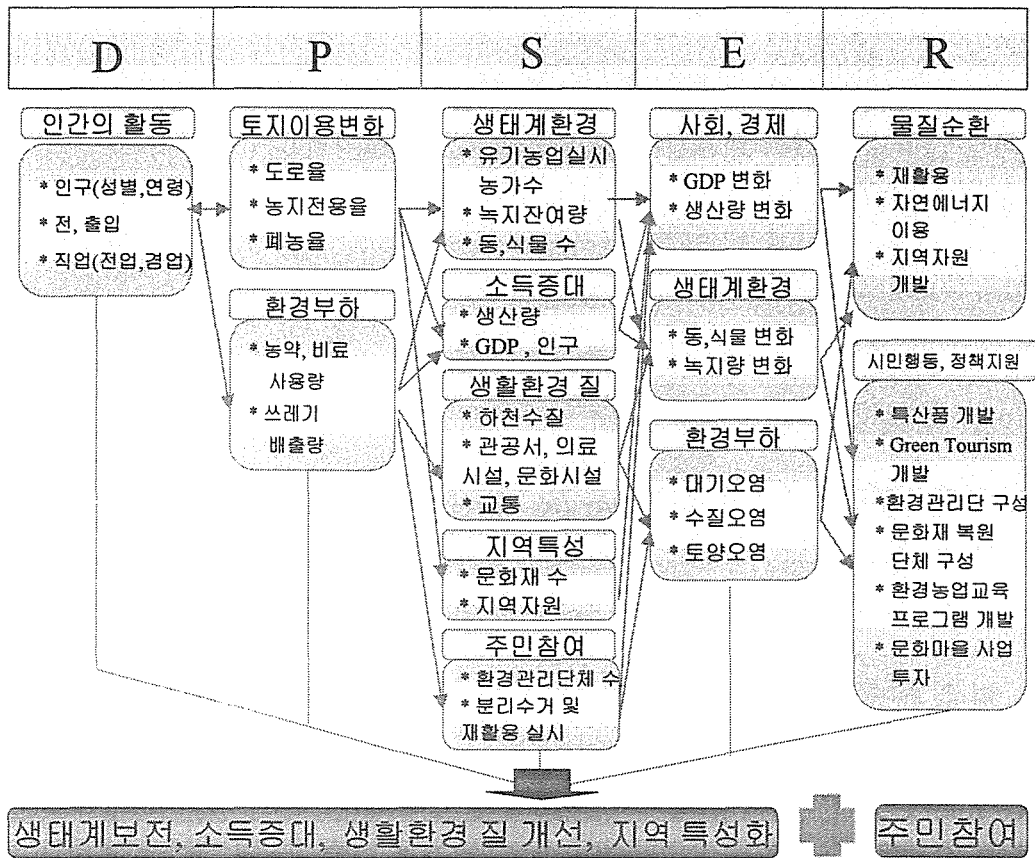
4.1.4 지역의 특성개발

○ 구분된 3가지의 농촌유형에 근거하여 지역자원 및 경관을 보전하며 문화재 및 지역의 자랑거리를 복원·조성하여 지역의 특성을 개발하는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함.

4.1.5 지역주민의 참여

○ 그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의 레크레이션을 장려하여 지역주민들간의 유대감을 증진시키며 도시민과의 교류추진을 위한 주민단체를 구성하여 경제는 물론 사회·문화적인 교류를 통하여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함.

4.2 DPSER구조에 의한 환경친화적 농촌개발의 지표



< 그림 4-2 > DPSER구조에 의한 환경친화적 농촌개발의 지표

○ 설정된 5가지의 기본축을 바탕으로 DPSE구조에 의해 환경친화적인 농촌개발을 위한 지표설정은 <그림 4-2>과 같음.

4.2.1 구동력 지표(Driving Force)

○ 인간의 활동에 의한 각종 영향으로 지표는 인구의 출생·사망 및 전·출입에 의한 증감이나 성별, 연령의 추이 등으로 설정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업종변경도 감안하여 설정하였음.

4.2.2 압력 지표(Pressure)

○ 인간의 활동 즉 도로확장 및 개통과 농지의 전용, 폐농 등에 의한 토지이용의 변화와 농약·비료의 사용증가와 쓰레기의 배출량의 증가로 인한 환경의 부하로 설정

하였음.

4.2.3 상태 지표(State)

○ 설정된 5가지의 기본목표 생태계보전을 기초로 한 소득증대, 생활환경질 개선, 지역특성 개발, 주민참여를 현재의 상태지표로 설정하였음.

4.2.4 영향 지표 (Effect)

○ 상태지표에서 기인된 사회·경제적인 변화나 환경부하로 인한 생태계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으로 설정하였음.

4.2.5 대응 지표(Respon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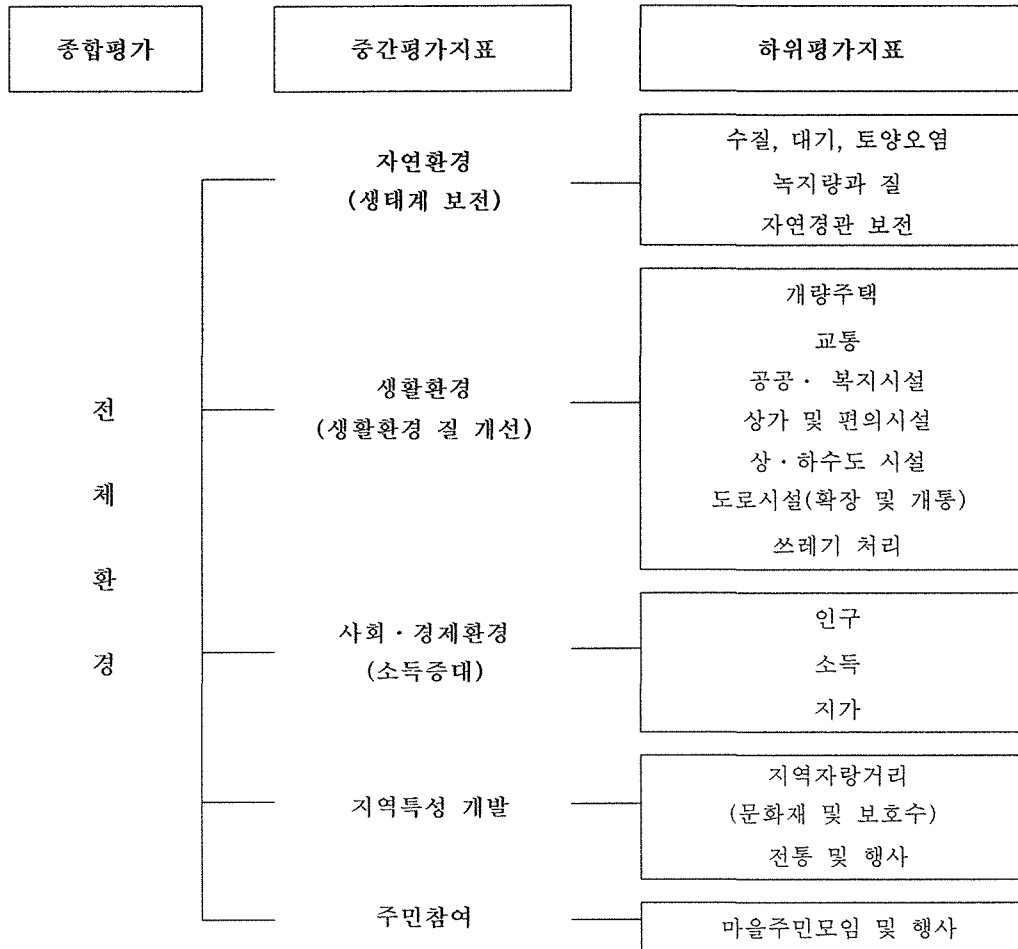
○ 향후 정책과제로 발전될 물질순환 및 시민행동·정책지원의 방향에 대한 사항으로 설정하였음.

4.3 환경친화적인 농촌개발을 위한 평가지표 체계 구축

○ 환경친화적 농촌개발을 위한 평가지표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앞에서 제시된 5가지 지표축(중간평가지표)에 기초하여 하위평가지표를 설정하였음(그림 4-3). 즉, 생태계 보전에 관한 하위평가항목으로는 수질, 대기, 토양, 공기의 오염, 녹지(산림, 농지)의 양과 질, 자연경관의 보전으로, 생활환경 질의 개선을 위한 하위평가항목으로는 개량주택, 교통, 공공·복지시설, 상가 및 편의시설, 상·하수도시설, 도로시설(확장 및 개통), 쓰레기처리에 관한 항목으로, 소득증대에 관한 하위평가항목으로는 인구의 변화, 소득(생산량) 및 지가(땅값)의 변화로 정함. 또한, 지역특성 개발에 관한 하위평가항목으로는 문화재, 보호수 등의 지역자랑거리 및 전통적인 행사 및 전설 등으로, 주민참여에 관한 하위평가항목으로는 마을주민의 모임 및 행사에 관한 항목으로 설정함.

○ 설문지는 현황의 만족도 및 개선도를 중심으로 농촌환경개발사업 실시후의 변화에 대하여 주민 및 공무원에 대한 의식조사를 행할 예정이며, 기존의 통계자료와 실시지역 방문조사에 의해 구체적인 현황분석 및 농촌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임.



< 그림 4-3 > 환경친화적인 농촌개발을 위한 평가지표 체계

V 농촌의 유형화

5.1 유형분류

○ 농촌의 유형화는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하여 자연적, 사회적여건에 따라 농촌 개발의 형태가 다르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적 특성에 맞도록 유형화를 시도하였음. 유형화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도시와의 지리적 관계성에 중점을 둬, 그 이유는 도시로부터 특히 수도권으로부터 모든 행정 및 인구, 경제가 집중되고 또한 인접한 광역도시로부터도 영향을 받으므로 그 영향력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임.

○ 거리산정은 기존의 첫 번째 축으로 서울에서부터의 지역별 거리와 기존의 두 번째 축으로 인접한 6대 광역도시로부터의 거리를 산정함. 이는 서울과 인접한 광역도시로부터의 자동차 이용시의 최단거리와 시간을 각 138개지역에 대해 산정하였음. 출발점은 서울 종각을 광역도시는 중앙역으로 설정하였음. 산정방법은 고속도로를 우선으로 설정하여 고속도로 이용시는 시내 외곽지역에서는 시속 90 km/h로, 도심내 지역에서는 시속 70km/h로 설정하였으며 국도이용시는 외곽지역에서 40km/h, 도심 지역에서 30km/h로 설정하여 산정하였음. 얻어진 결과 데이터를 이용하여 통계프로그램 SAS를 통해 우선 거리를 표준화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군집(Cluster)분석을 실시하여 농촌을 유형별로 구분함. 군집분석이란 주어진 많은 수의 관측개체를 몇 개의 군집으로 나눔으로써 대상집단을 이해하고 군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통계방법임. 군집분석의 여러 가지 방법중 본 연구에서는 Ward's Method(와드의 방법)를 통하여 총 군집내(제공)거리의 오차제곱합을 최소화 하도록 군집끼리 합병하는 방법으로 농촌을 유형화 함. 계층적 군집화는 어느방식에 서든 각 개체가 스스로 군집인 상태로 출발하며, 다음 단계에서는 앞의 제기준에 따라 가장 유사한 두 개체 군집을 합병함으로써 군집 수를 하나씩 줄여 나가는 방법임.

○ 그 결과 유형은 3가지 형태, 즉 서울인접형 농촌, 서울근교형 농촌, 중산간형 농촌으로 구분되었음. 대략적인 결과는 다음 <표 5-1>과 같으며, 전체결과는 <별첨표

1>에 나타나 있음.

< 표 5-1 > 도시로부터의 거리 및 군집분석의 결과(일부예시)

< 최단거리적용, 단위(Km)>

사업추진연도	도명	시(군), 면명	서울부터의 거리	시간	인접 광역도시	광역도시로부터의 거리	시간	Cluster
2000	경기	남양주 진건	22.4	0.54	서울	22.4	0.54	1
1992	경기	양평 용문면	62.7	1.44	서울	62.7	1.44	1
1994	강원	철원 서면	84.4	2.28	서울	84.4	2.28	1
1991	충남	공주계룡	144.8	2.39	대전	39.3	1.22	1
1996	충북	제천 청풍	165.1	4.32	대전	141.8	3.44	2
1992	충북	단양 대강	176.5	5.05	대전	149.5	4.21	2
2000	강원	인제 북면	168.9	4.24	서울	168.9	4.24	2
1997	경남	창녕 길곡	339.5	6.31	부산	63.9	1.19	3
1995	전남	영암 군서	342.4	6.41	광주	54.4	1.30	3
1995	경남	사천 사남	344.1	5.57	부산	112.6	2.11	3

각각의 군집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음(표 5-2), (그림 5-1).

< 표 5-2 > SAS통계에 의한 Cluster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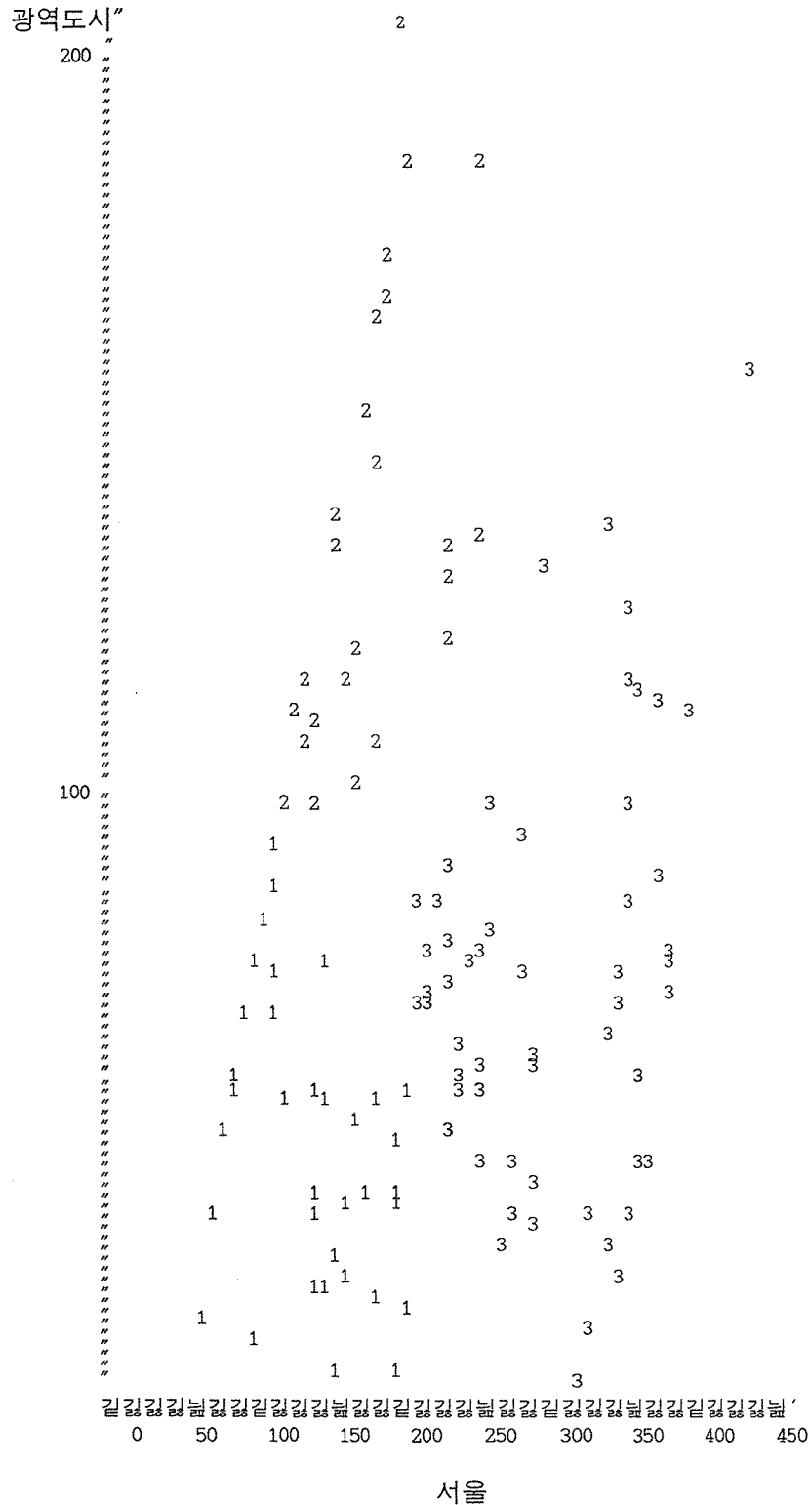
거리산정 출발점	지역수 (개)	평균(km)	표준편차	최소값(km)	최대값(km)	군집
서울	41	117.0	45.1	22.4	187.1	1
광역도시		55.4	18.9	21.4	92.8	
서울	28	171.4	45.2	99.0	267.8	2
광역도시		147.5	44.4	98.7	267.8	
서울	64	281.1	58.1	191.0	423.1	3
광역도시		71.2	28.2	18.7	153.3	

○ 1군집인 서울인접형 농촌은 기준이 되는 제1축의 서울에서부터의 거리가 최단거리인 22.4km이상 187.1km이하이고 제2축인 6대 광역도시로부터도 최단거리인 21.4km이상 92.8km이하인 거리에 위치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2군집인 서울근교형 농촌은 기준이 되는 제1축의 서울에서부터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99.0km이상 267.8km이하이고 제2축인 광역도시로부터의 거리가 최장거리인 98.7km이상 267.8km이하인 거리에 위치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3군집인 중산간형 농촌은 기준이 되는 제1축의 서울에서부터의 거리가 최장거리

인 191.0km이상 423.1km이하이고 광역도시로 부터의 거리가 18.7km이상 153.3km이하인 거리에 위치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그림 5-1 > SAS통계에 의한 군집(Cluster)분석 결과표

5.2 실시조사 사례지 선정 및 연구내용

- 실시조사 사례지는 유형화에 의해 나뉘어진 군집별로 군집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한곳씩을 선정하되 문화마을 조성현황표를 참고하여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정주권이 안정된 마을을 중심으로 선정함(표 5-2).
- 또한, 사례지의 선정은 정비형태의 요인을 감안하여 서울인접형 농촌으로는 신촌형을, 서울근교형 농촌으로는 확장형을, 중산간형 농촌으로는 정비형의 형태를 띠는 지역으로 선정함. 이는 지리적 관계성에 중점을 두어 구분한 농촌의 유형에 따라 지역의 특성상 도시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일수록 도시적인 정비형태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임.
- 농촌의 유형화에 의해 서울인접형 농촌으로는 신촌형 양평군 용문면 광탄리 문화마을과 정비형 청양군 목면 가야미 문화마을, 서울근교형 농촌으로는 확장형 단양군 대강면 두음리 문화마을, 중산간형 농촌으로는 정비형 영암군 군서면 호동리 문화마을을 선정함.
- 선정된 대상지를 대상으로 앞에서 제시된 평가축에 근거하여 현재 조성된 문화마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첫째, 전반적인 문화마을 사업의 평가를 위해 조사 대상지 문화마을과 문화마을 외 지역을 비교분석함. 둘째, 유형별, 정비형태별 문화마을의 평가를 위해 우선 유형별 문화마을(서울 인접형, 서울 근교형, 중산간형)을 비교분석하며, 동일 군집내 다른 정비형태인 용문면 문화마을(신촌형)과 목면 문화마을(정비형)의 그룹과, 다른 유형이나 동일한 정비형태(정비형)를 갖는 군서면 문화마을과 목면 문화마을을 비교분석함.

< 표 5-2 > 문화마을 조성현황

정비유형	계	91	92	94	95	96	97	98	99	2000
계	138	2	13	17	19	21	21	12	10	23
정비형	12	0	0	0	3	0	0	4	5	3
(기존마을)					영암군서			이천백사	김포하성	아산둔포
					가평군서			인기송담	청양청남	청양비룡
					청양목면			남원금지	정읍이평	부안봉진
								부안계화	익산합라	
									봉화촌양	
확장형	67	1	8	10	12	14	11	6	5	20
(기존+신규)		공주계룡	창녕도천	충주동량	고창홍덕	구미도개	평택고덕	부여규암	군위효령	남영주진건
			영동실천	청원북이	인제남면	원주지정	원주호저	군산희현	청원강내	인제북
			김천어모	고흥괴역	양양순양	제주안덕	평창도암	담양수북	보은마로	강릉강동
			단양대강	평창대화	강릉고정	단양가곡	남원주천	고성상리	보령주교	제천송악
			군산나포	부여조촌	삼척근덕	옥천이원	군산서수	거제장목	장성봉화	괴산청안
			구미무음	익산오산	장수장계	제천청풍	담양금성	북제주한경		음성성곡
			고창고수	안동와룡	사천사남	천안목천	경산남천			서천마서
			함평나산	음성대소	논산부적	부여석성	봉화봉성			군산임피
				철원와수	의성봉양	여천율촌	김해한림			장흥유치
				남제주표선	강진군동	하흥횡천	창녕길곡			영암신북
					과산사리	청원북일				광양진월
					화성우정	진안정천				함평학교
						마산진전				영주장수
						정읍태인				논경마석
										영양석보
										사천곤명
										함양안의
										창녕이방
										거창남하
신촌형	36	1	5	7	4	7	10	2	0	0
(신규마을)		횡성우천		횡성둔내						
			양평응문	원주소양	진안용달	양평육천	안성일죽	음성삼성		
			이천실성	김제만경	남원이백	순천상사	정선북평	영주이산		
			서산고북	제천금성	보은내속리	산천시천	제천한수			
			밀양무안	고성동해	금산추부	화천사내	충주금가			
			순천서면	공주의당		장음입암	홍성홍북			
				진천이월		진안상전	공주우정			
						니주노안	함평월야			
							영암도포			
							상주금성			
							예천감천			

Ⅵ 현황분석 및 문화마을 사업평가

6.1 문화마을 현황분석

6.1.1 문화마을 현황분석을 위한 체크리스트

○ 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대상지의 문화마을의 현황분석을 위하여 앞서 구축된 평가지표 체계에 의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음. 각 5개축(생태계보전, 소득증대, 생활환경 질 개선, 지역특성 개발, 주민참여)에 따른 세부지표를 중심으로 체크리스트를 도출하였으며 이에 사업시행시의 예산투자 항목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공무원과의 인터뷰와 현장답사를 통하여 조사하였음. 다음의 <표 6-1>은 지역별 체크리스트 작성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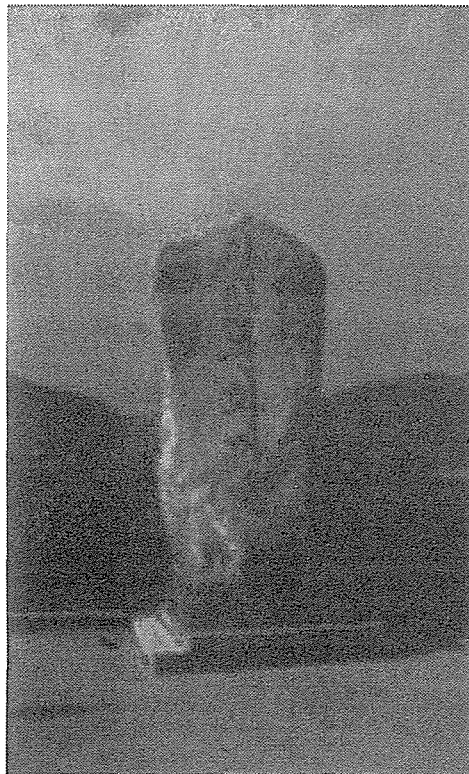
< 표 6-1 > 문화마을 현황분석을 위한 체크리스트

지역명 ()				
< 실시 사례지역의 분석·평가를 위한 Check List >				
주요지표축	세부지표	Check List	공무원	현장조사
소득증대	인구 및 세대수	인구변화량(증감, 연령별)	○	
		전출입 비율(지역내, 외)	○	
		직업변경(직종, 비율)	○	
	소득	GDP, 생산량 변화	○	
	지가	지가 및 평당 분양가	○	
생활환경질개선	유기농업	유기농 실시 농가 및 성과	○	
	개량주택(화장실, 부엌등)	보급율	○	○
		교통	버스노선 변화	○
		버스 외 대중교통 보급율	○	
	상, 하수도	보급율	○	○
	도로율	개통 및 확장 건수	○	
	휴식 및 놀이(체육)공간	주민 휴식장소 및 놀이터 유무		○
	공공시설	시설 증감수	○	○
	보건 및 문화시설	시설 증감수	○	○
	상가 및 음식점	시설 증감수	○	○
	쓰레기	분리수거 실시여부	○	○
		소각장 및 처리장 유무	○	
	생태계보전	수질오염, 대기오염	오염정도	
자연지형 변화(경관보존)		산지의 감소량		○
		하천수 감소량		○
지역특성개발	문화재, 보호수	유무	○	
	투자액	사용내역	○	
	특산물	특산물 재배	○	○
주민참여	단체행사	유무	○	
	농촌사회단체	유무	○	
	공청회 실시	유무	○	
사업시행	투자예산	확보금액 및 사용내역(연도, 출처, 투자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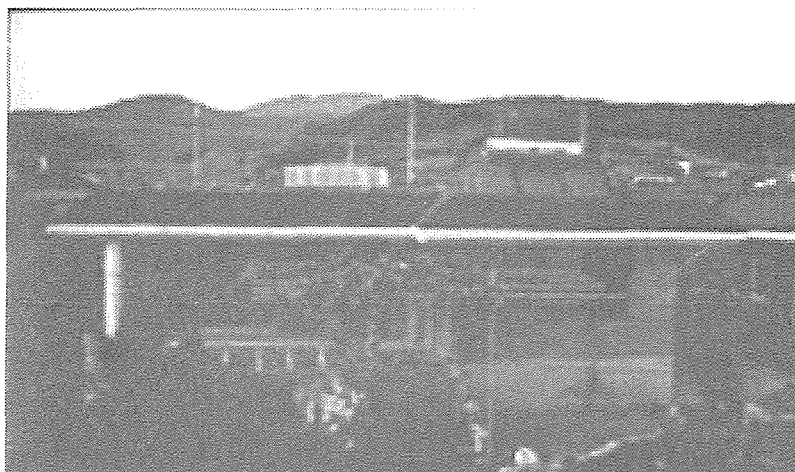
6.1.2 대상지 현황분석

6.1.2.1 서울 인접형 농촌 <양평군 용문면>

○ 용문면 광탄리는 신촌형으로 정비된 문화마을임. 전체 자연환경 및 주택, 도로, 휴식 및 놀이공간, 공공시설, 상가 및 편의시설, 쓰레기 처리 등에 관한 현황사진을 살펴보고자 함. 전체 자연환경의 경우 문화마을 주변지역은 농지나 산림이 많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으며, 도시 수준으로 도로정비나 주택 등으로 인하여 어느 도시의 형태와 다를 바 없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음. 휴식 및 놀이공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식재되지 않은 바닥포장에 철제 놀이기구들이 설치되어 있으며, 마을 내부에 게이트 볼 장을 설치하여 노인층들의 많은 이용도를 볼 수 있음. 또한, 주택들 대부분은 태양열 시설에 의해 일정부분의 에너지를 충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사진 6-1 > 용문면 문화마을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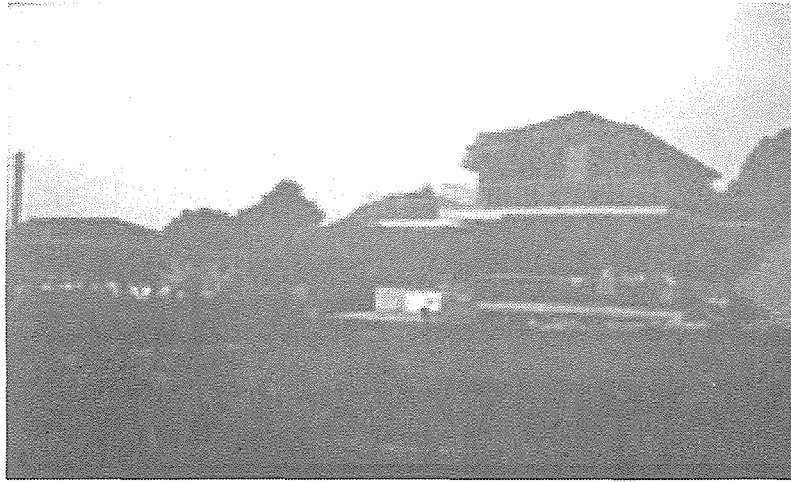
< 사진 6-2 > 용문면 문화마을 태양열주택의 예



< 사진 6-3 > 용문면 문화마을 주택 및 도로



< 사진 6-4 > 용문면 문화마을 주택 1



< 사진 6-5 > 용문면 문화마을 주택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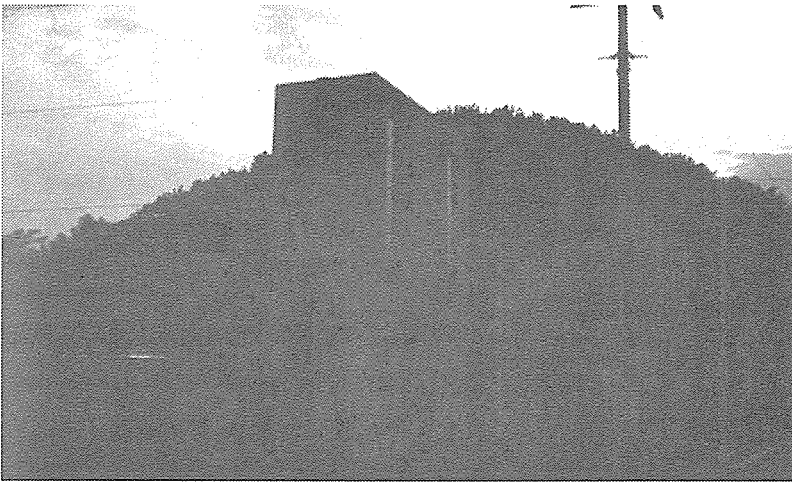
< 사진 6-6 > 용문면 문화마을 도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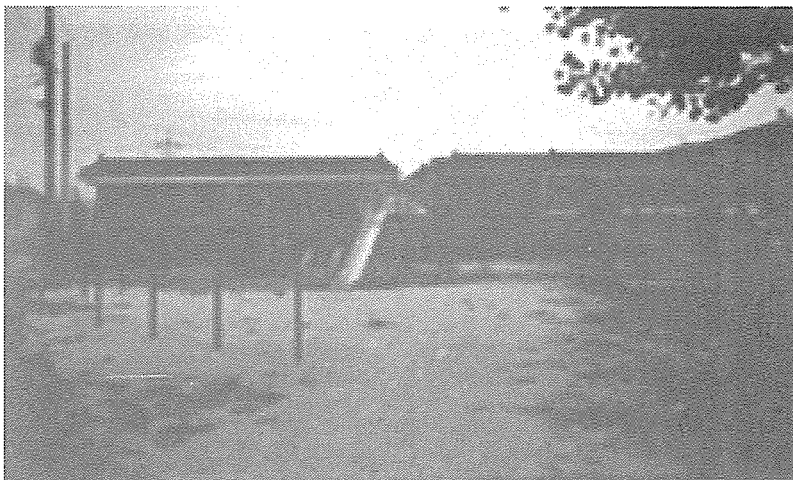
< 사진 6-7 > 용문면 문화마을 도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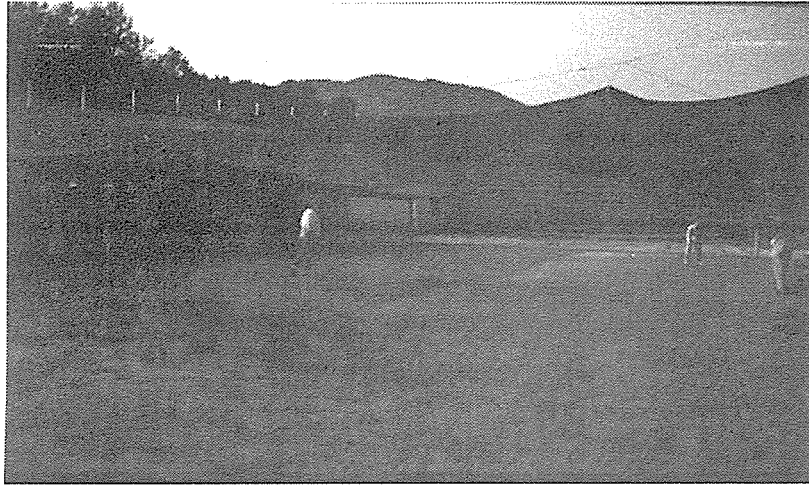
< 사진 6-8 > 용문면 문화마을 공용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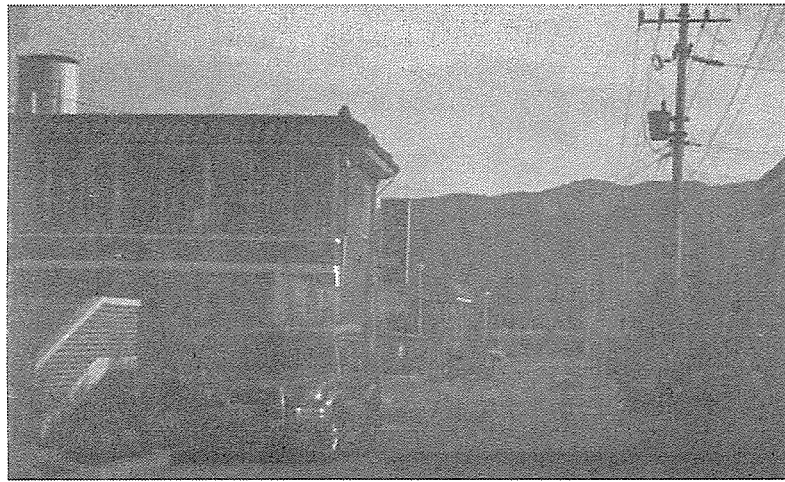
< 사진 6-9 > 용문면 문화마을 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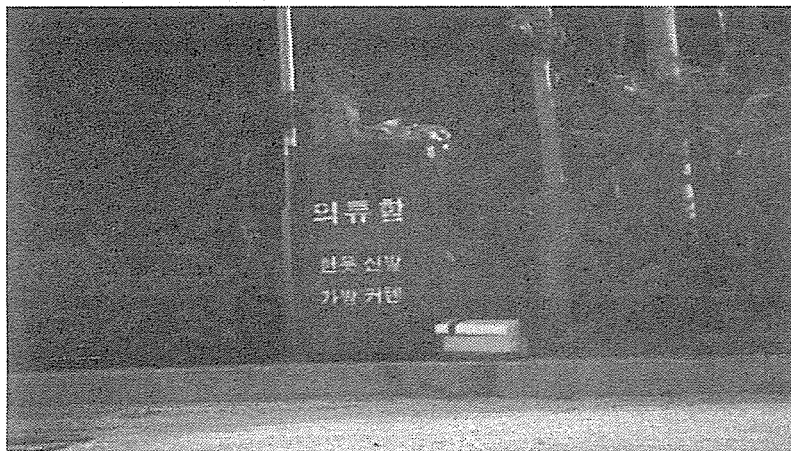
< 사진 6-10 > 용문면 문화마을 휴게 및 놀이시설



< 사진 6-11 > 용문면 문화마을 체육시설(게이트볼)



< 사진 6-12 > 용문면 문화마을 상가 및 편의시설



< 사진 6-13 > 용문면 문화마을 쓰레기 처리

6.1.2.2 서울 근교형 농촌 <단양군 대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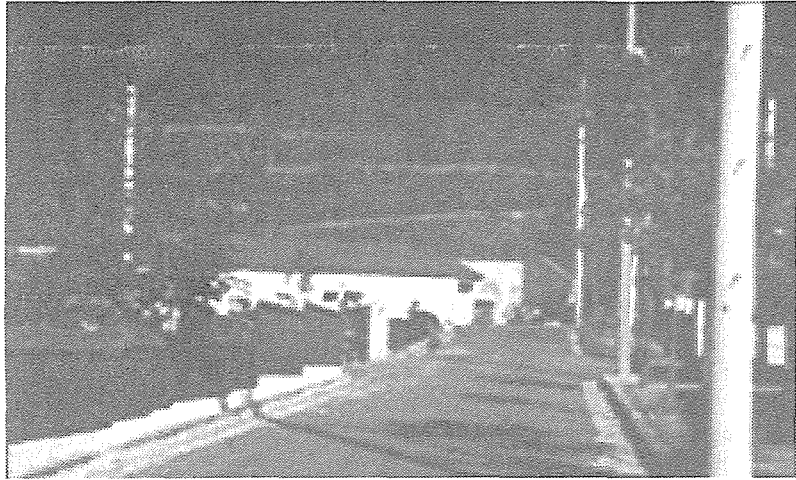
○ 대강면 두음리는 확장형(기존+신축)으로 정비된 문화마을 임. 기존의 개량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의 본 마을과 도시적 형태로 신축된 신 마을이 함께 공존하고 있으며 주변의 농지는 신촌형과 마찬가지로 많지 않고 버려진 공터에 옥수수, 고추 등 약간의 밭농사를 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이 밭을 이용하여 마늘농사를 짓고 있었음. 도로는 문화마을 사업으로 정비되어 있었으나, 신 마을을 위주로 정비되어 있는 관계로 인접한 본 마을의 도로상황과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음. 또한 공공시설은 신 마을 주민만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수리 및 관리가 미비한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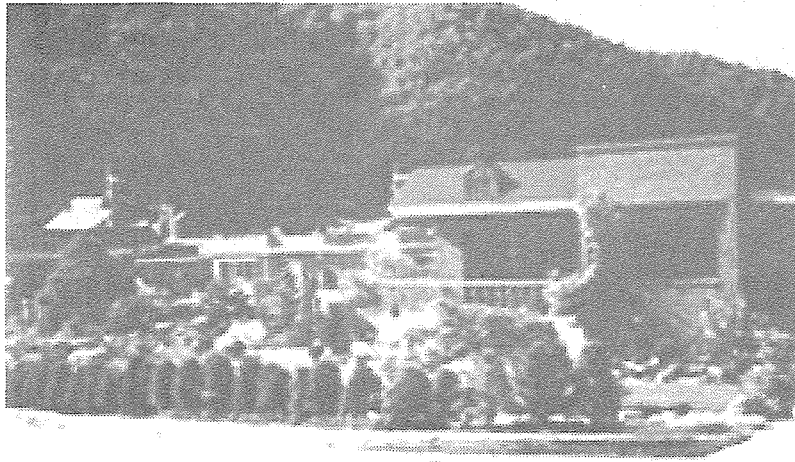
< 사진 6-14 > 대강면 문화마을 입구



< 사진 6-15 > 대강면 문화마을
도로



< 사진 6-16 > 대강면 문화마을 도로 및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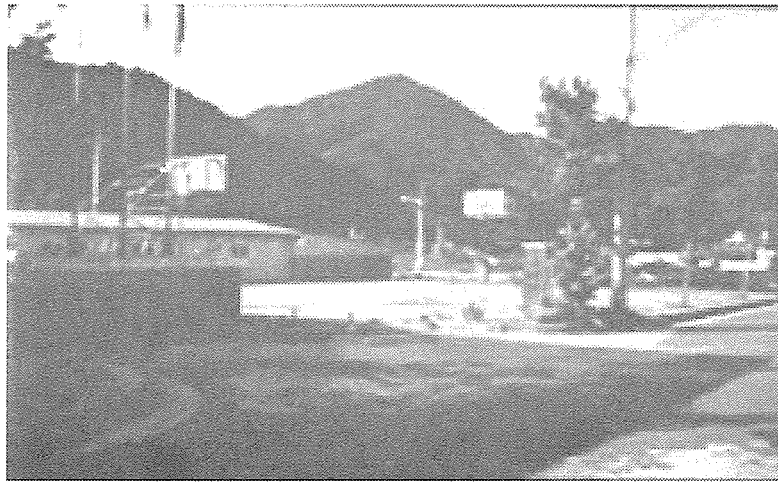
< 사진 6-17 > 대강면 문화마을 내 신 마을의 주택



< 사진 6-18 > 대강면 문화마을 내 구마을의 주택 및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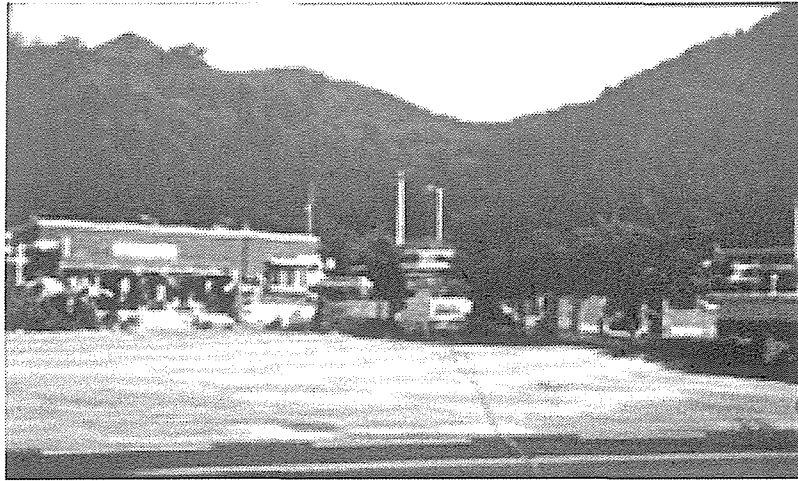
< 사진 6-19 > 대강면 문화마을 회관



< 사진 6-20 > 대강면 문화마을 공용주차장 및 체육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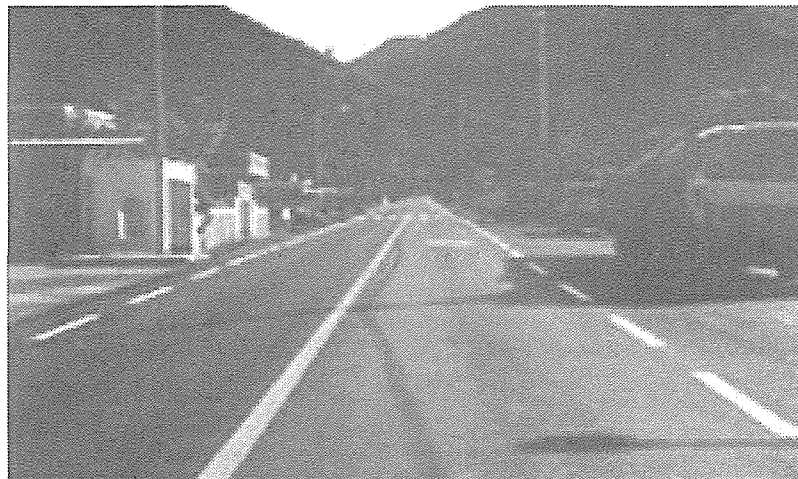
< 사진 6-21 > 대강면 문화마을 상가 및 편의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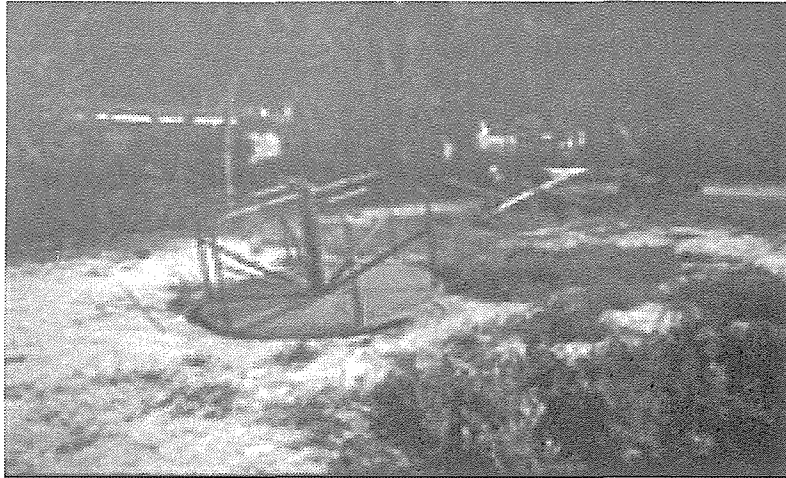
< 사진 6-22 > 대강면 문화마을 공용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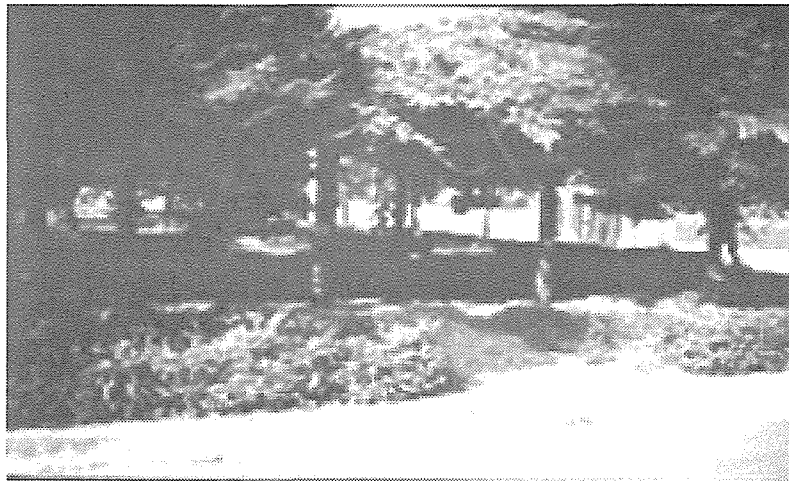
< 사진 6-23 > 대강면 문화마을 쓰레기 처리



< 사진 6-24 > 대강면 문화마을 진입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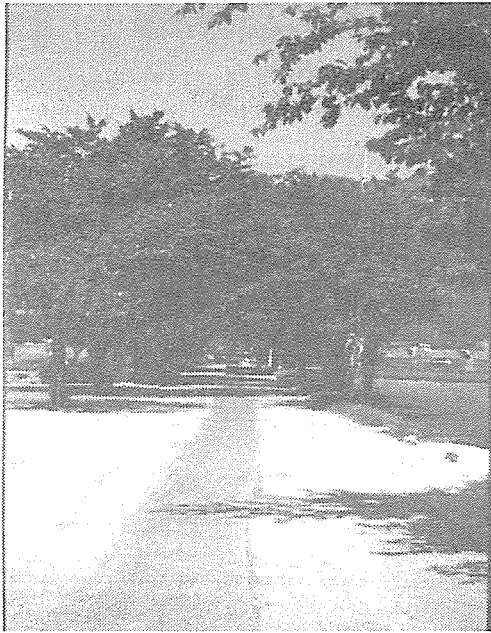
< 사진 6-25 > 대강면 문화마을 놀이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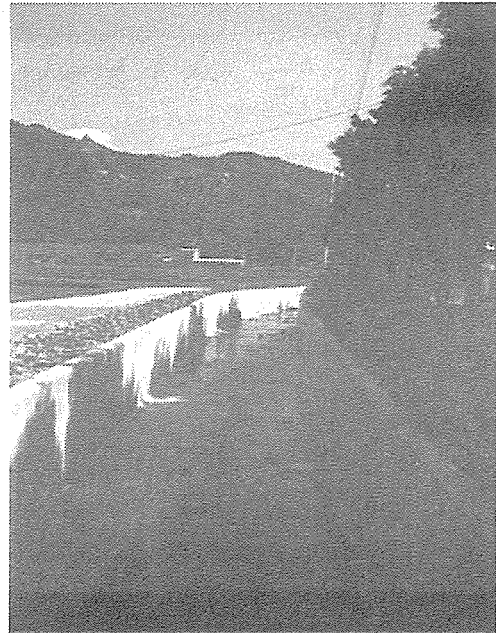
< 사진 6-26 > 대강면 문화마을 휴게시설

6.1.2.3 중산간형 농촌 <영암군 군서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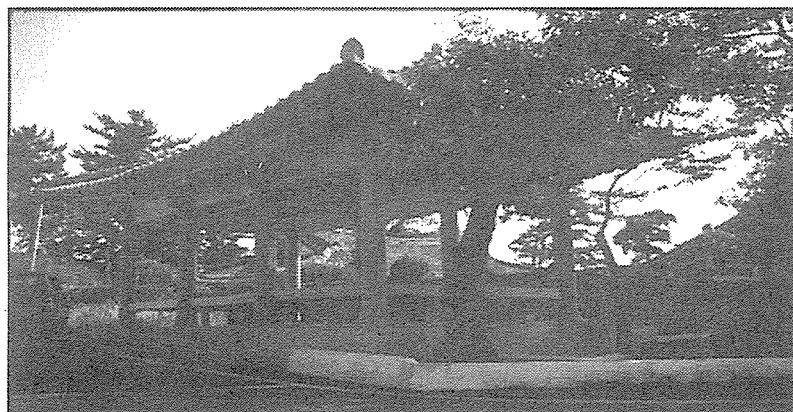
○ 군서면 호동리는 정비형으로 정비된 문화마을 임. 군서면은 기존의 본 마을내에서 부분적인 개·보수를 실시하였으며 자연경관은 그대로 살려 정비하였음. 주택정비는 신 주택은 생활공간으로, 구 주택은 창고 및 다른용도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도로정비는 확장과 포장을 하였음. 마을내 상가 및 편의시설은 설치되지 않았으며 마을회관 및 휴게공간 만 설치하였음. 기존의 거의 모든 농지는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주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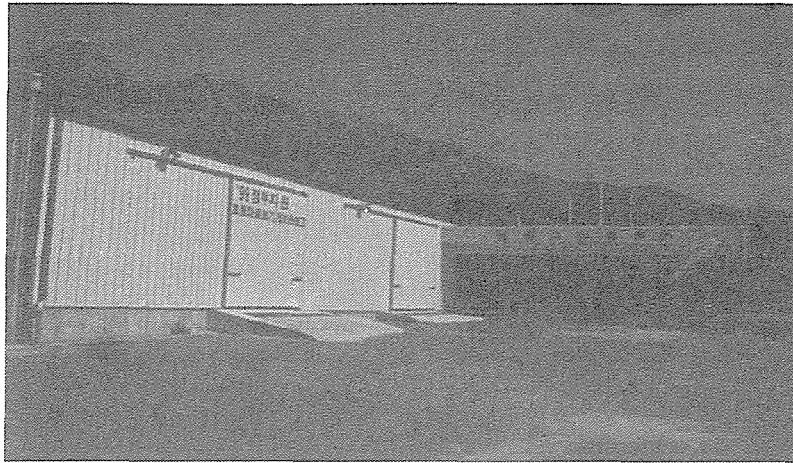
< 사진 6-27 > 군서면 문화마을
진입도로



< 사진 6-28 > 군서면 문화마을
하수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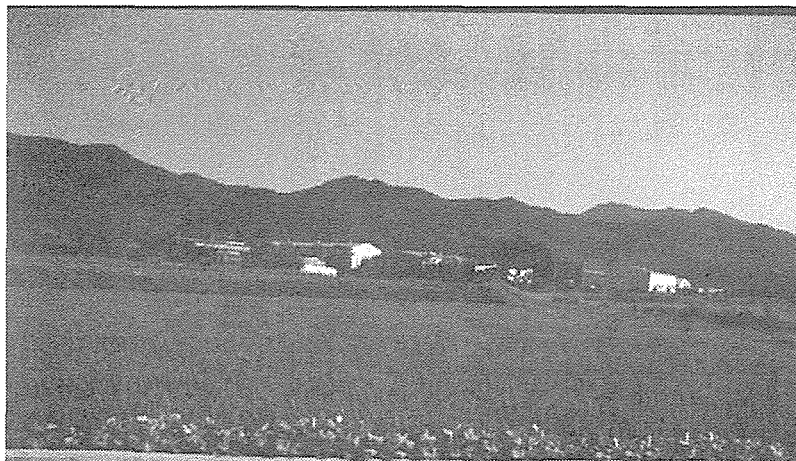
< 사진 6-29 > 군서면 문화마을 휴게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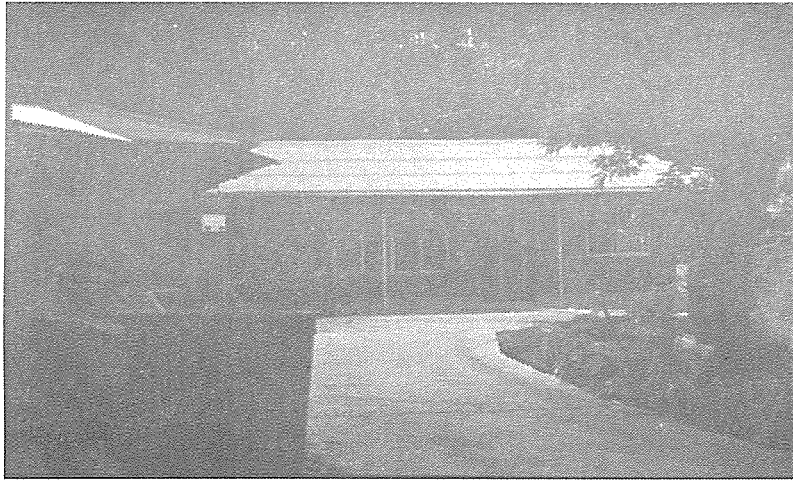
< 사진 6-30 > 군서면 문화마을 공공시설과 마을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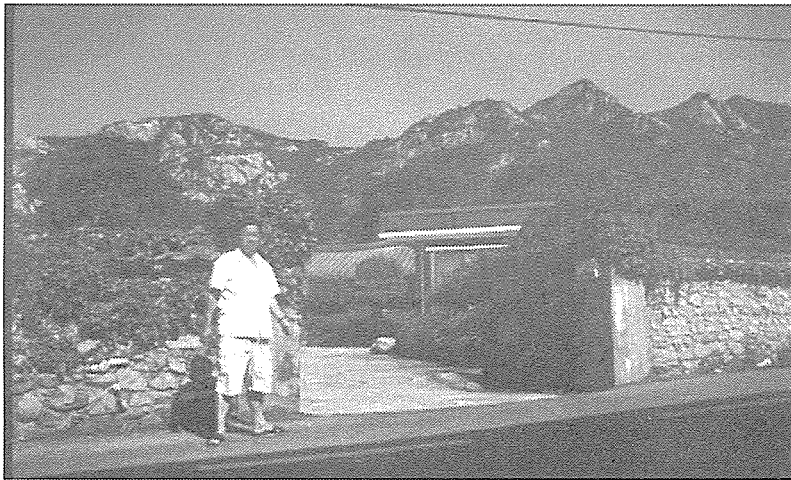
< 사진 6-31 > 군서면 문화마을 자연경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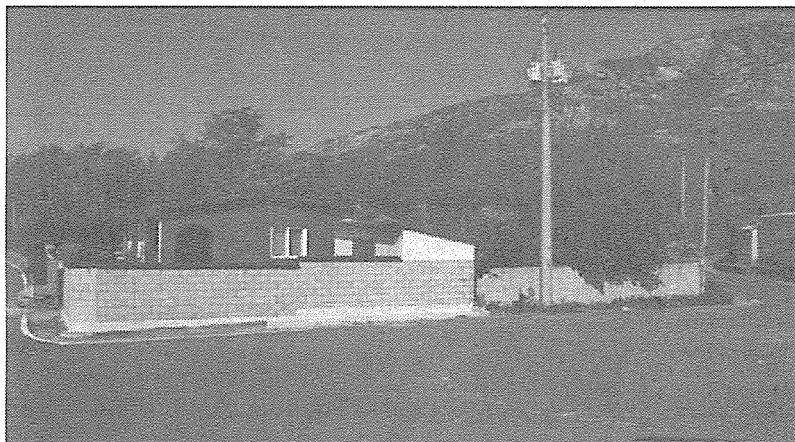
< 사진 6-32 > 군서면 문화마을 자연경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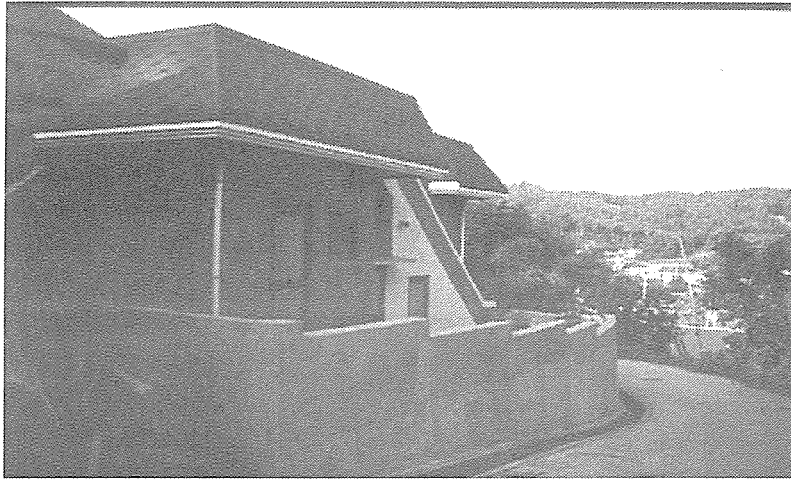
< 사진 6-33 > 군서면 문화마을 주택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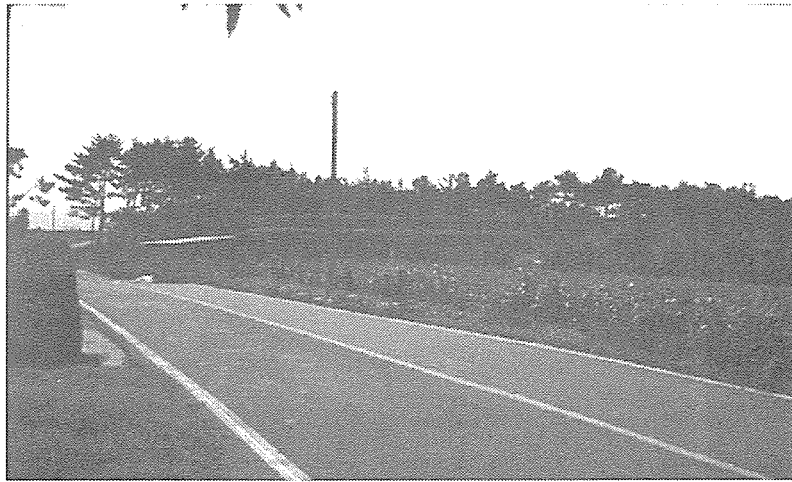
< 사진 6-34 > 군서면 문화마을 주택 2



< 사진 6-35 > 군서면 문화마을 주택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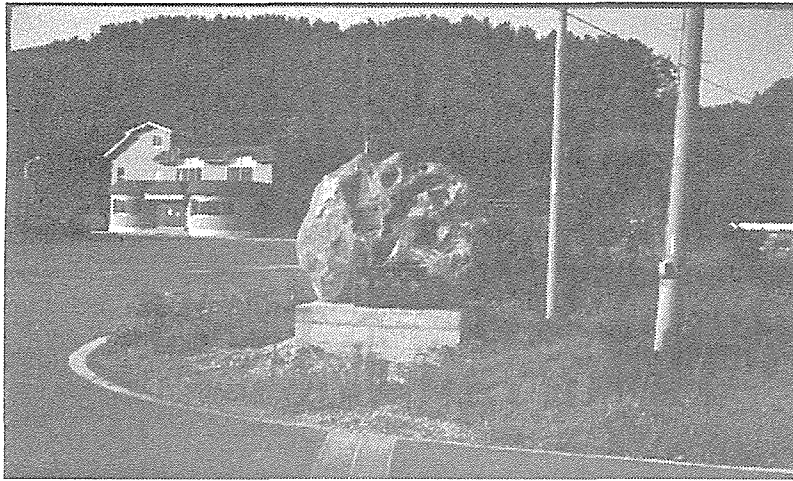
< 사진 6-36 > 군서면 문화마을 주택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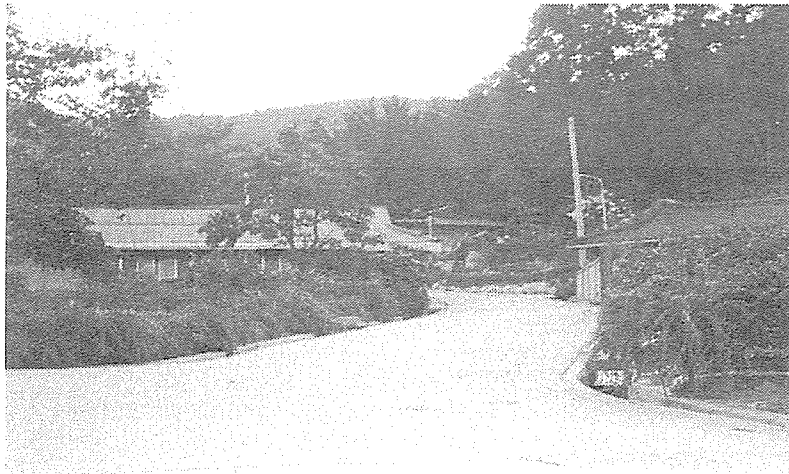
< 사진 6-37 > 군서면 문화마을 도로

6.1.2.4 서울인접형 농촌 <청양군 목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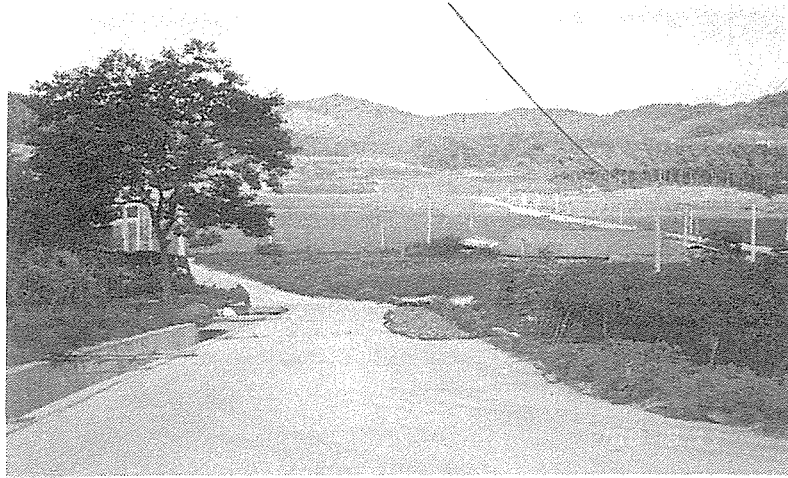
○ 목면 가야미는 호동리와 마찬가지로 정비형의 형태를 띄고 있는 문화마을임. 상가 및 편의시설은 없으며 주택들은 부분적인 개·보수를 실시하였음. 자연경관은 기존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거의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음.



< 사진 6-38 > 목면 문화마을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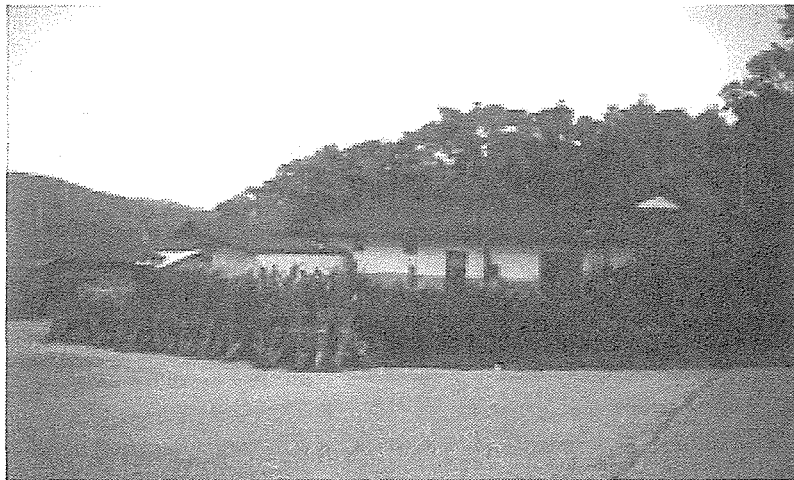
< 사진 6-39 > 목면 문화마을 도로 및 주택



< 사진 6-40 > 목면 문화마을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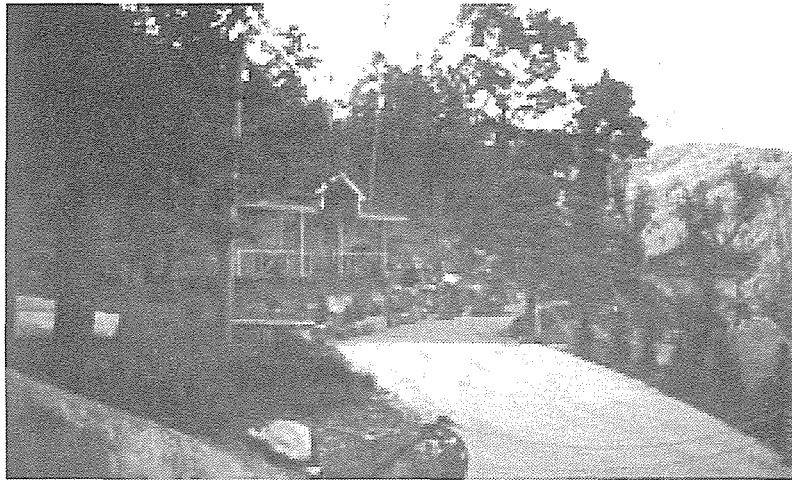
< 사진 6-41 > 목면 문화마을 주택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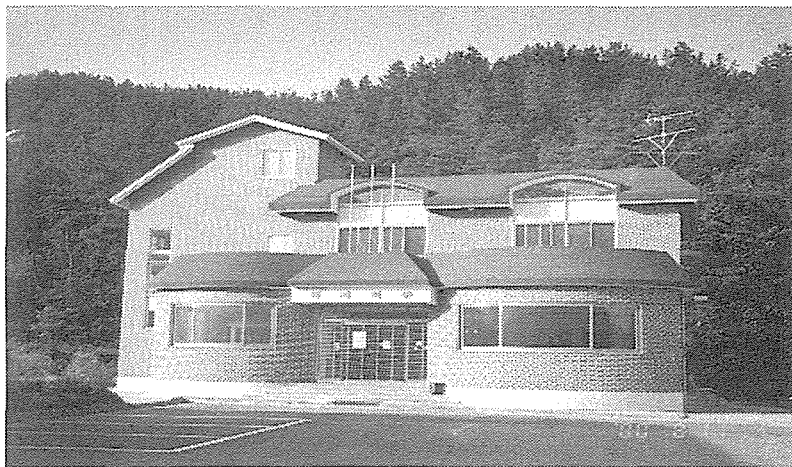
< 사진 6-42 > 목면 문화마을 주택 2



< 사진 6-43 > 목면 문화마을 주택 3



< 사진 6-44 > 목면 문화마을 주택 4 및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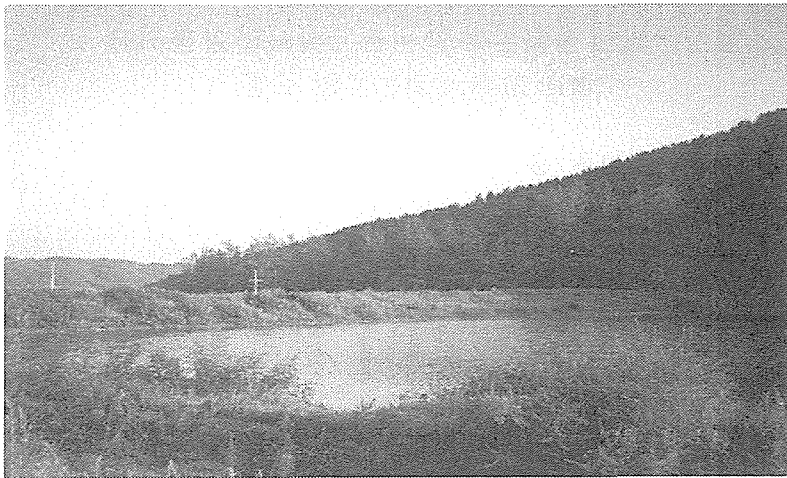
< 사진 6-45 > 목면 문화마을 회관



< 사진 6-46 > 목면 문화마을 공공시설



< 사진 6-47 > 목면 문화마을 하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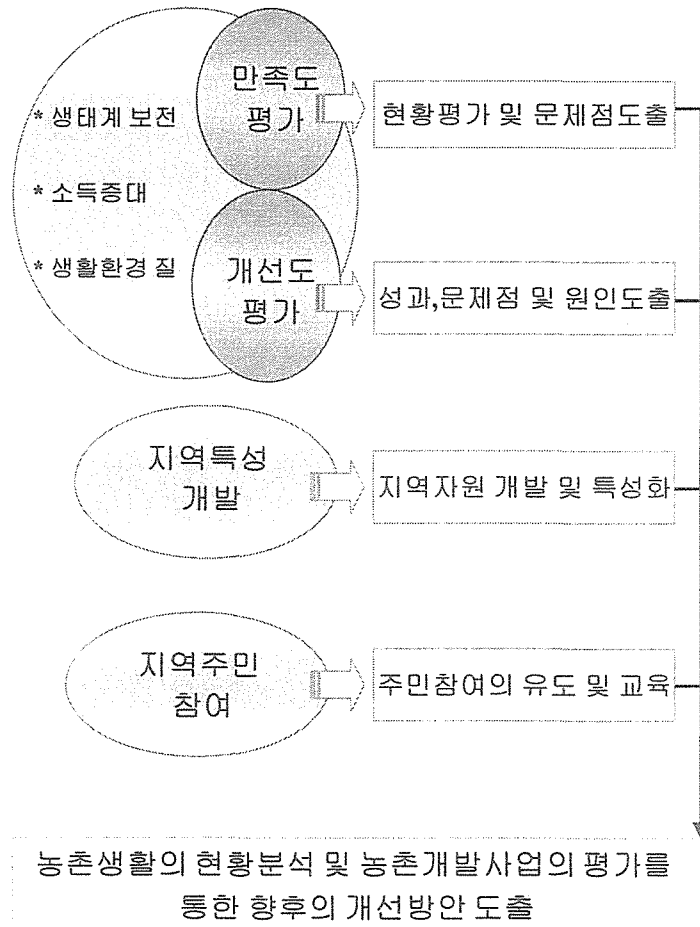


< 사진 6-48 > 목면 문화마을 저수지

6.2 주민 및 공무원 설문지에 의한 문화마을 사업평가

6.2.1 주민 및 공무원 설문지 작성

○ 유형별 선정된 농촌 3지역의 실시조사를 위한 설문지 조사는 해당 지역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설문지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 <그림 6-1>과 같음.



< 그림 6-1 > 설문지 분석 흐름도

○ 주민 및 공무원에 대한 설문지 분석은 앞서 연구된 5가지의 환경친화적인 농촌 개발을 위한 목표를 기본 골격으로 우선 생태계 보전, 소득증대, 생활환경의 질에 대하여 문화마을사업 전·후의 만족도와 개선도에 중점을 두어 평가함. 만족도와 개선도 평가를 통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만족과 불만의 원인을 파악하며 개선된 것과 개선되지 못한점들에 대한 문제점 및 성과를 도출함. 또한 지역특성의 개발에 관한 질

문을 통하여 해당지역의 지역자원을 파악하여 지역개발 및 특성화를 위한 잠재력 분석이 가능하며, 지역주민 참여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현재 주민의 참여도와 향후 주민참여에 대한 의사를 파악할 수 있으며, 향후 주민 교육을 통한 참여의 유도가 가능함.

○ 공무원 설문지는 일반공무원과 문화마을 사업실시에 대한 관계공무원 41명을 대상으로 사업전후의 만족도와 개선도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였으며, 사업비의 집중투자 항목에 관한 사항과 향후 농촌개발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질문을 포함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음.

○ 본 설문지 실시에 앞서 설문지의 유효성을 검토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음.

○ 주민 설문지는 문화마을 거주주민과 해당면 내의 문화마을 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문화마을 실시 전·후를 비교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변환경에 대한 개선도와 만족도에 관하여 답변하도록 하였음.

○ 선정된 사례지에 대하여 주민의식조사를 실시하였음. 선정된 4개지역 437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문화마을에서는 문화마을 내 입주세대가 적은 관계로 가능한 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모든 주민조사는 일대일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음.

○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관한 만족도 평가를 위해 「만족」을 100점, 「조금만족」을 75점, 「어느쪽도 아님」을 50점, 「조금불만」을 25점, 「불만」을 0점으로 하는 등간척도의 평점으로 변환하여 항목별로 평균값을 산정하였으며, 개선도 평가를 위해서는 척도를 2점, 1점, 0점, -1점, -2점으로 변환하여 위의 만족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였음.

○ 분석방법은 SAS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및 평균값을 산출하였으며, 각 항목에 대한 집단간의 동일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과 t검정을 실시하였음. 또한, 각 지표항목에 대한 하위평가 항목간의 관계를 추정하기 위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음.

○ 공무원 및 주민의식조사에서는 현재 농촌환경개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문제점 및 성과를 도출하여 향후 환경친화적인 농촌개발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함.

6.2.2 공무원 설문지 및 인터뷰에 의한 문화마을 사업평가

○ 공무원에 의한 문화마을 사업평가를 위해서는 양평군 용문면에서 13부, 단양군 대강면에서 10부, 영암군 군서면에서 18부로 총 41부의 설문지를 면사무소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직접적인 문화마을 사업관계 담당공무원과 인터뷰를 실시하였음. 지역에 따라 설문부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지역의 담당공무원의 숫자가 다르기 때문임.

6.2.2.1 지역별 공무원 인터뷰분석 결과

1.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 신촌형

○ 각 지역의 면사무소 및 해당관공서의 담당공무원의 설문조사와 인터뷰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표 6-2>는 용문면의 인구현황임.

< 표 6-2 > 용문면 인구현황

구분	용문면				용문면 문화마을
	95년		2000년		95년부터 실시
인구수	3525세대		4206세대		130세대
	남) 5770명	여) 5738명	남) 6005명	여) 6010명	350명 거주

(1) 용문면전체

① 생활환경

- 상·하수도 보급율은 약 60%로 확대됨.
- 도로율은 확장건수(5건), 국도 6호선, 2차선, 2000년 4차선으로 개통(서울-용문면

간)되었으며, 버스노선은 변동이 없으며 금강운수에서 직영하고 있음.

- 휴식 및 놀이시설은 문화마을의 경우 마을회관, 서예교실이 설치되었으며, 용문면의 경우는 갤러리, 복지회관, 예식장, 청소년공부방, 체육공원등이 설치되었음.
- 공공시설은 농협, 축협, 새마을 금고(현재, 은행은 없음)가 있음.
- 보건 및 문화시설은 몇 개소 증가하였음.
- 상가 및 음식점 증가하였음.
- 쓰레기 처리는 당초 군에서 관리하였으나 1991년부터 민간기업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소각장 및 처리장은 타면(지체면)에 있음.

② 사회·경제환경

- 용문면은 공장이 전혀 허가가 나지않고 있는 보호지정지역으로 규제가 심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확대되고 있으며, 지가상승으로 인한 세금부담과 소득의 하락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늘고 있는 실정임.

(2) 문화마을(광탄리)

- 광탄리 문화마을 사업 95년부터 실시되었으며, 군청의 산업과 기반조성계에서 문화마을 조성을 담당함
- 문화마을 조성으로 인한 파급효과는 미비하며, 신 주택단지를 조성한 신촌형 문화마을로 주택개량을 위한 과도한 용자금 상환으로 주민들의 생활은 더 악화되었고, 오히려 면내의 주변 타지역과 이질감을 조성하여 마을간의 불화감을 조장하고 있음.
- 거의 대부분의 문화마을 주민들은 농업이외의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소수의 농업민들은 문화마을 사업시 용자금으로 인한 빚 상환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타지인에게 집을 팔고 이사가는 경우가 많아 전출입이 잦은 편임.

2. 충북 단양군 대강면 - 확장형

○ <표 6-3>은 대강면의 인구현황 및 이동추이를 나타낸 것임.

< 표 6-3 > 대강면 인구현황 및 이동추이

인구현황	1999년말 세대 및 인구		2000년 6월30일 현재		증 감	
	세대수	인구수	세대수	인구수	세대수	인구수
	1,227세대	3,422명	1,260세대	3,396명	증33세대	감26명

인구 이동추이 (6월)	전 입 자			전 출 자			증 감		
	계	단양군관내	타시군	계	단양군관내	타시군	계	단양군관내	타시군
	56명	19명	37명	53명	5명	48명	증 3	증 14	감 11

(1) 대강면 전체환경

① 자연환경

- 대강면의 자랑거리는 제1팔경으로 사인암, 제2팔경으로 죽령폭포, 칠성암이 있으며, 민속자료로는 죽령산신당이 있음.
- 접도구역이라 설립허가가 거의 나지않는 실정이라 관광상품을 특화시킬 관광단지 조성에 큰 어려움이 있음.

② 생활환경

- 1999년 12월 4000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며 고령화가 심각한 실정임.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부산진구, 서울 송파구와 자매결연을 맺어 마늘 및 깨 등의 직거래 실시하고 있으며,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마을행사 활성화 및 경로당, 마을회관의 조성 및 확대를 실시하였음.

③ 사회·경제환경

- 환경기술, 주거기술에 대한 점은 개선되었으나, 소득측면은 오히려 악화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도시로의 인구이동허상에 대하여 도시생활 수준들과의 소득격차 감소를 꾀하는 것이 관건이라 생각함

(2) 문화마을(두음리)

- 마늘밭과 논을 개간하여 주택건설을 실시한 이후로 소득이 감소함.
- 단양과 거리가 가까워 문화마을내 상권조성이 안되는 관계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인식하는 실정임.
- 원래살던(안등골) 본마을 사람들과 지역간의 갈등이 심화(소득, 문화, 주택수준의 차이 등)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문화마을에 대한 의견으로 지역주민(농민)에게 맞는 문화마을 시책이기 보다는 저소득층, 일반 거주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을이 아닌 소수 재력인들을 위한 시책임.
- 주민부담을 해소시킬수 있는 보조금의 유치가 절실히 요구되며, 소득이 뒷받침될 수 있는 정책방안이 필요함.

3. 전남 영암군 군서면 - 정비형

(1) 군서면의 전체환경

- 월출산의 모든 관광자원이 군서면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관광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 군서면 문화재 목록으로는 도갑사 해탈문, 소장동자, 석조, 5층석탑, 수마와사비, 도전국사진영, 월출산 도갑사 마애여래좌상, 왕인박사 유적지, 느티나무, 구림리 도기요지, 월곡리 전씨고택, 쌍계사지 석장승, 죽정리, 국장생, 소전머리 황장생, 매밀방죽옆 장생 도갑사 등 다수가 있음.
- 군서면 자랑거리로는 참빛, 어란, 갈낙탕이 있음.

(2) 문화마을 : (호동리)

- 정비형 문화마을로 조성전과 비교하여 타지인의 전입이나 마을내 전출입의 변화가 크지않으나 자녀교육과 소득개선을 위해 젊은이들의 도시로의 전출로 인하여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문화마을내의 대다수의 세대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

- 문화마을 조성사업 당시에는 40세대였으나 현재 28세대가 거주하고 있음.
- 마을내 하수도는 간이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상수도는 기존의 군설상수를 이용하고 있으나 각 가정까지의 공급은 재정부족으로 이하여 안되고 있는 실정임.
- 문화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도로가 확장되고 포장됨.
- 문화마을은 도로 및 상하수도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었으며, 주택정비는 단지 용자금형식의 보조금으로 일부 실시됨.
- 마을내 공공시설 및 교육시설은 전혀 없으며 2개의 슈퍼마켓이 조성되어 있음.

6.2.2.2 지역별 공무원 설문조사 분석결과

지역별 공무원 설문조사에 의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 <표 6-4>와 같음.

< 표 6-4 > 공무원 설문지와 인터뷰에 의한 각 문화마을의 평가결과

이유항목	용문면 전체	대강면 전체	군서면 전체
< 문화마을사업 실시 전후의 변화에 관한 질문 >			
생태계 보전	문화마을만 개선되었음	변화없음	오수처리시설 설치로 개선
	도움되지 않았음(문화마을 외)		전체적으로 깨끗해졌음
	주민의식이 변화되어 약간 개선		
생활환경 질 개선	문화마을조성으로 주거생활 향상	읍소재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전형적인 농촌지역임	생산기반 시설 설치
	주변환경 깨끗해짐	상·하수도, 주택개간등으로 청결해짐	편해졌음
		집단취락으로 여건향상	
주민소득	농촌지역으로 별다른 효과없음	농민들 용자상황으로 전체소득	약간의 지가상승
	현지주민의 소득이 없음	감소	변화없음

< 표 6-4 > 계속

이유항목	용문면 전체	대강면 전체	군서면 전체
< 문화마을사업 실시후 나쁘게 변화한 점에 관한 질문 >			
생태계 보전	도시기반시설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음	농지전용되어 마늘밭 거의 소멸	변화없음
	자연환경보존에는 도움이 안되고 있음	관계없다	
생활환경의 질 개선	없음	상권조성이 안돼 불편함 관계없음	변화없음
	주거비 상승 및 주택건축에는 대출의 상황에 어려움이 큼	주거비 상승 및 주택건축에는 대출의 상황에 어려움이 큼	
주민소득	없음	논밭의 감소로 농민소득감소 관계없다	변화없음
	정화처리시설		
사업실시시 중점투자 부분	기반시설(상·하수도, 도로, 택지) 조성	기반시설(상·하수도, 도로)조성	기반시설(도로포장 및 확장)
	토지매입		기반시설 (주택용자, 하수처리시설)
	공공시설 확충(마을회관, 레포츠 공원)		
사업시행시 문제점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으로 정	시설 관리 및 보수미비 (전기세, 수리비용 과다)	예산이 충분치 않은 이유로 중도중단된 사업이 많음(예로, 마을내 상·하수도시설).
	화조 관리 힘들 각종 환경법규의 규제가 심해 사업에 어려움이 많아 지역발전이 어려움		

6.2.3 주민 설문지에 의한 문화마을 사업평가

○ 주민에 의한 문화마을 사업평가를 위해서는 전체 문화마을에서 149부, 문화마을 외 지역에서 288부를 조사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양평군 용문면에서 129부(문화마을 43부), 단양군 대강면에서 156부(문화마을 45부), 영암군 군서면에서 125부(문화마을 34부), 청양군 목면에서는 문화마을만 27부로 총 437부의 설문지를 거주주민을 대상으로 일대일 방문면접 형식으로 실시하였음.

6.2.3.1 문화마을과 문화마을 외 지역비교 분석결과

1) 만족도 분석결과

○ 만족도에 대한 분석결과는 문화마을이 자연, 생활, 사회·경제환경 모든 부분에서 문화마을 외 지역보다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음. 특히 자연환경 평균값의 경우는

문화마을이 78.9점, 문화마을 외 지역이 65.5점이고, 생활환경의 경우는 문화마을이 77.9점과 문화마을 외 지역이 64.0점으로 큰 차이를 보이며 99%이상 유의수준을 갖음. 반면, 사회·경제 환경에서는 문화마을과 문화마을 외 지역사이의 유의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자연환경의 경우, 하위평가 항목에서는 공기의 깨끗함에 대해서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 차이를 나타냈으며 문화마을이 81.0점, 문화마을 외 지역이 62.7점임(표 6-5). 이것은 공기가 정청하다고 느끼는 만족의 정도가 문화마을의 주민들이 문화마을 외 지역 주민들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함.

< 표 6-5 >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 분석결과

구 분	평균값(표준편차)		t검정 (P-Value)
	문화마을	문화마을외	
전체자연환경	78.9(25.9)	65.5(32.5)	0.0046
하천,호수의깨끗함	57.0(35.4)	38.3(36.8)	0.6317
녹지(산림, 농지)의 양호함	60.3(32.9)	51.2(34.5)	0.5409
공기의 깨끗함	81.0(26.3)	62.7(34.9)	0.0005
토양의 양호함	64.0(27.9)	50.2(30.9)	0.2031
자연경관의 보전	73.6(25.9)	62.8(32.0)	0.4205

○ 생활환경의 경우는 개량주택이나 도로시설(확장 및 개통)에 대해서 95%이상 유의수준에서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며 문화마을이 86.9점, 81.4점으로 문화마을 외 지역이 78.0점, 67.5점임(표 6-6). 이는 문화마을 주민들이 느끼는 생활환경의 개선도가 문화마을 외 지역의 주민들 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함.

< 표 6-6 >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 분석결과

구 분	평균값(표준편차)		t검정 (P-Value)
	문화마을	문화마을외	
전체 생활환경	77.9(24.3)	64.0(31.3)	0.0016
개량주택	86.9(21.0)	78.0(26.1)	0.0069
교통(대중교통, 배차간격)	49.6(37.4)	61.2(36.0)	0.6255
공공시설	47.1(32.1)	56.7(31.1)	0.6649
복지시설	66.3(33.0)	63.7(31.5)	0.5138
도로시설(확장,개통)	81.4(27.8)	67.5(33.3)	0.0215
상, 하수도시설	67.8(33.5)	55.1(35.4)	0.4913
상가 및 편의시설	40.2(31.6)	51.9(33.0)	0.6025
쓰레기 처리	69.0(36.4)	64.8(34.0)	0.3623

○ 사회·경제환경의 경우에는 지가(땅값)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가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적인 사회·경제환경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문화마을 주민과 문화마을 외 지역 주민들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6-7).

< 표 6-7 > 사회·경제환경에 대한 만족도 분석결과

구 분	평균값(표준편차)		t검정 (P-Value)
	문화마을	문화마을외	
사회,경제환경	47.7(28.3)	41.7(27.6)	0.7086
마을의 인구	50.8(35.3)	43.2(31.0)	0.0820
주민의 소득	43.2(33.9)	36.7(29.5)	0.0682
지가(땅값)	45.4(29.3)	42.1(24.9)	0.0273

○ 다음은 각 환경에 관한 하위평가항목간의 관계를 추정하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수선택법은 Stepwise법을 사용하여 95%이상 수준에서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는 항목만을 최종적으로 가려내었음. 모형들의 설명력은 대체적으로 높은 편이며 독립변수의 영향정도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표 6-8). 자연환경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는 공기의 깨끗함, 토양의 양호함, 자연경관 등의 순서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반면 문화마을 외 지역의 자연환경에 대한 하위평가항목의 영향에서 문화마을과는 달리 녹지(산림, 농지)의 양호함의 항목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표 6-8 > 각 하위평가항목의 만족도에 대한 중회귀분석

구분	설명변수	문화마을		설명변수	문화마을 외 지역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자연 환경	공기의 깨끗함**	0.20	0.08	녹지(산림, 농지)의 양호함**	0.16	0.05
	토양의 양호함*	0.18	0.07			
	자연경관의 보존**	0.39	0.07	토양의 양호함*	-0.11	0.05
				자연경관의 보존**	0.60	0.05
		F:25.17, R:0.63			F: 60.11, R: 0.68	
생활 환경	공공시설*	0.15	0.07	개량주택**	0.20	0.07
	복지시설**	0.19	0.07	교통(대중교통, 배차시간)**	0.15	0.05
	쓰레기 처리**	0.18	0.06	도로시설(확장및 개통)**	0.17	0.06
				상.하수도 시설*	0.12	0.05
				쓰레기 처리**	0.23	0.05
		F:10.43, R:0.47			F: 21.38, R: 0.54	
사회, 경제 환경	주민의 소득**	0.21	0.07	마을의 인구*	0.08	0.05
	지가(땅값)**	0.39	0.08	주민의 소득**	0.37	0.05
				지가(땅값)**	0.16	0.06
		F:23.93, R:0.54			F:30.08, R: 0.50	

F : F치, R : 중상관계수, ** : 1%에서 유의, * : 5%에서 유의

○ 생활환경에 대한 하위평가항목의 영향은 문화마을의 경우 쓰레기의 처리, 복지시설 및 공공시설의 항목이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 문화마을 외 지역에서는 개량주택, 상·하수도시설, 교통, 쓰레기의 처리의 항목 등 거의 모든 변수들이 생활환경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문화마을에서 주택개량이나 상·하수도 시설, 교통의 항목이 그다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지 못하는 것은 생활환경에서 문화마을 외 지역보다 높은 만족도의 차이를 나타내었던 점과 연계하여 추측할 때 현재 정비된 기반시설들 이외의 공공시설이나 복지시설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결과로 판단됨.

○ 사회·경제환경의 경우에는 문화마을과 문화마을 외 지역 모두 주민의 소득과 지가(땅값)의 항목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마을 외 지역에서는 마을의 인구의 항목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2) 개선도 분석결과

○ 다음은 각 항목별 문화마을과 문화마을 외 지역간의 개선도를 평균값에 의해 비교하였음. 그 결과 자연환경에서는 하천·호수의 깨끗함의 항목과 공기의 깨끗함의 항목에서 문화마을 주민들은 0.01점과 0.18점으로 약간의 개선이 되었다고 인식하는 반면, 문화마을 외 지역 주민들은 -0.58점과 -0.29점으로 전과 비교하여 오히려 나빠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표 6-9).

○ 이에 대한 이유를 분석해본 결과 두 지역모두 하천시설이 미비하다는 응답이 나타났으나 문화마을의 경우 인구의 감소로 오염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약간 개선었다고 응답한 반면, 문화마을 외 지역에서는 정화처리의 미비가 하천·호수를 오염시켰다는 견해가 높게 나온 것으로 보아 문화마을 외 지역이 기반시설 정비가 문화마을에 비해 더 열약하다는 것을 의미함(표 6-10). 또한 공기의 깨끗함의 항목에 대한 이유는 문화마을 외 지역의 하천시설의 미비나 쓰레기 소각처리에 의한 매연과 악취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난개발이나 차량증가 때문이라는 이유도 높게 나타났음(표 6-11).

< 표 6-9 > 개선도에 대한 평균 분석결과

전체환경	구 분	문화마을		문화마을 외 지역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자연환경	하천,호수의 깨끗함	0.01	1.42	-0.58	1.40
	녹지(산림, 농지)의 양호함	-0.22	1.18	-0.26	1.35
	공기의 깨끗함	0.18	1.03	-0.29	1.10
	토양의 양호함	-0.02	0.91	-0.34	1.00
	자연경관의 보전	0.89	1.10	0.81	1.18
생활환경	개량주택	1.45	0.83	1.27	0.88
	교통(대중교통, 배차간격)	0.60	1.06	0.86	1.07
	공공시설	0.32	0.90	0.33	0.94
	복지시설	0.39	0.82	0.36	0.70
	도로시설(확장, 개통)**	1.43	0.80	1.07	1.05
	상,하수도 시설	0.76	0.16	0.54	1.15
	상가 및 편의시설**	0.24	0.69	0.45	0.96
	쓰레기 처리	1.29	1.18	1.10	1.21
사회,경제환경	마을의 인구	0.50	1.39	-0.29	1.33
	주민의 소득	-0.25	1.05	-0.30	1.05
	지가(땅값)*	0.76	0.89	0.63	1.09
지역의 특성	전통의 유지,계승	1.06	1.13	1.28	1.08
	지역 특색의 활성화	-0.32	1.17	-0.38	1.20
주민참여	마을주민의 참가정도**	1.04	1.03	1.04	0.85
	문화마을이후모임활성화정도	0.50	0.84	0.40	0.78

** 1%에서 유의, * 5%에서 유의

< 표 6-10 > 하천·호수의 개선도에 대한 이유분석

이유항목	문화마을	백분율	문화마을 외 지역	백분율
하천·호수의 깨끗함의 개선도 응답이유	정화 처리 미비(농약, 생활하수, 축산농가의 폐수, 농공단지) 오염원이 없거나 감소(인구 감소)	26.4	정화처리 미비(농약, 생활하수, 축산농가의 폐수, 농공 단지)	36.5
		9.1		

< 표 6-11 > 공기의 깨끗함의 개선도에 대한 이유분석

이유항목	문화마을	백분율	문화마을 외 지역	백분율
공기의 깨끗함의 개선도 응답이유	변화없다.1	37.2	차량증가	20.4
	관리(공공근로사업, 정책변화, 주민관리)	13.8	난개발(공장, 댐건설)	10.4
	차량증가	11.7	쓰레기소각 및 증가, 생활하수, 정화조 등으로 인한 악취	9.6
	공장감소	8.5		

○ 또한, 토양의 양호함의 항목에서는 두 지역 모두 전보다 나빠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에 대한 이유로는 문화마을의 경우는 화학비료의 사용이나 인구

감소로 인한 폐농으로 토양이 척박해졌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문화마을 외 지역에서는 화학비료의 사용이나 쓰레기 매립과 정화시설 미비로 인한 수질오염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음(표 6-12).

< 표 6-12 > 토양의 양호함의 개선도에 대한 이유분석

이유항목	문화마을	백분율	문화마을 외 지역	백분율
토양의 양호함의 개선도	변화없다.	30.8	화학비료(병충해)	38.5
응답이유	화학비료(병충해)	19.8	변화없음	16.7
	인구감소(폐농)로 인해 황폐해짐	4.4	수질오염 (쓰레기매립, 정화시설 부족)	5.4

○ 생활환경의 경우 문화마을이 도로시설(확장 및 개통)의 항목에서 1.43점으로 개선되었다는 인식이 문화마을 외 지역의 1.07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상가 및 편의시설 항목에서는 문화마을이 0.24점으로 문화마을 외 지역의 0.45점 보다 별로 개선되지 못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이 결과는 모두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었음.

○ 사회·경제환경이나 지역의 특성의 경우 두 지역 모두 -0.25점과 -0.30점으로 더 나빠졌다는 견해를 나타냈으며 그 이유에 대한 분석결과 두지역 모두 기반시설 공사시 경지면적 감소로 인한 소득감소나 농작물 가격하락 때문에 소득이 감소하였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음(표 6-13).

< 표 6-13 > 소득의 개선도에 대한 이유분석

이유항목	문화마을	백분율	문화마을 외 지역	백분율
소득 개선도에 대한 응답이유	변화없음	26.7	변화없음	17.3
	살기 불편함	16.7		
	농사지음 (농기구등 제반시설 확충) 경지면적 감소, 농사량 감소	11.7	농사지음 (농기구등 제반시설 확충), 경지면적 감소, 농사량 감소	12.4
	농작물 가격하락, 판로가 막힘(I.M.F) 수입농산물	10.0	농작물 가격하락, 판로가 막힘(I.M.F) 수입농산물	9.7
			살기불편하다.	9.7

○ 그 밖에, 지역특성개발에 대한 개선도 분석에서는 지역특색의 활성화의 항목의

경우 문화마을이 -0.32점과 문화마을 외 지역이 -0.38점으로 두 지역 모두 더 나빠졌다는 견해가 높았음. 이를 통해 문화마을이 지역특성개발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됨.

3) 일반적인 신상분석 결과

○ 문화마을지역과 문화마을 외 지역모두 남·여의 비율이 비교적 50%정도로 조사되었으며 나이의 비율은 두 지역모두 35세 이상의 연령층이 전체 조사수의 약 80%를 차지하였음(표 6-14).

< 표 6-14 > 조사자의 성별·나이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구분	항목	문화마을		문화마을 외 지역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성별	남	66	54.1	154	53.2
	여	56	45.9	134	46.8
	총	122명		288명	
나이	20세 이하	2	1.6	6	2.1
	21-35세	24	19.7	49	17.1
	36-50세	30	24.6	75	26.2
	51-65세	35	28.7	78	27.2
	66세 이상	31	25.4	80	27.4

○ 장래거주희망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가능한 한 현재의 지역에서 계속해서 살고싶다는 응답자가 76.9%, 문화마을 외 지역이 72.5%로 나타났으며 장래에 이사하고 싶다는 응답자가 문화마을은 6.6%, 문화마을 외 지역은 9.9%로 나타났음(표 6-15).

○ 이에대해 장래에 이사할 예정이라고 응답한 이유에 대한 분석결과 문화마을과 문화마을 외 지역 모두 소득불만으로 인하여 직장을 찾아 다른곳으로 이사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견해는 문화마을 주민이 문화마을 외 지역주민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현재지역에서 가능한 한 계속 살 예정이라고 응답한 이유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문화마을과 문화마을 외 지역 주민들이 비슷한 견해를 나타냈으며, 모두 고향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환경이 좋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이사하지 못한다는 응답도 많았음(표 6-16).

< 표 6-15 > 장래거주 희망여부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구분	문화마을(%)	문화마을 외 지역(%)
현재지역에서 가능한한 살고싶다	76.9	72.5
가까운 장래에 이사할예정이다	5.0	7.0
특별히 생각하고 있지 않다.	9.9	9.2
장래에 이사하고싶다	6.6	9.9
꼭 이사가겠다.	1.7	1.4

< 표 6-16 > 장래거주 희망에 대한 이유분석

구분	순위	문화마을	백분율	문화마을 외 지역	백분율
이사할 예정인 이유	1	직장때문에(소득)	44.4	직장때문에(소득)	33.3
	2	자녀교육때문에	33.3	자녀교육때문에	29.8
	3	자녀결혼으로	16.7	더 좋은 곳으로 (문화시설, 교통)	15.3
	4	더 좋은 곳으로 (문화시설, 교통)	5.6	공기 좋은 곳에서 살고 싶다.(환경)	5.3
구분	순위	문화마을	백분율	문화마을 외 지역	백분율
계속 거주할 예정인 이유	1	고향이기 때문에	50.0	고향이기 때문에	38.6
	2	살기 좋다(환경)	31.0	살기 좋다(환경)	23.3
	3	내삶의 터전(직장)	8.3	내삶의 터전(직장)	11.9
	4	경제적 능력 때문에 이사하기가 힘이든다.	3.6	기타	8.9
	5	기타	3.6	경제적 능력 때문에 이사하기가 힘이든다.	8.4

6.3.3.2 지역별 비교분석결과

(1) 지역전체별 비교분석 결과

1. 만족도 분석결과

○ 만족도 분석결과 지역전체간의 자연환경에 대해서는 군서면이 82.5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대강면이 61.2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었음. 전체자연환경에 대해서는 99%이상 수준에서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었음. 하위항목 중에서 지역별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는 항목은 자연경관의 보전의 항목이나 공기의 깨끗함에 대한 만족도 또한 군서면이 77.0점으로 가장 높고 대강면이 57.9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표 6-17).

< 표 6-17 > 자연환경의 만족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전체)

구 분	평균값(표준편차)			분산분석			
	용문	대강	군서	Sum of square	DF	F	P-value
전체자연환경	67.1(29.6)	61.2(32.9)	82.5(26.5)	32298.2	2	17.9	0.0001
하천,호수의 깨끗함	38.9(33.6)	40.5(35.1)	53.5(42.1)	16203.4	2	5.6	0.0028
녹지(산림, 농지)의 양호함	59.7(31.1)	47.6(34.4)	56.0(36.0)	11042.0	2	4.8	0.0087
공기의 깨끗함	69.8(30.7)	63.0(35.6)	72.8(33.3)	7188.8	2	3.2	0.0413
토양의 양호함	57.6(29.6)	49.2(28.7)	57.3(33.4)	6460.5	2	3.5	0.0319
자연경관의 보전	65.5(28.3)	57.9(34.3)	77.0(28.7)	25357.1	2	13.3	0.0001

○ 지역별 생활환경의 경우 군서면이 78.2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대강면이 62.8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99%이상 유의수준에서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었음. 이는 자연경관의 항목이 가장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때, 자연과 어우러진 예전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군서면이 가장 큰 만족도를 나타내었으며, 도시적인 풍경과 농촌의 자연풍경이 혼재한 대강면의 자연환경에 대해 주민들이 불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교통(대중교통, 배차간격)과 도로시설(확장,개통)의 항목에서 세 지역간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항목모두 군서면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용문면이 대강면과 크지 않은 차이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음. 이는 서울인접형과 서울근교형 농촌에서 도시와 가까운 지역이므로 교통이나 도로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도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됨. 쓰레기 처리의 항목에서는 대강면이 71.9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큰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 표 6-18 > 생활환경의 만족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전체)

구 분	평균값(표준편차)			분산분석			
	용문	대강	군서	Sum of square	DF	F	P-value
전체 생활환경	64.8(28.9)	62.8(30.7)	78.2(28.0)	18448.8	2	10.7	0.0001
개량주택	82.2(21.5)	77.8(26.6)	82.6(26.2)	1935.1	2	1.6	0.2125
교통(대중교통, 배차간격)	50.0(36.0)	50.5(36.9)	74.8(31.6)	51554.0	2	20.9	0.0001
공공시설	47.7(28.9)	54.4(33.5)	59.7(31.3)	9174.3	2	4.6	0.0101
복지시설	63.2(31.1)	62.2(31.3)	68.6(33.3)	3158.2	2	1.6	0.2126
도로시설(확장, 개통)	64.3(33.5)	65.7(33.7)	86.6(23.4)	40418.0	2	21.2	0.0001
상,하수도 시설	64.5(31.2)	58.4(34.7)	53.6(39.1)	7647.5	2	3.1	0.0458
상가 및 편의시설	46.7(29.3)	47.4(32.2)	51.6(37.3)	1810.3	2	0.8	0.4366
쓰레기 처리	63.9(33.8)	71.9(32.7)	61.2(37.2)	8777.9	2	3.7	0.0258

군서면의 경우는 쓰레기 처리나 상·하수도 시설의 항목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었음. 이는 중산간형의 농촌에서는 다른 유형의 농촌보다 상·하수도 시설 등의 기반시설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결과들은 95% 이상 유의수준을 갖음. 반면, 개량주택이나 복지시설, 상가 및 편의시설의 항목에서는 세 지역간의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표 6-18).

○ 지역별 사회·경제환경의 만족도 분석에서는 전체적으로 군서면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대강면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나 세 지역 모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견해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소득원이 모든 농촌지역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하위항목에 대해서는 지가(땅값)의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99% 이상 수준에서 유의적 차이를 나타냈으며 마을의 인구의 항목에서는 용문면이 58.7점으로 가장 큰 만족도를 군서면이 34.4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었음. 이는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생활환경이 만족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의 감소현상이 있는 이유는 문화생활이나 교육, 소득향상 등을 위해 도시로 이주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주민소득의 항목에서는 용문면이 군서면보다 약간의 차이로 가장 높은 47.2점의 만족도를 나타냈고, 대강면이 26.3점으로 매우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었음. 이는 대강면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도시적 형태의 신촌형의 농촌거주 주민과 기존 원마을의 거주주민의 혼재에 의한 상대적인 빈곤감에서 기인한 불만족인 것으로 사료됨. 또한 세지역 모두 사회·경제환경에 대해서는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었음(표 6-19).

< 표 6-19 > 사회·경제환경의 만족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전체)

구 분	평균값(표준편차)			분산분석			
	용문	대강	군서	Sum of square	DF	F	P-value
전체 사회·경제 환경	48.0(25.4)	33.0(27.1)	52.0(27.3)	28688.4	2	20.2	0.0001
마을의 인구	58.7(29.4)	43.7(32.1)	34.4(31.5)	37916.9	2	19.6	0.0001
주민의 소득	47.2(29.2)	26.3(28.3)	45.2(31.2)	38130.6	2	21.9	0.0001
지가(땅값)	42.1(27.0)	40.4(26.1)	47.5(25.4)	3690.4	2	2.7	0.0689

○ 다음은 지역별 각 환경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해보기 위하여 Scheffe 방법에 의한 다중비교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경우 모두 용문면

과 군서면간이나 대강면과 군서면간의 차이는 있으나 용문면과 대강면간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경제환경의 경우는 용문면과 군서면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결론이 나타났음. 이는 95%이상 수준에서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는 결과만을 가려낸 것임(표 6-20), (표 6-21), (표 6-22).

< 표 6-20 > 자연환경의 Scheffe에 의한 다중비교 분석결과(전체)

구 분	용문	대강	군서
용문		-	*
대강			*
군서			

- 유의적 차이 없음, * 5%이내에서 유의적 차이가 있음

< 표 6-21 > 생활환경의 Scheffe에 의한 다중비교 분석결과(전체)

구 분	용문	대강	군서
용문		-	*
대강			*
군서			

- 유의적 차이 없음, *** 5%이내에서 유의적 차이가 있음

< 표 6-22 > 사회·경제환경의 Secheffe에 의한 다중비교 분석결과(전체)

구 분	용문	대강	군서
용문		*	-
대강			*
군서			

< - 유의적 차이 없음, *** 5%이내에서 유의적 차이가 있음 >

2. 개선도 분석결과

○ 지역전체간의 개선도 분석결과는 전체적으로 비교적 높은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나타냈으며 생활환경의 경우 하천·호수의 깨끗함, 녹지(산림,농지)의 양호함과 토양의 양호함의 항목에서 모든 지역이 전과 비교하여 나빠졌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생활환경의 경우는 모든 항목에서 개선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개량주택, 공

공시설, 상가 및 편의시설의 항목에서는 지역간 개선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신촌형과 정비형의 형태가 확연히 주택정비나 기반시설 정비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도에서 유의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개선도와 만족도는 정비형태에 의해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비형태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사회·경제환경의 경우는 지가(땅값)의 항목에서는 모두 약간 개선되었다는 견해를 나타냈으나 마을의 인구의 항목에서는 군서면이 오히려 전과 비교하여 조금 줄어들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이 항목들의 결과는 모두 95%이상 수준에서 유의적 차이를 갖음. 반면, 주민의 소득의 항목에서는 세 지역모두 전과 비교하여 더 나빠졌다는 견해를 나타냈으며, 세 지역간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표 6-23).

< 표 6-23 > 하위항목에 대한 개선도 분석결과

전체환경	구 분	용문		대강		군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자연 환경	하천,호수의 깨끗함	-0.48	1.38	-0.56	1.34	-0.13	1.55
	녹지(산림, 농지)의 양호함	-0.08	1.23	-0.53	1.29	-0.07	1.35
	공기의 깨끗함	-0.12	1.08	-0.31	1.15	0.02	1.03
	토양의 양호함	-0.16	0.86	-0.39	0.89	-0.15	1.18
	자연경관의 보전	0.79	1.18	0.94	1.13	0.76	1.16
생활 환경	개량주택	1.29	0.83	1.33	0.88	1.35	0.90
	교통(대중교통, 배차간격)	0.60	0.96	0.57	1.15	1.24	0.93
	공공시설	0.28	0.75	0.33	0.98	0.37	1.03
	복지시설	0.51	0.68	0.31	0.75	0.26	0.77
	도로시설(확장, 개통)	0.91	1.04	1.11	1.00	1.56	0.81
	상,하수도 시설	0.84	0.97	0.55	1.11	0.43	1.36
	상가 및 편의시설	0.45	0.73	0.40	0.91	0.31	1.02
사회 경제 환경	쓰레기 처리	1.23	1.13	1.54	0.82	0.62	1.46
	마을의 인구	0.71	1.09	0.04	1.42	-0.94	1.10
	주민의 소득	-0.03	0.89	-0.60	1.11	-0.16	1.05
지역 특성	지가(땅값)	0.43	1.13	0.60	1.05	1.00	0.81
	전통의 유지, 계승	1.18	1.11	1.01	1.17	1.51	0.94
주민 참여	지역 특색의 활성화	-0.17	1.08	-0.49	1.25	-0.46	1.22
	마을주민의 참가정도	0.85	0.95	0.93	0.95	1.37	0.69
	문화마을 이후 모임활성화 정도	0.45	0.80	0.28	0.85	0.59	0.71

< 음영처리 : 지역간 95%이상 수준에서 유의적 차이있음 >

○ 지역특성의 경우 지역의 활성화의 항목에서 세 지역모두 전과 비교하여 오히려 나빠졌다는 견해를 나타냈으며 주민참여의 경우는 모든 항목에서 약간 개선되었다는 견해를 나타냈음. 이는 지역의 특성화에 대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

되며 주민참여의 개선도와 연계하여 지역의 특성화를 시킬 수 있는 계획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됨. 이 결과는 모든 항목에서 95%이상 유의수준을 갖음.

(2) 지역별 문화마을간의 비교분석결과

1. 만족도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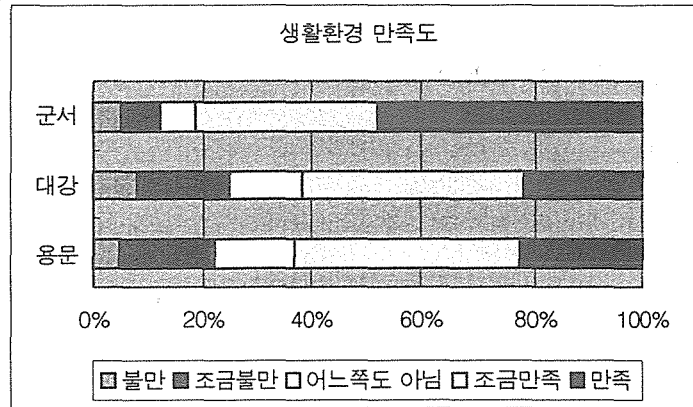
○ 지역별 문화마을간의 만족도 분석결과 자연환경의 경우 군서면이 만족도가 89.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강면이 73.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99% 이상 유의수준에서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었음. 이는 도시적인 신정비형태와 기존마을의 구정비형태가 공존하고 있는 자연환경에 대해 불만감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음(표 6-24).

< 표 6-24 > 자연환경의 만족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문화마을)

구 분	평균값(표준편차)			분산분석			
	용문	대강	군서	Sum of square	DF	F	P-value
전체자연환경	76.1(24.4)	73.3(27.9)	89.7(22.3)	14061.2	2	6.1	0.0030
하천,호수의깨끗함	50.0(30.2)	50.6(35.1)	74.3(36.7)	1638.1	2	0.8	0.4721
녹지(산림, 농지)의 양호함	63.4(29.6)	55.6(35.3)	62.9(33.7)	192.8	2	0.1	0.8721
공기의 깨끗함	82.3(21.8)	79.4(28.8)	81.6(28.4)	2216.6	2	1.4	0.2432
토양의 양호함	69.2(20.3)	59.1(29.6)	64.0(33.2)	4974.5	2	2.8	0.0623
자연경관의 보전	69.2(26.6)	70.0(32.7)	83.8(28.8)	5686.7	2	4.5	0.0134

○ 생활환경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용문면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군서면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빈도분석의 결과를 볼 때 만족의 응답이 용문면보다 군서면이 많고 불만의 등답도 용문면보다 적은 것을 감안 하면 용문면에서 어느쪽도 아님의 중간값이 많았기 때문에 평균값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됨. 이는 분산분석의 결과 지역간에는 유의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도로 시설(확장 및 개통)의 항목에서는 군서면이 95.6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대강면이 72.8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상가 및 편의시설과 상·수도시설의 항목에 대해서는 군서면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음. 이는 상·하수도 시설, 쓰레기 처리시설, 상가 및 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의 정비가 다른 지역보다 미흡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그림 6-2), (표 6-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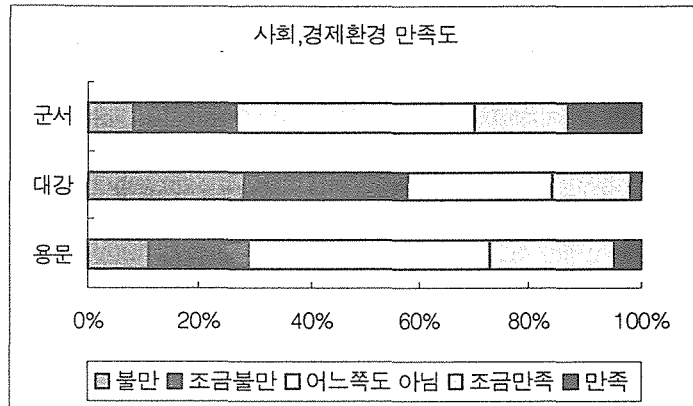
< 그림 6-2 > 생활환경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 표 6-25 > 생활환경의 만족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문화마을)

구 분	평균값(표준편차)			분산분석			
	용문	대강	군서	Sum of square	DF	F	P-value
전체 생활환경	83.1(17.9)	77.8(19.4)	71.3(34.3)	2523.8	2	3.0	0.1055
개량주택	91.3(15.3)	87.8(17.4)	79.7(29.4)	20457.5	2	8.2	0.0559
교통(대중교통, 배차간격)	45.2(37.1)	38.3(33.6)	69.9(35.2)	1469.7	2	0.7	0.0005
공공시설	44.2(32.7)	51.7(33.0)	44.9(30.6)	3536.5	2	1.6	0.4948
복지시설	71.5(31.7)	67.6(30.8)	58.1(36.8)	10423.0	2	7.5	0.1987
도로시설(확장, 개통)	79.1(27.8)	72.8(31.5)	95.6(14.4)	38533.7	2	23.6	0.0009
상,하수도 시설	82.6(22.2)	75.0(26.7)	39.7(37.0)	7350.9	2	3.9	0.0001
상가 및 편의시설	43.5(28.7)	46.6(31.2)	27.9(33.0)	30505.0	2	14.0	0.0241
쓰레기 처리	84.3(25.0)	72.7(19.4)	44.9(40.7)	2651.5	2	2.3	0.0001

○ 사회·경제환경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용문면이 57.1점으로 군서면의 49.2점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빈도분석의 결과에서 보면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군서면에서 용문면보다 훨씬 더 많았으며, 불만족의 응답도 용문면보다 적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할 때 이는 용문면에서 어느쪽도 아니라는 중간값이 군서면보다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약간 높은 평균값으로 분석된 것으로 생각됨. 하위평가항목들에 대해서는 지가(땅값)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서 99%이상 유의수준에서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마을의 인구의 항목의 경우는 용문면이 68.0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군서면이 23.5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었고, 주민소득의 항목의 경우는 용문면이 55.8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대강면이 30.1점으로 가장 낮은 만

족도를 나타내었음(그림 6-3), (표 6-26).



< 그림 6-3 > 사회·경제환경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 표 6-26 > 사회·경제환경의 만족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문화마을)

구 분	평균값(표준편차)			분산분석			
	용문	대강	군서	Sum of square	DF	F	P-value
전체 사회·경제환경	57.1(23.0)	37.8(29.0)	49.2(29.8)	8258.5	2	5.5	0.0050
마을의 인구	68.0(30.5)	55.0(32.2)	23.5(28.0)	38834.6	2	20.6	0.0001
주민의 소득	55.8(31.3)	30.1(30.8)	44.1(35.4)	14405.5	2	6.9	0.0015
지가(땅값)	48.2(27.8)	39.2(29.2)	50.0(30.8)	2740.9	2	1.6	0.2048

○ 다음은 지역별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Scheffe방법의 다중비교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 지역간의 생활환경에 대한 유의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용문면과 대강면간에서는 사회·경제환경에 대하여 차이가 두드러 졌으며, 대강면과 군서면간에는 자연환경에 대하여 큰 차이를 나타냈고, 이

< 표 6-27 > 지역별 자연환경에 대한 Scheffe방법의 다중비교 분석결과(문화마을)

구 분	용문	대강	군서
용문	-	-	-
대강		-	*
군서			-

- 유의적 차이 없음, * 5%이내에서 유의적 차이 있음

결과는 5%의 수준에서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었음. 이는 대강면의 경우 도시적인 사

설과 농촌자연풍경적인 시설이 함께 공존하는 정비형태에 대해 자연환경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대강면의 주민들은 동일한 마을내의 개량주택 거주자들에 대해서 사회·경제환경에 대한 상대적 불만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표 6-27), (표 6-28).

< 표 6-28 > 지역별 사회·경제환경에 대한 Scheffe방법의 다중비교 분석결과(문화마을)

구분	용문	대강	군서
용문		*	-
대강			-
군서			

- 유의적 차이 없음, * 5%이내에서 유의적 차이 있음

○ 다음은 지역간에 차이가 있는 각 환경에 대하여 지역별 하위평가항목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음. 그 결과 자연환경의 경우 군서면과 대강면을 비교해볼 때 대강면과 군서면은 공기의 깨끗함과 자연경관의 보존의 항목이 자연경관의 만족도에 대해 영향을 주고 있으며 대강면의 경우는 토양의 양호함

< 표 6-29 > 하위평가항목에 대한 중회귀분석(일부예시)(문화마을)

구분	설명변수	용문		설명변수	대강		설명변수	군서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자연환경	토양의양호함*	0.35	0.16	공기의 깨끗함**	0.28	0.12	공기의 깨끗함*	0.26	0.11
	자연경관의보존**	0.49	0.17	토양의양호함*	0.28	0.11	자연경관의보존**	0.50	0.12
		F : 12.87 R : 0.64		F : 9.47 R : 0.64		F : 9.67 R : 0.71			
사회,경제환경	지가(땅값)**	0.35	0.12	주민의 소득**	0.38	0.14	지가(땅값)**	0.58	0.14
		F : 8.12 R : 0.42		F : 8.87 R : 0.56		F : 17.85 R : 0.60			

F : F치, R : 중상관계수, ** : 1%에서 유의, * : 5%에서 유의

의 항목도 또한 중요한 항목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사회·경제환경의 경우 용문면과 대강면을 비교해 볼 때 용문면은 지가(땅값)의 항목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대강면의 경우는 주민의 소득에 대한 항목이 사회·경제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이는 대강면의 문화마을의 형태는 확장형의

정비형태를 띠고 있어 기존마을과 신촌형마을이 혼재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주민들 간에 소득의 격차 및 이질감으로 인하여 주민의 소득에 대한 항목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감한 것으로 생각됨(표 6-29).

2. 개선도 분석결과

○ 개선도에 대한 분산분석의 결과 자연환경의 경우 하천·호수의 깨끗함의 항목에서는 용문면 -0.28점, 대강면 -0.09점, 군서면 0.47점으로 군서면을 제외한 두 지역에서 나빠졌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이는 용문면의 경우 하수처리시설의 미비와 주민의 무관심 등의 이유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강면의 경우는 하수처리시설의 미비나 인구증가 때문이라는 이유가 높게 나타났음. 반면, 군서면의 경우는 환경농업이나 정비사업의 실시나, 특별한 오염원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기 때문에 개선도가 높게 나타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이 결과는 95%이상 수준에서 유의적 차이를 나타냄(표 6-30).

○ 생활환경의 경우 교통(배차시간, 대중교통) 및 도로시설(확장 및 개통)의 항목에서 모두 군서면이 0.71점과 1.88점으로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높은 개선도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용문면에서 교통이나 도로시설에 대한 개선도가 도시형태로 마을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다른 기반시설 정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식도가 낮아졌기 때문임. 또한 용문면은 타 도시로부터 이주해 온 주민이 군서면보다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이 결과는 99%이상 수준에서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었음. 반면 군서면에서는 타 지역과 달리 상·하수도 시설의 항목에서 더 나빠졌다는 견해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군서면의 문화마을에서는 주택의 일부 개량이나 도로시설 등의 정비가 있을 뿐 상·하수도 시설 등의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가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됨.

○ 사회·경제환경에서는 주민의 소득의 개선도에 대한 항목에서는 지역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가(땅값)나 마을의 인구의 항목에서는 1%이내의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나타내었음. 그 밖에 지역의 특성의 경우 정비형에서 가장 개선되었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용문면에서 가장 적게 나타났음. 주민참여의 경우 모임에 대한 참여도는 용문면에서 0.74점으로 군서면의 1.68점에 비해 낮게 나타났

으며 이 결과는 99%이상 수준에서 유의적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표 6-30 > 하위항목에 대한 개선도 평균결과(문화마을)

전체 환경	구 분	용문		대강		군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자연 환경	하천,호수의 깨끗함	-0.28	1.40	-0.09	1.40	0.47	1.40
	녹지(산림, 농지)의 양호함	-0.19	1.14	-0.38	1.25	-0.06	1.18
	공기의 깨끗함	0.26	1.09	0.20	1.06	0.09	0.93
	토양의 양호함	0.07	0.74	-0.02	0.82	-0.15	1.21
	자연경관의 보전	1.00	1.00	1.09	1.08	0.50	1.19
생활 환경	개량주택	1.51	0.83	1.57	0.69	1.21	0.98
	교통(대중교통, 배차간격)	0.53	1.03	0.60	1.03	0.71	1.14
	공공시설	0.34	0.85	0.57	0.87	-0.03	0.90
	복지시설	0.56	0.76	0.61	0.63	0.00	0.91
	도로시설(확장, 개통)	1.21	0.91	1.31	0.82	1.88	0.33
	상,하수도 시설	1.35	0.81	0.78	1.08	-0.03	1.21
	상가 및 편의시설	0.36	0.69	0.36	0.75	-0.06	0.55
	쓰레기 처리	1.74	0.49	1.67	0.68	0.24	1.60
사회 경제 환경	마을의 인구	1.23	0.65	1.00	1.15	-1.09	1.08
	주민의 소득	0.16	0.87	-0.70	1.07	-0.18	1.03
	지가(땅값)	0.50	1.02	0.89	0.86	0.91	0.71
지역 특성	전통의 유지,계승	1.19	1.10	1.08	0.95	0.80	1.36
	지역 특색의 활성화	0.09	0.91	-0.34	1.26	-0.81	1.18
주민 참여	마을주민의 참가정도	0.74	1.08	0.84	0.95	1.68	0.77
	문화마을 이후 모임활성화 정도	0.52	0.94	0.48	0.79	0.48	0.80

< 음영처리 : 지역간 95%이상 수준에서 유의적 차이있음 >

(3) 지역별 문화마을 외 지역간의 비교분석결과

1. 만족도 분석결과

○ 지역별 문화마을 외 지역간의 만족도 분석결과에서는 자연환경의 경우 전체적으로 군서면이 만족도 80.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강면이 용문면과 약간의 차이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 자연환경의 하위평가항목 중 녹지(산림, 농지)의 양호함, 공기의 깨끗함과 자연경관의 보전의 항목이 지역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녹지(산림, 농지)의 양호함의 항목에서는 용문면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공기의 깨끗함과 자연경관의 보전의 항목에서는 군서면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고 모든 항목에서 대강면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었음. 이는 문화마을 외 지역의 경우도 문화마을 지역과 마찬가지로

가지로 확장형의 혼재화에서 오는 결과라고 생각됨(표 6-31).

< 표 6-31 > 자연환경의 만족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문화마을 외)

구 분	평균값(표준편차)			분산분석			
	용문	대강	군서	Sum of square	DF	F	P-value
전체자연환경	62.5(31.1)	56.3(33.6)	80.0(27.5)	28360.6	2	14.7	0.0001
하천,호수의깨끗함	33.4(34.0)	36.5(34.3)	45.5(41.4)	6908.7	2	2.6	0.0775
녹지(산림, 농지)의 양호함	57.8(32.0)	44.3(33.6)	53.6(36.6)	9340.4	2	4.0	0.0193
공기의 깨끗함	63.8(32.6)	56.3(36.1)	69.4(34.5)	8738.6	2	3.7	0.0271
토양의 양호함	51.7(31.8)	45.1(27.5)	54.7(33.3)	4788.5	2	2.5	0.0812
자연경관의 보전	63.7(29.1)	53.0(33.8)	74.4(28.4)	22936.0	2	12.1	0.0001

○ 생활환경의 경우는 지역별 문화마을의 비교와는 달리 군서면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용문면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음. 용문면의 문화마을이 생활환경면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용문면의 문화마을 외 지역의 생활환경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낸 것은 용문면의 신촌형의 정비형태가 전체적으로는 신촌형마을과 기존의 마을 주민들과의 이질감에 의한 상대적인 불만감을 야기시킨 이유로 사료되며, 이것은 대강면의 문화마을 내에서 나타난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음(표 6-32).

< 표 6-32 > 생활환경의 만족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문화마을 외)

구 분	평균값(표준편차)			분산분석			
	용문	대강	군서	Sum of square	DF	F	P-value
전체 생활환경	55.3(29.1)	56.7(32.4)	80.8(25.0)	37750.8	2	22.1	0.0001
개량주택	77.6(22.8)	73.2(28.8)	83.6(25.2)	5088.6	2	3.8	0.0235
교통(대중교통, 배차간격)	52.3(35.5)	55.5(37.2)	76.7(30.1)	31650.5	2	13.2	0.0001
공공시설	49.4(26.8)	55.5(33.8)	65.3(30.0)	11352.0	2	6.1	0.0026
복지시설	59.0(30.2)	60.0(31.4)	72.5(31.2)	10487.2	2	5.5	0.0047
도로시설(확장, 개통)	57.0(33.8)	62.7(34.3)	83.2(25.3)	34579.3	2	17.4	0.0001
상,하수도 시설	55.5(31.2)	51.6(35.4)	58.8(38.8)	2609.1	2	1.0	0.3536
상가 및 편의시설	48.3(29.7)	47.7(32.8)	60.4(35.0)	9693.4	2	4.6	0.0112
쓰레기 처리	53.6(33.0)	71.6(32.7)	67.3(34.1)	16349.8	2	7.4	0.0007

○ 사회·경제환경의 경우 군서면, 용문면, 대강면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으며, 이는 생활환경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용문면의 문화마을과 문화마을 외 지역과의 만족도에 대한 큰 격차를 알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대강면의 확장형 문화마을과 마찬가지로 용문면의 신촌형 문화마을의 정비형태는 전체적으로는 동일한 결과로 귀결된

다고 생각됨. 하위평가항목에서는 지가(땅값)의 만족도를 제외한 마을의 인구와 주민의 소득의 항목에서 99%이상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마을의 인구는 군서면이 38.5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용문면이 53.9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음. 이는 본 연구의 유형화에서 고려하였듯이 지리적 관계에 따른 인구의 유입이 도시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산간형 농촌에서는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표 6-33).

< 표 6-33 > 사회·경제환경의 만족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문화마을 외)

구 분	평균값(표준편차)			분산분석			
	용문	대강	군서	Sum of square	DF	F	P-value
전체 사회·경제환경	43.5(25.5)	31.0(26.1)	53.1(26.5)	24428.5	2	18.0	0.0001
마을의 인구	53.9(27.9)	39.0(31.1)	38.5(31.7)	13535.9	2	7.3	0.0008
주민의 소득	42.6(27.3)	24.8(27.2)	45.6(30.0)	20891.0	2	16.5	0.0001
지가(땅값)	39.0(26.1)	40.9(25.0)	46.6(23.1)	2765.2	2	2.3	0.1065

○ 다음은 각 환경에 대한 하위평가항목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중회귀분석결과는 자연환경의 경우 세 지역 모두 자연경관 보전의 항목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와 비교적 인접한 용문면이나 대강면에서는 녹지(산림, 농지)의 양호함의 항목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표 6-34).

○ 생활환경에서는 용문면의 경우 쓰레기처리의 항목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인접형 지역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기반시설의 정비가 비교적 갖추어진 곳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항목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진 것으로 사료됨.

○ 사회·경제환경에서는 세 지역모두 주민소득의 항목이 중요한 항목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군서면에서는 마을의 인구의 항목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타지인의 유입이 크지않기 때문에 이 항목에 대해 불만족스러우나, 사회·경제환경에 대한 평가항목으로서의 중요도는 그다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표 6-34 > 하위평가항목의 만족도에 대한 중회귀 분석결과(문화마을 외)

구분	설명변수	용문		설명변수	대강		설명변수	군서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자연 환경	녹지(산림,농지) 의 양호함**	0.19	0.08	녹지(산림,농지)의 양호함**	0.27	0.08	자연경관의보존**	0.43	0.09
	자연경관의보존*	0.71	0.09	토양의양호함**	-0.13	0.09			
	F : 51.66 R : 0.75		F : 37.19 R : 0.72		F : 20.78 R : 0.45				
생활 환경	쓰레기처리*	0.20	0.09	교통** (대중교통,배차시간)	0.19	0.09	도로시설* (확장,개통)	0.23	0.09
				상하수도시설**	0.29	0.08			
				쓰레기처리**	0.31	0.09			
F : 4.49 R : 0.33		F : 5.32 R : 0.60		F : 16.52 R : 0.53					
사회, 경제 환경	마을의인구*	0.21	0.09	마을의인구**	0.26	0.08	주민의소득**	0.47	0.09
	주민의 소득**	0.24	0.10	주민의 소득**	0.27	0.09			
	F : 7.32 R : 0.47		F : 14.93 R : 0.47		F : 23.09 R : 0.53				

F : F치, R : 중상관계수, ** : 1%에서 유의, * : 5%에서 유의

2. 개선도 분석결과

○ 지역별 문화마을 외 지역간의 개선도 분석결과에서는 자연환경의 경우 하천·호수의 깨끗함과 녹지(산림,농지)의 양호함, 토양의 양호함의 항목에서 세 지역 모두 전보다 더 나빠졌다는 견해가 강했으며 녹지(산림,농지)의 양호함, 토양의 양호함의 항목은 세 지역간의 95%이상 수준에서 유의적 차이가 나타났음 (표 6-35).

○ 생활환경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세 지역 모두 전보다 개선되었다는 견해가 높게 나타났으며, 분산분석결과 교통(대중교통, 배차간격)의 항목과 도로시설(확장,개통)의 항목에서 세 지역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이 항목에서 용문면면이 가장 낮은 개선도로 분석된 이유는 타 지역에 비해 도시로 부터의 이주민이 많고,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보다는 개인 자가용을 이용율이 더 높기 때문에 크게 인식하지 않는데서 기인한 결과로 사료됨.

○ 사회·경제환경의 경우 주민소득의 항목은 세 지역이 모두 전과 비교하여 더 나빠졌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앞서 연구된 문화마을에 대한 분석결과와 같이 소득개선을 위한 정책마련이 미흡함을 알 수 있음. 이 결과는 모든

항목이 95%이상 유의수준에서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표 6-35 > 각 항목에 대한 개선도 평균분석 결과(문화마을 외)

전체 환경	구 분	용문		대강		군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자연 환경	하천,호수의 깨끗함	-0.58	1.37	-0.75	1.28	-0.36	1.56
	녹지(산림, 농지)의 양호함	-0.02	1.27	-0.59	1.31	-0.08	1.41
	공기의 깨끗함	-0.31	1.03	-0.52	1.12	0.00	1.06
	토양의 양호함	-0.28	0.90	-0.54	0.87	-0.15	1.18
	자연경관의 보전	0.69	1.25	0.87	1.15	0.87	1.14
생활 환경	개량주택	1.19	0.82	1.22	0.94	1.40	0.86
	교통(대중교통, 배차간격)	0.64	0.93	0.56	1.20	1.44	0.75
	공공시설	0.24	0.70	0.24	1.00	0.52	1.03
	복지시설	0.49	0.65	0.22	0.77	0.40	0.63
	도로시설(확장, 개통)	0.76	1.07	1.02	1.05	1.43	0.90
	상,하수도 시설	0.58	0.95	0.45	1.11	0.59	1.37
	상가 및 편의시설	0.50	0.75	0.41	0.97	0.45	1.12
	쓰레기 처리	0.96	1.27	1.49	0.86	0.75	1.39
사회 경제 환경	마을의 인구	0.45	1.17	-0.35	1.34	-0.89	1.11
	주민의 소득	-0.13	0.89	-0.55	1.12	-0.16	1.06
	지가(땅값)	0.40	1.19	0.49	1.10	1.03	0.85
지역 특성	전통의 유지,계승	1.18	1.12	0.99	1.22	1.68	0.72
	지역 특색의 활성화	-0.28	1.13	-0.54	1.25	-0.29	1.22
주민 참여	마을주민의 참가정도	0.90	0.87	0.96	0.95	1.25	0.63
	문화마을 이후 모임활성화 정도	0.41	0.72	0.20	0.87	0.63	0.68

< 음영처리 : 지역간 95%이상 수준에서 유의적 차이있음 >

(4) 지역별 문화마을과 문화마을 외 지역간의 비교분석결과

○ 다음은 지역간 문화마을과 문화마을 외 지역의 개선도에 대한 응답의 이유를 분석한 결과로서 우선 용문면의 문화마을과 문화마을 외 지역간의 이유를 비교한 결과임.

가.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 다음은 용문면의 문화마을과 문화마을 외 지역과의 개선도에 대한 응답의 이유를 분석한 결과임(표 6-36), (표 6-37), (표 6-38).

○ 녹지(산림, 농지)의 개선도에 대한 응답원인은 두 지역모두 전보다 나빠졌다는 건

해를 나타냈으며, 그 이유는 마을조성으로 인하여 녹지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생활환경의 경우 상·하수도 시설에 대하여 두지역이 비교적 만족하였으며, 그 중 문화마을이 문화마을 외 지역보다 조금 더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으나 불만의 이유를 보면, 문화마을 지역에서는 시설설치이후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문화마을 외 지역에서는 자가수도의 사용으로 큰 불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사회·경제환경의 경우는 주민소득의 항목에 대하여 문화마을에서는 월급 등과 같은 고정수입이기 때문에 별 변화없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문화마을 외 지역에서는 농작물의 가격하락으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되었다는 응답이 많았음.

< 표 6-36 > 자연환경의 하위항목에 대한 개선도 이유분석

이유항목	문화마을	백분율	문화마을 외 지역	백분율
하천·호수의 깨끗함의 개선도 응답이유	정화처리 미비	31.6	정화처리 미비	40.0
			관광객 증가	15.3
	기타	13.2	기타	7.1
	관광객 증가	10.5	빈번한 공사 및 마을 개발	5.9
이유항목	문화마을	백분율	문화마을 외 지역	백분율
녹지의 양호함의 개선도 응답이유	마을 조성	65.8	마을 조성	40.0
	기타	13.2	기타	22.7
이유항목	문화마을	백분율	문화마을 외 지역	백분율
공기의 깨끗함의 개선도 응답이유	변화 없음	41.2	차량 증가	22.4
			변화 없음	19.7
			악취 증가	13.2
	차량증가	8.8	기타	13.2
	기타	5.9		
이유항목	문화마을	백분율	문화마을 외 지역	백분율
토양의 양호함의 개선도 응답이유	변화 없음	42.4	화학비료 사용	32.9
			변화 없음	15.1
	기타	9.1	기타	13.7
	수질오염으로 인해	6.1	난개발	8.2

< 표 6-37 > 생활환경의 하위항목에 대한 개선도 이유분석

이유항목	문화마을	백분율	문화마을 외 지역	백분율
개량주택의 개선도 응답이유	화장실, 부엌 개조	86.5	화장실, 부엌 개조	82.2
	혜택받지 못함	8.1	혜택받지 못함	12.3
	난방(연료교체)	2.7	기타	4.1
	기타	2.7	난방(연료교체)	1.4
이유항목	문화마을	백분율	문화마을 외 지역	백분율
상·하수도의 개선도 응답이유	보수 및 유지 불량	72.7	자가수도 사용	27.5
	자가수도 사용	6.1	기타	15.9
	변화 없음	6.1	보수 및 유지 불량	11.6
	기타	6.1	변화 없음	7.2

< 표 6-38 > 사회·경제환경의 하위항목에 대한 개선도 이유분석

이유항목	문화마을	백분율	문화마을 외 지역	백분율
소득의 개선도 응답이유	고정소득(월급)	15.6	농작물 가격 하락	12.3
	농작물 가격 하락	9.4	살기 불편함	12.3
	살기 불편함	6.3	기타	12.3
이유항목	문화마을	백분율	문화마을 외 지역	백분율
땅값의 개선도 응답이유	개량주택	51.5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음	32.3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음	12.1		
	변화 없음	12.1		
	정부 시책으로 인해상승	9.1	개량주택	6.2
			정부 시책으로 인해	6.2
		관광지 개발	6.2	

나. 충북 단양군 대강면

○ 다음은 대강면의 문화마을과 문화마을 외 지역간의 이유를 분석한 결과임(표 6-39), (표 6-40), (표 6-41).

○ 자연환경의 경우 하천·호수의 깨끗함에 대해서는 문화마을과 문화마을 외 지역의 주민들이 정화처리의 미비 때문에 더러워 졌다는 견해가 많았으며, 문화마을 외 지역에서 인구의 증가가 오염의 원인이라는 견해가 높게 나타났음. 공기의 깨끗함에 대해서는 문화마을은 전보다 개선되었다고 답한 반면 문화마을 외 지역에서는 더 나

빠졌다는 견해가 높았는데 그 이유는 문화마을 사업으로 인한 개발과 차량증가 등에 의해 공기가 더러워 졌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생활환경의 경우는 도로시설의 경우 도로가 정비되고 운반 등이 편리해져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문화마을 외 지역에서는 통행차량이 증가하고 보수가 불량하다는 견해도 나타났음.

○ 사회·경제환경의 경우 주민의 소득에서 전반적으로 두 지역모두 개선되지 않았다는 견해를 나타냈으며, 문화마을은 지출의 증가나 농작물가격의 하락의 이유로 응답하였고 문화마을 외 지역에서는 마을조성으로 인한 농지의 감소에 의한 생산량의 감소때문이라는 인식이 높았음. 전반적으로 대강면 문화마을 외 지역에서 문화마을로 인해 환경이 더 나빠진 부분이 많다는 응답이 높았음.

< 표 6-39 > 자연환경의 하위항목에 대한 개선도 이유분석

이유항목	문화마을	백분율	문화마을 외 지역	백분율
하천·호수의 깨끗함의 개선도 응답이유	정화 처리 미비	16.3	정화처리 미비	28.7
			인구증가	20.8
	하천의 쓰레기 증가	14.0	기타	15.8
	인구 증가	11.6	하천의 쓰레기 증가	9.9
이유항목	문화마을	백분율	문화마을 외 지역	백분율
녹지의 양호함의 개선도 응답이유	마을 조성으로 녹지개간	54.3	마을 조성으로 녹지개간	59.1
			간석지 증가	11.8
	경지정비로 인한 녹지 감소	2.9	녹지 변화 없음	4.3
이유항목	문화마을	백분율	문화마을 외 지역	백분율
공기의 깨끗함의 개선도 응답이유	변화 없음	34.4	난개발	21.3
	공장 감소	18.8	차량 증가	21.3
	녹지 증가	9.4	변화 없음	14.6
	관리(주민의식 변화)	9.4	악취 증가	6.7
이유항목	문화마을	백분율	문화마을 외 지역	백분율
토양의 양호함의 개선도 응답이유	변화 없음	24.2	화학비료 사용	48.8
	유기농업 실시	21.2	변화 없음	17.4
	화학비료 사용	21.2	유기농업 실시	9.3
	폐농 증가로 황폐해짐	12.1	기타	8.1
	난개발	6.1	폐농 증가로 황폐해짐	5.8

< 표 6-39 > 계속

이유항목	문화마을	백분율	문화마을 외 지역	백분율
경관보전의 개선도 응답이유	마을 정비	80.1	마을 조성	55.7
	변화 없음	17.1	기타	12.5
	기타	2.9	산림 훼손	10.2

< 표 6-40 > 생활환경의 하위항목에 대한 개선도 이유분석

이유항목	문화마을	백분율	문화마을 외 지역	백분율
개량주택의 개선도 응답이유	화장실, 부엌 개조	77.8	화장실, 부엌 개조	57.5
	난방(연료교체)	8.3	난방(연료교체)	13.8
			혜택받지 못함	12.6
	기타	2.8	기타	10.3
	지붕 개조	2.8	지붕 개조	4.6

이유항목	문화마을	백분율	문화마을 외 지역	백분율
교통의 개선도 응답이유	대중교통의 증가	36.1	대중교통의 증가	54.3
	변화 없음	33.3	대중교통의 불편(정류장이 멀다)	21.7
	대중교통의 불편(정류장이 멀다)	22.2	변화 없음	16.3
	기타	5.6	도로 확장 및 포장	4.3
	도로 확장 및 포장	2.8	기타	3.3

이유항목	문화마을	백분율	문화마을 외 지역	백분율
도로시설의 개선도 응답이유	도로 정비	75.0	도로 정비	57.6
	이동 및 운반 편리	8.3	이동 및 운반 편리	17.4
	보도가 없어 불편	5.6	변화 없음	5.4
	변화 없음	5.6	통행차량 증가	4.3
	이용 불편	2.8		
	기타	2.8	보수 불량	4.3

이유항목	문화마을	백분율	문화마을 외 지역	백분율
상·하수도의 개선도 응답이유	상하수도 설치됨	30.0	상하수도 설치됨	35.6
	이용이 편리하고 깨끗함	23.3	기타	21.8
	기타	20.0	자가수도 사용	10.3
	보수 유지 불량	16.7	변화 없음	10.3
			석회질 많고 수질오염 됨	6.9
			보수 유지 불량	6.9

< 표 6-41 > 사회·자연환경의 하위항목에 대한 개선도 이유분석

이유항목	문화마을	백분율	문화마을 외 지역	백분율
인구의 개선도 응답이유	가구수 증가	65.8	가구수 증가	42.7
	소득문제(IMF)	10.5	도시로 이주	27.1
	살기 좋음(도로 확장)	7.9	소득문제(IMF)	12.5
	유동인구 없음	7.9	기타	8.3
	도시로 이주	5.3		
이유항목	문화마을	백분율	문화마을 외 지역	백분율
소득의 개선도 응답이유	살기 불편함	21.9	경지면적, 농사량 감소	15.7
	농작물 가격 하락	15.6	살기 불편함	15.7
	지출 증가	15.6	농작물 가격 하락	12.0
	기타	12.5	변화 없음	8.4
	변화 없음	9.4	소득원 없음	8.4
이유항목	문화마을	백분율	문화마을 외 지역	백분율
땅값의 개선도 응답이유	개량주택	37.0	도로 교통이 좋아짐	22.7
	정부시책으로 인해	22.2	정부시책으로 인해	16.0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음	11.1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음	16.0
	도로 교통이 좋아짐	7.4	관광지 개발	13.3
	발전이 없으므로	7.4	기타	6.7

다. 전남 영암군 군서면

○ 다음은 군서면의 문화마을과 문화마을 외 지역간의 이유를 분석한 결과임(표 6-42), (표 6-43), (표 6-44). 전반적으로 문화마을과 문화마을 외 지역과의 차이가 크지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유분석에서도 특별히 큰 차이는 나타내지 않았음.

< 표 6-42 > 자연환경의 하위항목에 대한 개선도 이유분석

이유항목	문화마을	백분율	문화마을 외 지역	백분율
하천·호수의 깨끗함의 개선도 응답이유	정화처리 미비	34.5	정화처리 미비	42.4
	정비사업 실시	31.0	정비사업 실시	17.6
	오염원이 없거나 감소	20.7	오염원이 없거나 감소	12.9
	상수도 보호구역	6.9	기타	9.4
	주민의식 변화	3.4	주민의식 변화	7.1
	기타	3.4		

< 표 6-42 > 계속

이유항목	문화마을	백분율	문화마을 외 지역	백분율
녹지의 양호함의 개선도 응답이유	마을 조성	37.9	마을 조성	35.4
	기타	34.5	녹지 변화 없음	26.6
	녹지 변화 없음	6.9	나무 식재량 증가	17.7
	제도상의 규제(상수도 보호구역)	6.9	경지정비로 인한 녹지 감소	11.4
	간석지 증가	6.9	기타	7.6

이유항목	문화마을	백분율	문화마을 외 지역	백분율
공기의 깨끗함의 개선도 응답이유	변화 없음	35.7	변화 없음	25.3
	녹지 증가	21.4	차량 증가	17.3
	차량 증가	14.3	녹지 증가	12.0
	공장 증가	10.7	공장 감소	12.0
	공장 감소	7.1	악취 증가	9.3
	도로 기반 정비(확장, 정비)	7.1		

이유항목	문화마을	백분율	문화마을 외 지역	백분율
토양의 양호함의 개선도 응답이유	화학비료의 사용	44.0	화학비료의 사용	32.5
	변화 없음	24.0	변화 없음	17.5
	객토, 경지 정비	16.0	유기농업 실시	16.3
	유기농업 실시	8.0	객토, 경지 정비	10.0
	생산량 증가	4.0	기타	6.3
	수질오염	4.0		

이유항목	문화마을	백분율	문화마을 외 지역	백분율
경관의 보전의 개선도 응답이유	마을 정비	69.2	마을 정비	71.1
	기타	15.4	변화 없음	9.2
	변화 없음	7.7	녹지 증가	6.6
	녹지 증가	3.8	기타	6.6
	인구감소	3.8	산림훼손	5.3

< 표 6-43 > 생활환경의 하위항목에 대한 개선도 이유분석

이유항목	문화마을	백분율	문화마을 외 지역	백분율
개량주택의 개선도 응답이유	화장실, 부엌 개조	77.8	화장실, 부엌 개조	57.5
	혜택받지 못함	14.8	난방(연료교체)	13.8
	난방(연료교체)	7.4	혜택받지 못함	12.6
			기타	10.3
			지붕 개조	4.6

< 표 6-43 > 계속

이유항목	문화마을	백분율	문화마을 외 지역	백분율
교통의 개선도 응답이유	대중교통의 증가	53.6	대중교통의 증가	54.3
	대중교통의 불편	21.4	도로 확장 및 포장	21.7
	도로 확장 및 포장	17.9	대중교통의 불편	16.3
	변화 없음	7.1	변화 없음	4.3
			기타	3.3
이유항목	문화마을	백분율	문화마을 외 지역	백분율
공공시설의 개선도 응답이유	변화 없음	57.7	변화 없음	40.0
	학교의 폐교	26.9	서비스 개선(친절해짐)	15.6
	접근 용이	11.5	학교의 폐교	14.4
	복지시설 확충	3.8	온라인 전산망 실시	13.3
			접근 용이	11.1
이유항목	문화마을	백분율	문화마을 외 지역	백분율
복지시설의 개선도 응답이유	변화 없음	37.0	노인정(회관) 설립	38.2
	노인정(회관) 설립	37.0	정부 시책 미흡	24.7
	정부 시책 미흡	11.1	변화 없음	18.0
	체육시설 및 놀이시설 설치	7.4	체육시설 및 놀이시설 설치	9.0
	기타	7.4		
이유항목	문화마을	백분율	문화마을 외 지역	백분율
도로시설의 개선도 응답이유	도로 정비	83.3	도로 정비	57.6
	이동 및 운반 편리	10.0	이동 및 운반 편리	17.4
	차량 감소	3.3	변화 없음	5.4
	깨끗하고 조용함	3.3	통행차량 증가	4.3
			깨끗하고 조용함	4.3
보수, 정비 불량			4.3	
이유항목	문화마을	백분율	문화마을 외 지역	백분율
상·하수도의 개선도 응답이유	자가수도 사용	63.3	상하수도 설치	35.6
	보수, 유지 불량	20.0	기타	21.8
	하수처리 안됨	10.0	자가수도 사용	10.3
	변화 없음	6.7	변화 없음	10.3
			석회질 많고 수질오염 됨	6.9
보수, 유지 불량			6.9	

< 표 6-44 > 사회·경제 환경의 하위항목에 대한 개선도 이유분석

이유항목	문화마을	백분율	문화마을 외 지역	백분율
인구의 개선도 응답이유	가구수 증가	65.8	도시로 이주	68.7
	소득문제(IMF)	10.5	유동인구 없음	9.6
	살기 좋음 (복지시설, 도로확장)	7.9	고령화	7.2
	유동인구 없음	7.9	가구수 증가	7.2
	도시로 이주	5.3	살기 좋음(복지시설, 도로확장)	2.4
			변화 없음	2.4
이유항목	문화마을	백분율	문화마을 외 지역	백분율
소득의 개선도 응답이유	살기 불편함	21.9	소득 증가(농사 잘 됨)	20.5
	농작물 가격하락	15.6	변화 없음	19.2
	지출 증가	15.6	소득원 없음	17.9
	기타	12.5	경지면적, 농사량 감소	15.4
	변화 없음	9.4	고정소득(월급, 용돈)	7.7
이유항목	문화마을	백분율	문화마을 외 지역	백분율
지가(땅값)의 개선도 응답이유	개량주택	32.0	정부 시책으로 인해	21.1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음	16.0	기타	13.2
	정부 시책으로 인해	12.0	도로, 교통이 좋아짐	11.8
	변화 없음	12.0	개량주택	10.5
	환경개선(편의시설 확충)	8.0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음	10.5
			관광지 개발	10.5
수요 증가			10.5	

○ 다음은 지역별 문화마을과 문화마을 외 지역의 직업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임(표 6-45).

< 표 6-45 > 지역별 직업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직업	용문		대강		군서	
	문화마을	문화마을 외	문화마을	문화마을 외	문화마을	문화마을 외
농업	25.6	31.8	15.6	27.3	67.6	51.1
농업+기타	7.0	7.1	15.6	9.1	11.8	11.1
무직	27.9	12.9	24.4	20.9	17.6	20.0
기타	39.5	48.2	44.4	42.7	2.9	17.8

○ 직업에 관한 분석에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설문조사를 실시한 다른 두지역에 비해 군서면이 문화마을과 문화마을 외 지역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항목별로 볼 때, 용문면의 경우 농업인구는 문화마을이 25.6%, 문화마을 외 지역이 31.8%로 나타났으며, 농업과 기타 다른 직업을 겸하고 있는 경우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음. 대강면의 경우는 문화마을 외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다른 직업을 농업과 겸하고 있는 비율은 문화마을이 외 지역보다 훨씬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군서면의 경우는 문화마을이 문화마을 외 지역보다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농업과 기타직업을 겸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적으로 많았고, 문화마을과 문화마을 외 지역간의 차이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문화마을의 경우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즉 외부로부터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은 인구의 비율을 보면 용문면은 39.5%, 대강면은 44.4%, 군서면은 2.9%로 도시와 인접한 용문면과 대강면이 높은 비율인데 반해 군서면은 매우 낮은 비율로 나타났음.

○ 다음은 지역별 문화마을과 문화마을 외 지역과의 소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군서면이 소득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강면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빈도분석으로 볼 때, 대강면이 낮은 소득층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군서면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으로 양분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표 6-46). 이를 통하여 볼 때, 실질적으로 문화마을과 문화마을 외 지역간의 소득수준의 차이가 오히려 대강면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만족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상대적인 빈곤감에서 기인된 결과임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음.

< 표 6-46 > 지역별 소득에 대한 빈도분석

소득	용문		대강		군서	
	문화마을	문화마을 외	문화마을	문화마을 외	문화마을	문화마을 외
500만원 미만	25.6	45.1	21.4	44.9	35.3	40.7
500-1200	25.6	19.5	31.0	28.0	20.6	27.9
1200-1700	9.3	19.5	14.3	13.1	5.9	11.6
1700-2200	7.0	3.7	21.4	5.6	8.8	9.3
2200-3000	16.3	7.3	7.1	3.7	5.9	5.8
3000만원 이상	16.3	4.9	4.8	4.7	23.5	4.7

○ 장래거주에 대한 희망의 경우는 용문면이 문화마을과 문화마을 외 지역과의 응답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강면에서는 두 지역에서는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대강면의 경우는 문화마을이 인구의 유입이나 지지에 대해 거의 역할을 하고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방안이 요구되며 용문면의 경우는 지리적 특성에 맞게 인구유입이 용이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는 향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될 것으로 사료됨(표 6-47).

< 표 6-47 > 지역별 t검정 결과

항 목	용문 (p-value)	대강 (p-value)	군서 (p-value)
소득	0.0700	0.6824	0.0135
장래거주 희망	0.0103	0.9324	0.1640

6.3.3.3 용문면, 목면, 군서면간 비교분석 결과

○ 유형별, 정비형태별 문화마을이 평가를 위해 동일군집내 다른 정비형태인 용문면 문화마을(신촌형)과 목면 문화마을(정비형)의 그룹과 다른 유형이나 동일한 정비형태(정비형)을 갖는 군서면 문화마을과 목면 문화마을을 비교분석 하였음.

(1) 용문면, 목면 문화마을간 비교분석결과

1. 만족도 분석결과

○ 용문면, 목면의 만족도 분석결과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목면이 92.6점으로 용문면의 76.1점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도시인접형의 유형에서도 자

< 표 6-48 > 자연환경의 만족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구 분	평균값(표준편차)		t검정 (p-value)
	용문	목면	
전체자연환경	76.1(24.4)	92.6(16.7)	0.0444
하천,호수의깨끗함	50.0(30.2)	87.0(22.3)	0.1045
녹지(산림, 농지)의 양호함	63.4(29.6)	49.1(35.0)	0.3223
공기의 깨끗함	82.3(21.8)	87.0(21.2)	0.8966
토양의 양호함	69.2(20.3)	73.1(28.2)	0.0578
자연경관의 보전	69.2(26.6)	88.9(17.5)	0.0247

연환경에 대해서는 정비형의 형태가 더 높은 만족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특히 하위항목 자연경관의 보전에서 용문면과 목면간에 가장 큰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표 6-48).

○ 생활환경의 경우 용문면이 83.1점으로 목면의 80.6점 보다 만족도의 값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항목 중 개량주택의 항목에서는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하수도시설과 쓰레기 처리에서 두 지역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두 지역의 생활환경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하수도 시설 등의 생활기반시설의 정비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결과는 모두 95%이상 수준에서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표 6-49).

< 표 6-49 > 생활환경의 만족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구 분	평균값(표준편차)		t검정 (p-value)
	용문	목면	
전체 생활환경	83.1(17.9)	80.6(32.8)	0.0005
개량주택	91.3(15.3)	93.0(15.3)	0.9664
교통(대중교통, 배차간격)	45.2(37.1)	50.0(34.0)	0.6389
공공시설	44.2(32.7)	57.4(36.6)	0.5036
복지시설	71.5(31.7)	66.7(42.7)	0.0797
도로시설(확장,개통)	79.1(27.8)	92.6(26.7)	0.8438
상, 하수도시설	82.6(22.2)	54.6(41.0)	0.0004
상가 및 편의시설	43.5(28.7)	35.2(34.2)	0.3144
쓰레기 처리	84.3(25.0)	62.0(41.8)	0.0029

○ 사회·경제환경의 만족도에서는 전체적으로 용문면이 57.1점으로 목면의 46.2점 보다 만족도가 조금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도시적인 형태의 신촌형 정비형태도 근본적인 사회·경제환경에 대해서는 정비

< 표 6-50 > 사회·경제환경의 만족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구 분	평균값(표준편차)		t검정 (p-value)
	용문	목면	
사회,경제 환경	57.1(23.0)	46.2(25.2)	0.5848
마을의 인구	68.0(30.5)	34.3(30.3)	0.9938
주민의 소득	55.8(31.3)	33.0(29.5)	0.7783
지가(땅값)	48.2(27.8)	54.8(23.5)	0.3699

형과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근본적인 농촌주민의 생활개선의 방향이라고는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음(표 6-50).

2. 개선도 분석결과

○ 개선도 분석결과 자연환경의 경우 용문면과 목면간에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환경의 경우 상·하수도 시설과 상가 및 편의시설, 쓰레기 처리의 항목에서 용문면이 목면보다 개선도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음. 사회·경제환경의 경우는 마을 인구의 항목에서 지역간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목면에서 -1.11점으로 오히려 전보다 나빠졌다고 인식하고 있음.

○ 주민참여의 경우는 마을주민의 참가정도의 항목에서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용문면이 목면보다 낮은 개선도를 나타냄. 이는 도시인접형이나 도시근교형 농촌에서는 도시적인 생활의 패턴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에 의해 주민들과의 커뮤니케

< 표 6-51 > 하위평가항목에 대한 개선도 분석결과

전체환경	구 분	용문		목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자연환경	하천,호수의깨끗함	-0.28	1.40	1.15	1.20
	녹지(산림, 농지)의 양호함	-0.19	1.14	-0.85	1.30
	공기의 깨끗함	0.26	1.09	0.78	0.90
	토양의 양호함	0.07	0.74	0.45	1.01
	자연경관의 보전	1.00	1.00	1.30	1.13
생활환경	개량주택	1.51	0.83	1.80	0.58
	교통(대중교통, 배차간격)	0.53	1.03	0.45	0.93
	공공시설	0.34	0.85	0.22	0.64
	복지시설	0.56	0.76	0.31	0.85
	도로시설(확장, 개통)	1.21	0.91	1.92	0.27
	상, 하수도 시설	1.35	0.81	0.73	0.46
	상가 및 편의시설	0.36	0.69	-0.04	0.19
	쓰레기 처리	1.74	0.49	0.37	1.62
사회,경제 환경	마을의 인구	1.23	0.65	-1.11	0.89
	주민의 소득	0.16	0.87	-0.67	1.04
	지가(땅값)	0.50	1.02	0.84	0.94
지역의 특성	전통의 유지,계승	1.19	1.10	0.75	1.39
	지역 특색의 활성화	0.09	0.91	-0.80	1.01
주민참여	마을주민의 참가정도	0.74	1.08	1.33	0.73
	문화마을이후모임활성화정도	0.52	0.94	0.48	0.80

< 음영처리 : 지역간 95%이상 수준에서 유의적 차이있음 >

이선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부차적인 문제점으로 야기시키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표 6-51).

○ 다음은 용문면·목면의 문화마을간의 성별의 비율을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많고 나이는 용문면은 20-50세 사이의 연령층이 주민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목면에서는 대부분의 주민이 50세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를 볼 때 용문면과 같은 도시인접형 신촌형은 다른 농촌지역과는 달리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표 6-52).

< 표 6-52 > 용문면·목면 문화마을간 신상조사 분석결과

구분	항목	용문		목면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성별	남	24	55.8	15	55.6
	여	19	44.2	12	44.4
	총	43명		27명	
나이	20세 이하	0	0	0	0
	21-35세	15	34.9	2	7.4
	36-50세	11	25.6	2	7.4
	51-65세	8	18.6	8	29.6
	66세 이상	9	20.9	15	55.6

(2) 군서면, 목면 문화마을간 비교분석 결과

1. 만족도 분석결과

○ 군서면, 목면간 만족도 분석결과 자연환경의 경우 목면이 92.6점으로 군서면의 89.7점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지역간의 유의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목면이 군서면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도시와 인접한 위치에 있으므로 농촌의 자연풍경에 대한 상대적인 희소적 가치가 높아진데서 기인한 결과로 사료됨. 이는 도시와 인접한 지역에서의 농촌다운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것은 오히려 도시민의 유입에 대한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하위평가항목간에는 하천·호수의 깨끗함과 자연경관의 보전의 항목에서 모두 목면이 군서면보다 약간씩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95%이상 수준에서 유의적차이를 나타내고 있음(표 6-53).

< 표 6-53 > 자연환경의 만족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구 분	평균값(표준편차)		t검정 (p-value)
	군서	목면	
전체자연환경	89.7(22.3)	92.6(16.7)	0.1347
하천,호수의깨끗함	74.3(36.7)	87.0(22.3)	0.0111
녹지(산림, 농지)의 양호함	62.9(33.7)	49.1(35.0)	0.8337
공기의 깨끗함	81.6(28.4)	87.0(21.2)	0.1294
토양의 양호함	64.0(33.32)	73.1(28.2)	0.3994
자연경관의 보전	83.8(28.8)	88.9(17.5)	0.0104

○ 생활환경의 경우 목면이 80.6점으로 군서면의 71.3점보다 만족도의 값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지역간의 유의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하위항목에서는 개량주택의 경우 목면이 군서면보다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고, 도로시설(확장, 개통)에서는 군서면이 약간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었음(표 6-54).

< 표 6-54 > 생활환경의 만족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구 분	평균값(표준편차)		t검정 (p-value)
	군서	목면	
전체 생활환경	71.3(34.3)	80.6(32.8)	0.8139
개량주택	79.7(29.4)	93.0(15.3)	0.0016
교통(대중교통, 배차간격)	69.9(35.2)	50.0(34.0)	0.8563
공공시설	44.9(30.6)	57.4(36.6)	0.3344
복지시설	58.1(36.8)	66.7(42.7)	0.4117
도로시설(확장,개통)	95.6(14.4)	92.6(26.7)	0.0010
상, 하수도시설	39.7(37.0)	54.6(41.0)	0.5668
상가 및 편의시설	27.9(33.0)	35.2(34.2)	0.8439
쓰레기 처리	44.9(40.7)	62.0(41.8)	0.8756

○ 사회·경제환경의 경우 전체적으로 군서면이 49.2점으로 목면의 46.2점 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지역간의 유의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지역 모두 50점 미만으로 사회·경제환경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표 6-55).

< 표 6-55 > 사회·경제환경의 만족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구 분	평균값(표준편차)		t검정 (p-value)
	군서	목면	
사회,경제환경	49.2(29.8)	46.2(25.2)	0.3861
마을의 인구	23.5(28.)	34.3(30.3)	0.7729
주민의 소득	44.1(35.4)	33.0(29.5)	0.3589
지가(땅값)	50.0(30.8)	54.8(23.5)	0.1648

2. 개선도 분석결과

○ 군서면과 목면간의 개선도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두 지역간의 개선도의 유의적 차이는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경제환경의 마을의 인구, 주민의 소득의 항목이 전과 비교하여 더 나빠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지역의 위치와 상관없이 생활기반시설의 정비나 소득환경의 개선을 위한 정책마련으로 인구를 지지하는 것이 근본적인 농촌개발을 위하여 요구된다고 사료됨(표 6-56).

< 표 6-56 > 하위항목에 대한 개선도 평균분석 결과

전체 환경	구 분	군서		목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자연환경	하천,호수의깨끗함	0.47	1.40	1.15	1.20
	녹지(산림, 농지)의 양호함	-0.06	1.18	-0.85	1.30
	공기의 깨끗함	0.09	0.93	0.78	0.90
	토양의 양호함	-0.15	1.21	0.45	1.01
	자연경관의 보전	0.50	1.19	1.30	1.13
생활환경	개량주택	1.21	0.98	1.80	0.58
	교통(대중교통, 배차간격)	0.71	1.14	0.45	0.93
	공공시설	-0.03	0.90	0.22	0.64
	복지시설	0.00	0.91	0.31	0.85
	도로시설(확장, 개통)	1.88	0.33	1.92	0.27
	상,하수도 시설	-0.03	1.21	0.73	0.46
	상가 및 편의시설	-0.06	0.55	-0.04	0.19
사회,경제환경	쓰레기 처리	0.24	1.60	0.37	1.62
	마을의 인구	-1.09	1.08	-1.11	0.89
	주민의 소득	-0.18	1.03	-0.67	1.04
	지가(땅값)	0.91	0.71	0.84	0.94
지역의 특성	전통의 유지,계승	0.80	1.36	0.75	1.39
	지역 특색의 활성화	-0.81	1.18	-0.80	1.01
주민참여	마을주민의 참가정도	1.68	0.77	1.33	0.73
	문화마을이후모임활성화정도	0.48	0.80	0.48	0.80

○ 끝으로 군서면·목면 문화마을의 신상조사 결과는 두지역의 성별은 남녀 50%로 비슷하며, 연령의 비율은 군서면 목면 모두 50대 이상이 주민의 약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표 6-57). 이는 도시로 부터 지리적으로 먼거리에 위치할수록 젊은 층의 전출현상이 잦아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방안이 요구된다고 사료됨.

< 표 6-57 > 군서면·목면 문화마을간 신상조사 결과분석성별 나이

구분	항목	군서		목면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성별	남	17	50.0	15	55.6
	여	17	50.0	12	44.4
	총	34명		27명	
나이	20세 이하	1	2.9	0	0
	21-35세	2	5.9	2	7.4
	36-50세	3	8.8	2	7.4
	51-65세	12	35.3	8	29.6
	66세 이상	16	47.1	15	55.6

Ⅶ 요약 및 결론

○ 산업혁명 이후 이차산업 중심의 경제발전은 도시로의 급격한 인구이동 현상을 야기시켰으며,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함. 농촌에서는 도로 및 의료·문화시설 등 생활환경의 질적인 저하나 일부의 획일적인 농촌정비체제로 인한 경관훼손 및 지역적 특성의 소실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도시인접지역에서는 비농가세대의 증가와 별농세대의 유입으로 비농가와 농가의 혼재화가 되어있음. 이러한 현상은 기본적으로 농업의 생산성 저하를 비롯하여 많은 공익적 기능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으며, 나아가 도시에서는 도시인구의 과밀화로 인하여 열섬현상이나, 수해, 수질악화 등의 환경오염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따라서 농촌개발은 농촌주민에만 국한된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지역종합개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중요한 영역임.

○ 농촌개발에 있어서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환경친화적인 농촌개발에서 「환경친화」라고 하는 것은 환경파괴의 악순환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여 살아가는 것을 의미함. 「환경친화적인 농촌개발」은 생태계보존과 개발사업을 조화롭게 하여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을 할 수 있게 하여 인구유출을 방지하는 것임. 그리고 이를 통하여 주민의 마을에 대한 자긍심 향상을 도모하게 하며, 경제성 향상이란 명분하에 도시화로의 개발이 아닌 농촌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면서 필요한 부분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삶의 질의 높이는 것을 의미함. 이번 연구에서는 10여년간의 농촌개발을 위해 시행되어온 정주권사업과 문화마을 조성사업 등을 환경친화적인 측면에서의 평가를 통하여 향후의 농촌개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본 연구는 크게 7단계로 구성되어 진행되었음. 그 1단계는 서론부분으로 연구의 배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등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제2단계로는 환경친화적인 농촌개발에 관한 이론적인 검토를 실시하였음. 제3단계는 선진외국과 국내의 환경친화적인 농촌개발계획사례를 검토하여 기본목표 틀을 도출하였으며, 제4단계로는 국내농촌현황을 분석할 평가지표에 대한 항목을 설정하였고, 5단계는 농촌을

유형화하였음. 다음 제6단계는 구분된 유형화를 바탕으로 실시조사 할 사례지를 선정하여 통계자료와 지역주민 및 공무원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현황분석 및 문화마을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음. 마지막으로 제7단계는 1단계에서부터 6단계까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향후 바람직한 환경친화적인 농촌개발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음.

○ 지금까지 실시되어온 농촌개발 사업(정주권 사업, 문화마을 사업)을 환경친화적인 측면에서 분석·평가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생태계보전, 소득증대, 생활환경질 개선, 지역특성 개발, 주민참여 등 5가지 기본 축을 설정하였음. 이중 생태계 보전은 환경친화적인 농촌개발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축이며, 소득증대는 농민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목표로 함. 농촌의 생활환경 질 개선은 문화·교육기반 및 의료·문화시설, 상·하수도 정비를 실시하며 인근의 하천 및 호수 등의 수질 개선까지도 포함함. 지역 특성개발은 농촌유형에 근거하여 지역자원 및 경관을 보전하며 문화재 및 지역의 자랑거리를 복원·조성하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등을 모색함. 지역주민의 참여는 그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유대감을 증진시키며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함.

○ 생태계 보전에 관한 하위평가항목으로는 수질, 대기, 토양, 공기의 오염, 녹지(산림, 농지)의 양과 질, 자연경관의 보전으로, 생활환경 질의 개선을 위한 하위평가항목으로는 개량주택, 교통, 공공·복지시설, 상가 및 편의시설, 상·하수도시설, 도로시설(확장 및 개통), 쓰레기처리에 관한 항목으로 소득증대에 관한 하위평가항목으로는 인구의 변화, 소득(생산량) 및 지가(땅값)의 변화로 정함. 또한, 지역특성 개발에 관한 하위평가항목으로는 문화재, 보호수 등의 지역자랑거리 및 전통적인 행사 및 전설 등으로, 주민참여에 관한 하위평가항목으로는 마을주민의 모임 및 행사에 관한 항목으로 설정함.

○ 농촌의 유형화는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하여 자연적, 사회적여건에 따라 농촌개발의 형태가 다르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적 특성에 맞도록 유형화를 시도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도시와의 지리적 관계성에 중점을 둬. 그 이유는 도시로부터 특히 수도권에 모든 행정 및 인구, 경제가 집중되고 또한 인접한 광역도시로부터도 영

향을 받으므로 그 영향력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임. 거리산정은 기존의 첫 번째 축으로 서울에서부터의 지역별 거리와 기존의 두 번째 축으로 인접한 6대 광역 도시로부터의 거리를 산정하였음. 출발점은 서울은 종각을, 광역도시는 중앙역으로 설정하였음. 그 결과 유형은 다음과 같이 3가지 형태로 나뉘었음.

- 서울인접형 농촌 : 서울에서부터의 거리가 22.4km이상 187.1km이하이고, 6대 광역 도시로부터 21.4km이상 92.8km이하인 거리에 위치한 지역
- 서울근교형 농촌 : 서울에서부터의 거리가 99.0km이상 267.8km이하이고, 광역도시로부터의 거리가 98.7km이상 267.8km이하인 거리에 위치한 지역
- 중산간형 농촌 : 서울에서부터의 거리가 191.0km이상 423.1km이하이고, 광역도시로부터의 거리가 18.7km이상 153.3km이하인 거리에 위치한 지역

○ 실시조사의 사례지는 유형화에 의해 나뉘어진 군집별로 군집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한곳씩을 선정하되 문화마을 조성 현황표를 참고하여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완료된 마을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또한 정비형태의 요인을 감안하여 서울인접형 농촌으로는 신촌형을, 서울근교형 농촌으로는 확장형을, 중산간형 농촌으로는 정비형을 선정함. 그 결과 서울인접형 농촌으로는 양평군 용문면 광탄리 신촌형 문화마을과 청양군 목면 가야미 정비형 문화마을, 서울근교형 농촌으로는 단양군 대강면 두음리 확장형 문화마을, 중산간형 농촌으로는 영암군 군서면 호동리 정비형 문화마을이 선정되었음.

○ 선정된 사례지를 대상으로 앞에서 제시된 평가축에 근거하여 현재 조성된 문화마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첫째, 전반적인 문화마을 사업의 평가를 위해 조사사례지 문화마을과 문화마을 외 지역을 비교 분석함. 둘째, 유형별, 정비형태별 문화마을의 평가를 위해 우선 유형별 문화마을(서울 인접형, 서울 근교형, 중산간형)을 비교분석하며, 동일 군집내 다른 정비형태인 용문면 문화마을(신촌형)과 목면 문화마을(정비형)의 그룹과, 다른 유형이나 동일한 정비형태(정비형)를 갖는 군서면 문화마을

을과 목면 문화마을을 비교 분석함.

○ 주민 및 공무원에 대한 설문지 분석의 주요내용은 환경친화적인 농촌개발을 위한 목표를 기본 골격으로 우선 생태계 보전, 생활환경의 질, 소득증대에 대하여 문화마을사업 전·후의 만족도와 개선도에 중점을 두어 평가하며 만족과 불만족의 원인을 파악함. 또한 지역특성의 개발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해당지역의 지역자원을 파악하여 지역개발 및 특성화를 위한 잠재력 분석을 실시하며 지역주민 참여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현재 주민의 참여도와 향후 주민참여에 대한 의사를 파악함.

○ 지역별 공무원 설문조사 및 인터뷰분석 결과, 신촌형인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문화마을은 문화마을 조성으로 인한 파급효과는 거의 미비하며, 신주택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과도한 용자금 상환압박으로 주민들의 생활은 악화되었으며, 오히려 면내의 주변 타 지역과 이질감을 조성하여 마을간의 불화감을 형성하고 있음. 거의 대부분의 신촌형 문화마을의 주민들은 농업이외의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소수의 농민들은 빚 상환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외지인에게 집을 팔고 이사가는 경우가 많아 전출입이 잦은 편임. 확장형인 충북 단양군 대강면의 문화마을은 마늘밭과 논을 개간하여 주택건설을 실시하여 실제 소득이 감소하였으며, 단양과 거리가 가까워 상권조성이 안되는 관계로 문화마을내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실정임. 또한 원래살던(안등골) 본마을 사람들과 계층간 갈등이 심화(소득, 문화, 주택개량의 차이)되고 있음. 또한 저소득층, 일반거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을이 아닌 소수 재력인들을 위한 시책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주민부담을 해소시킬수 있는 보조금 및 소득이 뒷받침 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요구하고 있음. 정비형인 전남 영암군 군서면 문화마을 호동리는 조성전과 비교하여 타지인의 전입이나 마을내 전출입의 변화가 크지 않으나 자녀교육과 소득개선을 위해 젊은이들의 전출로 인하여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거의 대다수의 세대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 특히, 도로 및 상하수도에 투자되었으나 예산집행의 문제와 예산확보의 미흡으로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주택정비는 단지 용자금으로 실시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평가받고 있음.

○ 조사사례지 문화마을과 문화마을 외 지역의 분석결과에서 주민의 만족도는 전체

적으로 문화마을이 문화마을 외 지역 보다 높게 나타났음. 특히,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서는 만족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경제환경에서는 유의적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문화마을사업은 일부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어느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사회·경제환경에서는 크게 개선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음.

○ 지역별 문화마을간의 분석에서는 주민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군서면 문화마을이 가장 높고 용문면 문화마을, 대강면 문화마을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연환경의 만족도 평가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었음. 이는 기존의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하여 정비한 정비형의 자연환경에 대해 주민들이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한편 문화마을간의 비교에서는 생활환경의 경우 양평균 용문면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음. 이는 신촌형의 정비형태가 문화마을과 문화마을 외 지역간의 생활수준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는 주민들간의 이질감을 야기시켰으며 이로 인한 상대적인 불만감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됨.

○ 용문면 문화마을과 목면 문화마을과의 비교분석에서는 자연환경의 경우 목면의 문화마을이 용문면 문화마을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생활환경의 만족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군서면 문화마을과 목면 문화마을간의 비교분석에서는 자연환경의 경우 두 지역 모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환경과 사회·경제환경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정비형의 정비형태가 신촌형의 정비형태 보다 자연환경의 경우, 훨씬 더 높은 만족을 주었으며, 생활환경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도시적인 개발형태인 신촌형으로의 정비형태만이 생활환경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개발방향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정비형의 정비형태와 같이 농촌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려 농촌다움을 살린 개발형태가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함.

○ 본 연구의 결과 농촌개발에 있어서는 정비형의 개발형태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으며, 특히 중산간형 농촌에서는 도시로 부터의 인구유입이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재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정비형태의 농촌마을 정비가 필요함.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정비형 형태의 마을정비가 신촌형이나 확장형보다

만족도 등이 높게 나왔지만, 서울 인접형 농촌 및 서울근교형 농촌은 도시에서의 인구유입이 중산간형 농촌보다 용이하다는 점 등에서 그 지역의 여건에 맞는 정비형태가 제안될 수도 있음. 한편 문화마을과 문화마을 외 지역간의 분석과 지역별 분석에서 모두 사회·경제환경 면에서는 매우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 개발방향은 주택개량, 도로시설 등의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기반시설의 정비 뿐 만 아니라 소득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즉 직판장, 생산자(농민)들에게 운송수단의 제공, 국가수매 등의 대책마련이 무엇보다도 시급함.

○ 결론적으로 환경친화적인 농촌개발을 위한 정책방안은 농촌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비형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우선 농촌이 갖고 있는 특성인 농촌다움, 즉 자연생태계를 가능한 잘 보전하는 것이 우선 고려되어야 함. 그리고 농촌의 고유한 모습을 도시적인 모습으로 바꾸는 형태의 정비가 아닌 필요한 부분의 부분적인 정비가 가장 바람직함. 즉 도시지향적 개발형태인 신촌형이나 확장형 형태의 정비가 아닌 정비형 농촌개발형태가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됨. 이는 지역 공무원 및 주민의식조사의 결과분석에서 뒷받침되고 있음. 그리고 정비형태는 몇 가구 (10-15가구 정도)를 기본 단위로 하여 간이 하수처리장이나 주택개량사업을 지원해서 재원을 대규모로 투자하지 않고도 효과를 볼 수 있는 형태가 바람직함. 또한 농촌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시책의 도입이 문화마을 정비의 초기단계에서부터 토의되고 반영될 필요가 있음.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생태관광으로 특화시킬 수도 있고, 지역의 농작물을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의 도입 등도 있음. 한편 이 모든 것은 주민참여가 필수적이며, 생활의 질의 개선도 같이 도모되어야 함.

○ 본 연구에서의 문화마을 조사시 대부분의 주민들은 자기가 사는 마을만 벗어나면 다른 마을로 생각해서 지역전체(면 단위)의 동질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지역에 대하여 자긍심이 미약함이 밝혀짐. 따라서 지역의 활성화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마을단위나 면 단위의 지역행사를 통하여 자신들의 마을의 전통이나 자랑거리를 발전, 개발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이 필요함. 1970년대에는 새마을 사업, 1990년대에는 문화마을 조성이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 시도된 사업형태라고 한다면, 2000년대에는 농촌의 특성을 살리면서 그 지역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형

태의 지원사업이 바람직함. 이러한 사업은 주민참여가 강조되어야 하며, 획일화된 형태의 사업이 아닌 다양한 사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함.

○ 부록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본의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컨테스트 등을 숙지하여 우리농촌에 맞도록 구상하여 농촌의 마을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마을에 대한 자부심을 갖으면서 자신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환경친화적인 농촌개발을 유도해 나갈 수 있는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함. 일본의 아름다운 마을 컨테스트는 국민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인 농촌을 경관형성, 환경·생태보전, 전통문화의 계승, 자원의 순환이용 등의 관점에서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가꾼 아름다운 마을에 대하여 표창하는 것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특히 심사항목에 주민 참여, 환경보전, 경관창출, 역사 등이 중요시되고 있음. 이는 획일적인 정비가 아닌 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을 잘 보전하면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를 유도하고 있음.

○ 향후 본 연구의 후속 연구로 본 연구를 실제로 적용하는 구체적인 연구, 즉 환경친화적 농촌개발의 실제 적용이나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의 한국판의 도입을 위한 연구가 필요함. 또한, 농촌의 활성화를 위한 개별사업으로는 도로조성시 환경친화적인 도로공사 컨테스트, 퇴비화 시설지원, 직거래 지원사업에 대한 인증제, 농업특산물 목록집 작성, 농촌지역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 도입의 연구가 필요함.

VIII 참고문헌

1. 강상목, 1997, 우리나라 환경지표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통계연수원
2. 경기개발연구원, 1998, 경기도(6개도시) 어메니티 플랜
3. 김병도 외, 1998, 농촌개발론, 선진문화사
4. 김유일·윤진옥, 1998, 농가 주거환경 평가, 한국농촌계획학회, 제4권 제1호 : 79-88
5. 나주시 농어촌진흥공사, 1996,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계획서
6. 농림부 농업기반공사, 2000, 21C선진복지 농업·농촌건설구상
7. 농림부 농업기반공사, 2000, 농촌지역 조화로운 삶의 공간 문화마을
8. 농림부 농촌정비과, 2000,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사업비 지원현황
9. 농림수산부, 1993, 농어촌정비법안
10. 농어촌진흥공사 농어촌연구원, 1999, 문화마을조성사업 사후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최종)
11. 농어촌진흥공사, 1996, 가곡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서
12. 농어촌진흥공사, 1997,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13. 농어촌진흥공사, 1998, 농촌지역개발 제도개선 방안
14. 농어촌진흥공사, 1999, 마로문화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서
15. 농어촌진흥공사, 2000, 문화마을
16. 대한주택공사, 2000, 지속가능한 정주지개발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연구(III), 건

설교통부

17. 박시현, 민간자본에 의한 농어촌 마을정비 방안 모색, 한국농촌계획학회, 제4권 제1호 : 32-39
18. 박창원, 1999, 환경친화적 농촌계획지침개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19. 성현찬, 1995, 경기도 쾌적환경평가 및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 송미령, 박시현, 2000, 농촌마을의 환경친화적 계획요소 도출과 적용, 농촌경제 제23권 제1호 : 67-87
21. 양병이, 1995, 지속가능한 설계, 환경농총, 제33권
22. 영동군, 1995,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계획서
23. 이동근, 1997, 자연환경에 대한 주민의 평가와 평가요인에 관한 연구, 환경영향평가, 제6 권 제1호 : 67-76
24. 이동근, 1997, 환경친화적 도시의 구축, 도시정보, No. 180
25. 이동근, 윤소원, 1998,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환경지표에 관한 연구 - 인간과 자연과의 공생지표를 중심으로 -, 환경영향평가, 제7권 제1호 : 93-107
26. 이동근, 윤소원, 박태운, 1998, 연안습지의 현황평가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농촌계획 제4권 : 63-74
27. 임승빈 · 조순재 · 박창석, 1995, 취락구조 개선마을(신촌형)의 주민의식 및 공간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계획학회, 제1권 제2호 : 53-66
28. 임승빈 · 조순재 · 박창석 · 이춘석 · 복준호, 1998, 농촌문화마을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공간계획 방향 연구, 한국농촌계획학회, 제4권 제1호 : 22-31
29. 정정섭 · 조태동, 1998, 영국의 Sissinghurst Castle Garden이 주는 지역활성화 효과, 한국농촌계획학회, 제4권 제1호 : 56-62

30. 농림부 지역개발과, 1999, 지역개발업무현황
31. 최경은, 2000, 농촌 취락체계 개선책으로서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실효성 평가, 지리학 논총 32호
32. 武内和彦, 1991, 地域の生態學, 朝倉書店
33. 農村計劃學會, 1993, 農村計劃學の展開, 農林統計協會
34. 李東根, 1993, 住民意識に基づく地域環境評價に関する研究
35. 農村環境整備センター, 1995, 農村環境整備の科學, 朝倉書店
36. 全國農業協同組合連合會・全國農業協同組合中央會, 1996년, 環境保全農村と地域活性化, 社團法人 家の光協會
37. 武内和彦, 1996, 環境時代の農村整備-エコビレッジの提案, 株式會社ぎょうせい
38. 小川政則, 1998, 環境保全農村と地域農業の振興
39. 遠藤織太郎, 1999, 持續的農業システム管理論, 農林統計協會
40. 農業政策研究會, 1998, 21世紀の食料・農業・農村政策, 大成出版社
41. 日本生態系協會, 1999, 環境の時代を迎える世界の農業, 財團法人 日本生態系協會
42. 農林統計協會, 1999, 農業白書
43. 農林統計協會, 2000, 食料・農業・農村白書
44. 多方一成・田淵幸親・成沂廣幸, 2000, 東海大學出版會

부 록

부록 1. 일본의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부록 2. 개별사업

< 부 록 1 > 일본의 むらづくり(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례집

1. 개요

○ 수변·녹지·문화 등을 살린 경관형성은 물론이고 농촌을 하나로써 간주하여 환경·생태계의 보전과 농림수산업을 통한 지역자원의 유효활용에 의한 지역 만들기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기초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농업의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사업의 일체적실시, 국고보조사업과 지방단독사업의 연계를 통해 풍요롭고 아름다운 생산·생활공간을 구축하고 있음.

○ 농산어촌은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농촌다운 자연환경이나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전통문화의 계승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향한 국민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음.

○ 그러나 농산어촌에서는 고령화나 과속화의 진행에 의해 취락기능의 저하 및 전통적이며 특색을 살리는 자원의 순환이용 감소에 덧붙여 자연순환기능의 저하 등에 의해 기대되어지고 있는 농촌의 역할이 향후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국민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인 아름다운 농산어촌의 창출을 위하여 경관형성, 환경·생태계의 보전, 전통문화의 계승, 자원의 순환이용 등 지역 주민주체의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에 대한 사업을 농림수산정책에 의해 지원하는 것임.

○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대책실에서는 「그 곳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 도시민들도 그곳을 방문하고 싶은 「마을」, 나아가 그곳에서 정주하고 싶은 마음이 갖게하는 「마을 만들기」를 국민운동으로서 전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음.

2.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대책

○ 농산어촌의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개발·보급운동을 추진하여 아름다운 농산어촌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사업을 실시함.

(1) 국민에의 정보제공·의식의 계몽

① 심포지움의 개최

○ 전국의 마을 만들기 대회들에 의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의 개발·보급을 꾀하기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함.

② 아름다운 일본의 마을경관 컨테스트의 실시

○ 전국에서 농산어촌의 아름다운 경관을 모집하여 일본을 대표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표창함과 동시에 패널이나 팜플릿을 제작하여 농산어촌의 귀중함에 대하여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한 캠페인 활동을 전개함.

③ 인터넷의 활용에 의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에 대한 정보제공

○ 지역의 특색을 살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를 추진함과 동시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를 적극적으로 전국적 규모로 확대하여 추진하기 위해 마을 만들기에 관한 정보의 입수·교환이나 도시주민의 관심을 끌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설함(http://www.maff.go.jp/s_oshiki/kou_kai/muratai/21j/index.html).

(2) 앞서나가고 있는 지역의 지원

- 경관을 배려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농촌공원, 가로녹화, 생울타리 등)
-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에 관한 조례, 협정 등의 체결
- 지역의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활동전개(청소, 집손질, 화단 가꾸기 운동 등)

3. 풍요로운 마을 만들기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표창

○ 농산어촌에 있어서 풍요로운 마을 만들기의 좋은 사례에 대하여 표창함(천황상, 내각총리상, 농림수산장관상 등의 상을 표창).

4. 사업의 내용

○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를 지역의 자연, 문화자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의 창의적인 고안과 주체적 참가에 의하여 추진하며 또한 농업·임업·수산업의 각사업의 연계에 의해 종합적인 동시에 일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을 실시함.

(1) 전국지원사업

- ① 심포지움, 전통문화의 활용 활동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계몽·보급활동 등의 실시함.
- ② NPO와 연계한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등의 실시함.

(2) 광역도시 지원사업

계몽·보급활동 및 모델지구 등을 지도(指導)함.

(3) 지구(지역) 지원사업

○ 모델지구에 있어서 아름다운 농촌창출계획에 기초하여 경관형성, 환경·생태계의 보전, 전통문화의 계승, 자원순환에 기여하는 공종(工種)등을 포함한 농업·임업·수산업의 두분야 이상의 국고 보조사업으로 구성된 특별사업, 관련사업을 일체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함(특별사업에 있어서는 우선적인 채택의 배려).

A 특별사업 : 농산어촌의 경관형성, 환경·생태계보전 등에 밀거름인 공종을 포함한 아래와 같은 사업

- 농업관계 : 새롭게 조성된 산촌(山村) 지역의 진흥 등 농림어업 특별대책사업, 도시농촌교류대책사업, 농촌종합정비사업, 농촌종합정비통합보조사업, 중산간지역종합정비사업, 지역환경정비사업, 지역용수환경정비사업, 해안환경정비사업, 전원공간정비사업, 경영구조대책사업 등
- 임업관계 : 지역임업경영 확립 임업 구조 개선사업, 임업지역종합 정비사업, 삼림

(2)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모델지구 정비특별사업	6,341,930 (8,252,550)천엔
① 공공특별사업	6,341,930 (8,252,550)천엔
② 비공공특별사업(1999년도에 한함)	- (1,630,215)천엔

< 해당과 : 구조개선국 계획부 지구계획과(마을 만들기 대책실)
건설부 정비과, 개발과, 방재과
임야청 지도부 조림보전과 , 기반정비과
수산청 어항부계획과, 방재해안과 >

7. 제8회 아름다운 일본의 마을 경관 컨테스트 예비심사의 심사요령

(1) 심사기준에 대해 각각의 부문별로 아래의 항목등을 배려하여, 상여 및 그 해설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함(박스안은 실시요령에 의한 심사기준을 나타냄).

(2) 심사항목

① 공통사항

- 경관을 지키며 육성하는 과정, 구성이 참조가 되는 것.
- 지역의 사람들 지역의 심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 표제, 해설이 알기 쉽고, 흥미가 깊은 것.
- 매력이 있는 것.
- 감동을 줄 수 있는 경관일 것.

② 개별사항

- 문화부문

아래의 항목을 만족하는 것.

- 1) 지역주민들이 관리하는 지역의 역사적 귀산들이 주변경관과 조화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는 것.
- 2) 역사·전통을 나타내는 축제가 계승되고, 나아가 지역에 밀착되어 있고, 향수를 느끼게 하는 매력이 있는 아름다운 경관이 형성되어 있는 것.
- 3) 농산어촌의 특색을 살린 축제 및 이벤트가 시행되고 있으며, 매력있는 아름다운 경관이 형성되어 있는 것.

- 관광행사 등으로서 전국적으로 유명하지 않은 곳.
- 전통적 가옥등 축제의 유지, 보전에 대해서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있는 것.
- 지역의 주민이 관리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

② 취락부문

취락경관이 지역주민의 생활과 조화하여 매력있는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곳.

- 가옥, 생울타리등이 통일되어있는 등, 취락풍경의 아름다움을 지역의 사람들이 지 키며, 조성하고 있는 곳.
- 지역의 역사를 계승해가고 있는 취락일 것, 혹은 주변환경과 지역을 이루면서, 새로운 거주형태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
- 지역관리에 노력을 하고 있는 곳.

③ 생산부문

전원, 밭, 상점, 어항등의 지역 농림수산업에 관계하는 생산기반이 그곳에서 운영하고있는 생산활동과 조화되어,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곳.

- 토지이용질서가 형성되어 있는 곳.
- 토지조건에 잘 어울리도록 활용이 되어 있는 곳.
- 농업생산시설과 주변의 경관과 조화가 도모되어 있으며, 농지나 선적시설의 직선 형태를 강약으로 조절하여 생산기반, 시설정비에 있어서,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어 경관을 살리려는 노력이 되어있는 곳.
- 농도, 수로등에 식재가 되어있는 곳.
- 지역의 사람이 관리등의 노력을 하고있는 곳.

(3) 채점배분

평 가	배점	해설문 경 관	5점 5점
종 음	5점		
조금 좋음	4점		
보 통	3점	합계	10점
조금 나쁨	2점		
나쁨	1점		

※응모대상이 경관 컨테스트의 취지에 맞지않는 경우는 0점으로 함.

(4) 기타

구분(농촌·산촌·어촌), 부문(문화·집락·생산), 타이틀등의 변경의견, 상여의 변경의견(참고사진과 교환등) 해설에 대해서는 보충설명, 기타 주요한 점이 있으면 비교란에 기입함.

일본의 むらづくり(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례집

아름다운 일본의 마을경관 컨테스트는 지역의 주민들의 참여와 노력을 바탕으로 일본을 대표하는 농산어촌의 아름다운 경관을 표창하는 것임.

본 사례집에는 농림수산대신상을 포함한 여러분야에서 선정된 다수의 아름다운 경관을 소개하고 있음.



島立의 알몸축제 「長野(nagano)縣 松本(matumoto)시 島立(simadati)」

松本市는 長野縣의 중앙에 위치하며 서측으로는 북 알프스, 동측으로는 美ヶ原高原(utukusigaharakougen)의 웅대한 봉우리로 둘러싸인 옛부터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유명함.

여름을 알리는 島立의 알몸축제는 疫病방지를 위한 축제로서 江戸時代부터 계승되고 있는 것으로 1988년에 도의 무형민속문화재의 지정을 받는 등,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음.

「オンヤサー(어샤)、モンヤサー(몬샤)」의 힘찬함성과 함께 鉢巻과 六尺(훈도시) 모습을 하고 있는 남자 어린이와 운동복 차림의 여자어린이가 지구내를 돌아다님. 신사에 도착하면 신사에 숭배한 후 작은 하천에서 물장구를 치는 등 년간의 무병식재(無病息災)를 기원함.

< 문화부문 농림수산물관광 수상 수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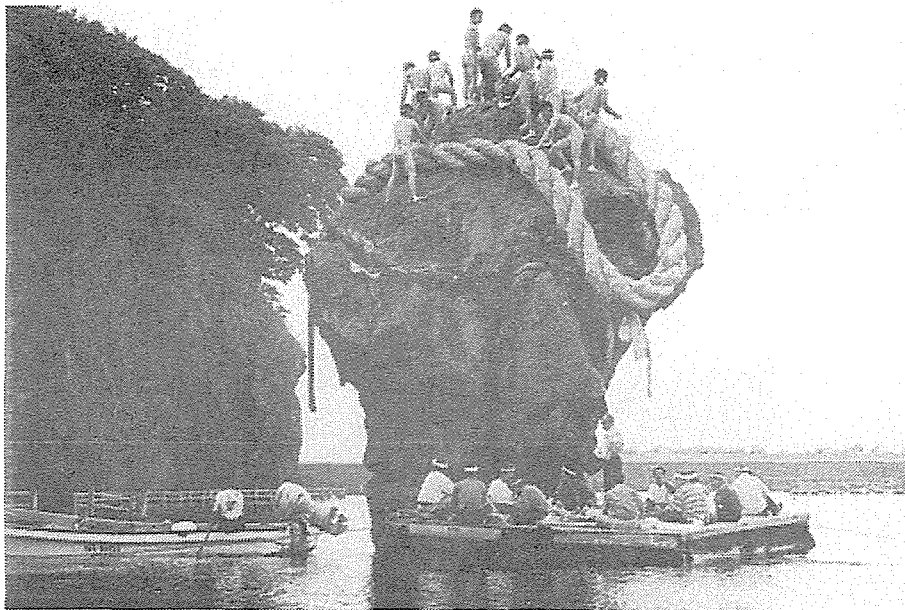


갈매기 섬 축제 「北海道(hokkaido) 江差(esashimati)마을」

江差마을은 北海道 남서부의 渡島半島(oshimahantou)일본해측에 위치하는 어촌으로 松前시대에는 청어나 北前船 교역으로 「江差의 오월은 江戸(에도)까지 미친다」라고 말할 정도로 크게 육성하였음.

갈매기섬의 부근일대는 그 거점지역으로 江差의 수산, 역사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는 곳임. 여름이 오면 개최되는 「갈매기섬 축제」의 주요 이벤트인 「瓶子岩의 끈감기」는 이지역의 용감한 젊은 어부들이 올라가 바다의 안전, 가정의 안전, 만선 등을 기원하며 전체 길이 30m, 무게 300kg이나 되는 끈을 감는 용맹과 위엄을 보여주는 의식임.

< 문화부문 농림수산물관광 수상 수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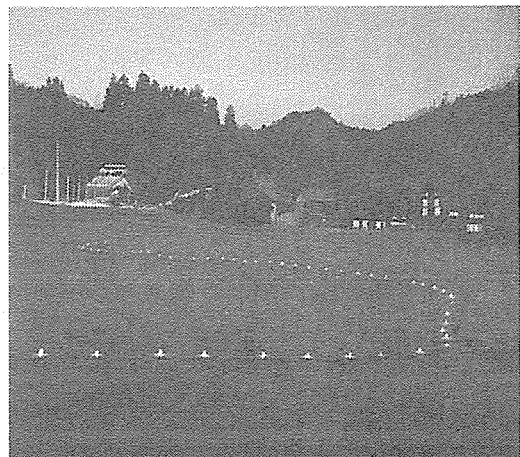
燈火幻想 「新潟縣(niigataken)高柳町(takayanagimati)荻ノ島(oginosima)」

高柳마을은 刈羽郡(kariwagun)의 최남단에 위치하며 서북측에는 刈羽山이, 중앙에는 鯖石川이 흐르는 풍요로운 자연경관을 갖춘 純農山村임.

荻ノ섬은 역사지붕을 이은 민가 등이 논을 둘러싸고 있는 형상으로 되어 있어 「환상집락(環狀集落)」이라고 불리는 전국적으로도 귀중한 경관집락임.

이 고향의 원래의 경관을 지키기 위하여 마을 전체가 하나로 모여 운영됨. 역사로 지붕을 이은 민가의 이점을 살려 역사로 이은 지붕의 겨울의 경관은 매년 10월에 행해지는 「도깨비불의 밤 축제」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며, 땡땡이 덩굴의 산길을 밝히는 「도깨비불의 제등행렬」은 환상적인 광경을 연출하여 마치 논두렁에 촛불을 나열한 것과 같음.

< 취락부문 농림수산물관상 수상 >



후회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富山(toyama)현 山田(yamadamura)마을 宿坊(syukubou)」

山田마을은 富山평야의 중앙에 위치하며 吳羽구릉으로부터 남북으로 관통하는 표고 100m에서 1000m의 山峽에 있음.

宿坊지구의 棚田은 1965년에 정비됨. 이 지구에서는 畦畔의 除草나 경운(耕耘), 벼베기 등이 시행되고 있음. 이 경관은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계절마다 변화하는 다양한 자연의 풍치는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함.

< 생산부문 농림수산장관상 수상 >



산에 산다 「徳島(tokusima)縣 木頭(kitouson)마을 蟬谷(semitani)」

木頭마을은 徳島시에서 차로 3시간 반 정도의 那賀川 유역에 위치하며, 북측으로는 劍山系, 서측으로는 高知縣境에 면해있는 風光明媚(풍광명미)한 지역임. 연간강수량은 3000mm를 넘고 온난다우한 기후로 옛부터 「木頭杉」의 산지로 유명한 곳임.

최근에는 목재수입의 증대에 의해 임업경영이 어렵게 되어 활기있는 마을의 모습은 찾을 수 없음.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도에서 다섯 번째로 인구가 적은 마을로 되어 버렸음.

현재에는 고성능기계의 도입이나 임도(林導) 등의 개설에 의해 사진과 같은 작업은 거의 없지만 「木馬」라고 불리는 썰매로 木馬道를 운송하는 건강한 산 사나이의 모습을 재현한 하나의 장면임.

< 생산부문 농림수산물관상 수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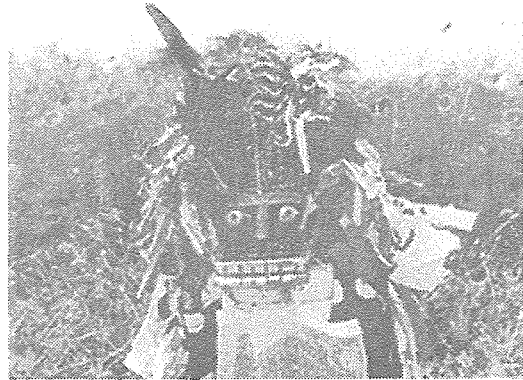
코스모스 축제의 날 「山形縣 酒田市 城輪」

酒田시는 山形縣의 일본해측에 위치하며, 농촌지대 시내 중앙부를 흐르는 最上川 하구는 일본 최고의 백조가 날아옴.

「100만본 코스모스 축제」는 城輪지구의 주민이 협력하여 심은 1ha의 코스모스밭을 시의 내외부로 널리 홍보하여 교류를 촉진하는 것에 의해 지역진흥에 껴하고자 시작한 이벤트임. 민속예능의 공연, 사진이나 회화의 컨테스트 등도 실시하여 축제를 더욱 성대하게 함.

시내에서는 가을에 많은 꽃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장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곳을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새로운 꽃의 축제로서 보다 충실하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

< 문화부문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상 수상 >



역사적으로 보전될 돌담벽의 마을 「宮崎縣日之影町戸川」

日之影마을은 宮崎縣의 북부산악지대에 위치하는 농산촌임. 戸川지구는 마을을 동서로 흐르는 日之影川 주변의 산간속에 위치하고 있는 전체7가구로 이루어진 집락으로, 宅地, 논밭, 石藏, 방풍원 등의 마을 전체가 돌담벽으로 형성되어 있음.

牛馬車縣이 완성될 때 까지는 사람의 출입도 거의 없었고, 7가구의 원주민들이 독립해서 지형의 밑바탕부터 급사면에 자연석을 쌓으면서, 택지를 만들고, 경지를 개척하여 대부분을 자급자족하였음.

거대한 암석을 나무로 만든 기구를 이용하여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동원되어 날라 만든 거대한 돌담벽, 작은 돌을 멋있게 쌓아 올려 만든 돌담벽 등 마을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 왔음, 마을 사람의 예술작품이면서 문화적유산이 되었음.

< 취락부문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상 수상 >



아침서리 · 산바람의 마을 「三重縣 御浜마을 尾呂志」

御浜마을은 三重縣 남부, 웅야탄(熊野灘)에 위치하며, 연중 굴을 수확할 수 있는 마을로 알려져 있음.

尾呂志지구에서는 가을에서 겨울에 걸쳐 날씨가 좋은 이른 아침 북쪽에서 바람을 타고 산꼭대기에서 산중턱까지 웅처럼 흘러내리는 유백색의 서리가 걸쳐 있음. 「산바람」으로도 불리는 이 지구의 지명 「尾呂志」의 유래가 됨.

< 생산부문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상 수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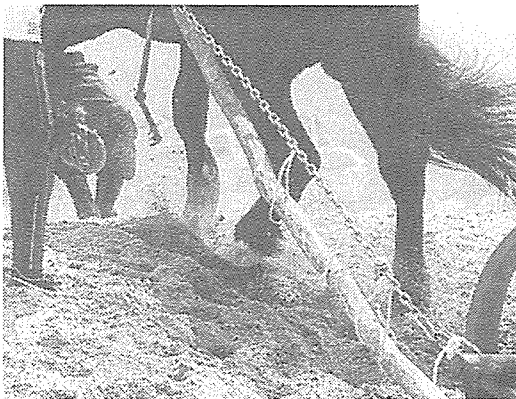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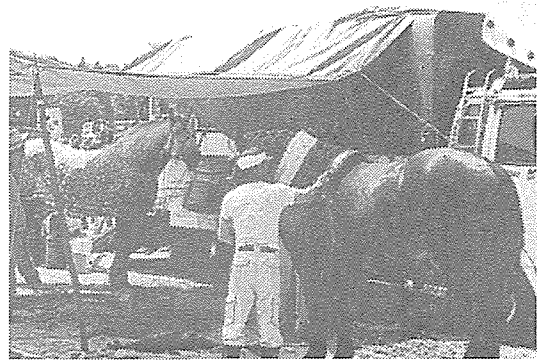


조랑말 「山形縣 船形마을 一の關」

舟形마을은 山形縣의 북부의 가장 높은 지역에 위치함.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경관을 물려받은 마을임. 一の關지구는 옛날에는 최상류에서 화물을 집합시키는 장소로서 유명했음.

옛날의 농사를 짓기 위한 말은 농작업과 농산물의 운반을 위해 농가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였음. 그러나 기계화가 진행된 현재에는 농경마가 필요 없게 되어 사육을 하는 농가가 얼마되지 않음. 「어린이들에게 말을 보고 체험」 하게 하기위해 시작된 만마(萬馬)대회는 귀중한 농경문화를 다음 세대에 전하고 있음. 대회는 매년 6월 둘째주 일요일에 지구주민이 모두 모여 운영되며, 성공적인 대회의 개최로 지역의 활성화를 부여하고 있음.

< 문화부문 전국토지개량사업단체연합회장상 수상 >



築地松과 산거(散居)경관 「島根縣 斐川마을」

斐川마을 出雲평야의 동단에 위치하며, 북동부를 宍道湖에 접하는 농촌으로 전국에서도 出雲평야에서만 볼 수 있는 築地松을 갖고 있는 평탄한 논밭가운데 흩어져 있음.

築地松을 이용하여 겨울에 강한 계절풍으로부터 가옥을 보호하려는 지역주민의 지혜와 광대한 전원풍경이 조화되어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 내고 있음.

이 경관은 지역의 자부심이며, 마을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이해를 깊게하기 위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築地松 회화공쿨을 실시하거나 소나무 해충을 방제하는 약품의 무료배포를 하는 등, 주민과 일체되어 아름다운 경관의 보전에 힘쓰고 있음.

< 취락부분 전국토지개발사업단체연합회장상 수상 >



風光明媚奥州 松島の 자연풍경과 비슷한 「鹿兒島縣 東마을」

東마을은 鹿兒島縣 최북단에 위치하며, 長島本島, 獅子島, 伊唐島, 諸浦島의 4개의 섬과 그 주변의 크고작은 8개의 섬들로 이루어져 있음.

섬들의 해안은 정온한 해역이지만 해수의 이동이 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해수의 교역이 좋음.

도 내에서도 혜택받은 조건을 살려 양식업이 성행하며, 東마을의 우협은 단일 수형으로서도 일본 제일의 방어의 생산량을 가짐.

푸른 바다와 녹색이 비치는 섬들이 웅대한 자연속에서 해안선을 잘 이용하면서 수산업을 운영하고 있음.

< 생산부문 전국토지개발사업단체연합회장상 수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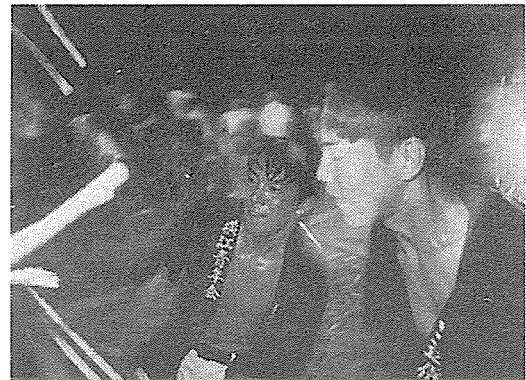
「벌레보내기」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풍요로운 인심” 이 있는 「石川縣 松任市 横江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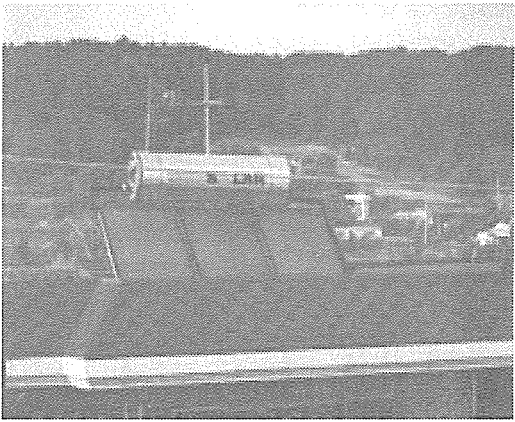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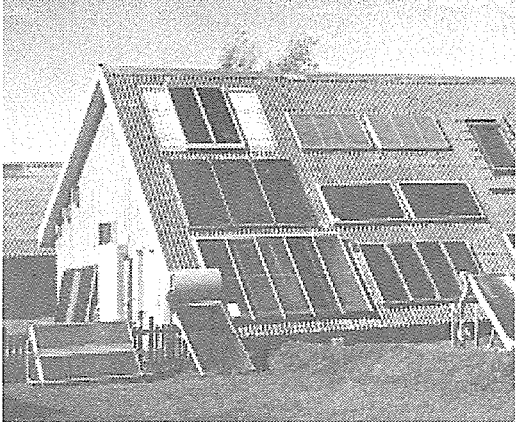
石川縣 松任시는 手取川 扇狀地의 중앙부에 있으며, 金澤평야에서도 평탄한 곳으로 시가지의 주변에는 사계절을 통해 색색으로 변하는 아름다운 전원이 펼쳐져 있음. 논밭의 해충을 햇불의 염과 북의 소리를 따라 행하는 벌레보내는 手取川, 넓은 전원의 벼이삭이 여물기 시작하는 7월하순에 행함.



이러한 행사는 시내 각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는 横江마을로 전승되고 있음. 「横江의 벌레보내기」는 마을의 청년회가 주체가 되어 이를 운영하고 있음. 수로를 이어 밭에 물을 끌어들었던 선인의 풍요로운 인심이 청년회에서 전해져 계승시켜 전통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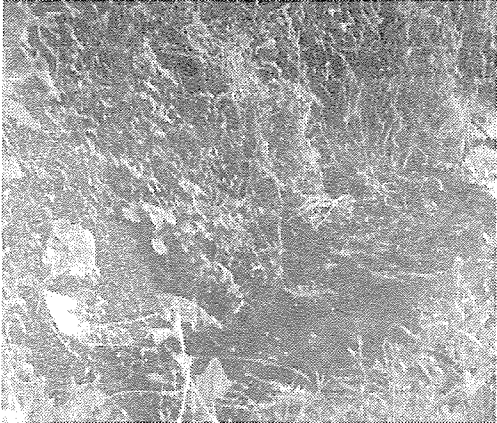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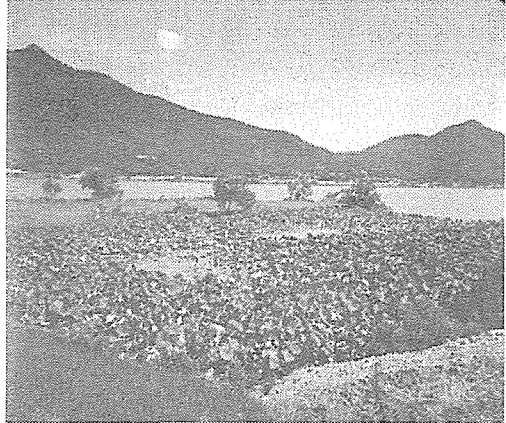
< 문화부문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대책추진 본부장상 수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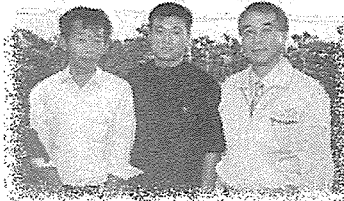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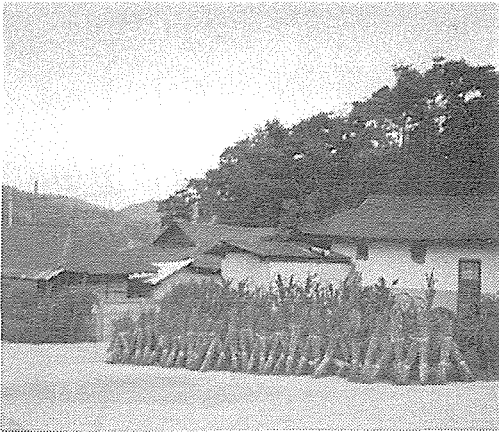

< 부 록 2 > 개별사업 예시



기술·시스템	태양열 주택의 이용확대	
정 의	자연형 태양열시스템은 각 구성부 간의 에너지 전달방법이 자연순환 즉, 전도, 대류 및 복사현상에 의한 것으로 부가적인 기계 장치없이 태양 에너지를 채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현 황	구 상	
		
위 치 : 양평 용문면 광탄리 문화마을	위 치 : 일본의 에너지 재활용 센터에서 현재 연구중에 있는 여러 가지 타입의 판넬	
기본구상 및 도입기술	<p>■ 기본구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형 태양열 시스템의 기본구상 태양광은 남서쪽에서부터 남동쪽에 걸친 창이나 유리외벽에 의해 받아들여져서 그 뒤에 위치한 축열체 구실을 하는 건물부위(벽, 바닥, 천장)에 의해 흡수되며, 나머지 열은 자연대류나 송풍장치에 의해 햇볕이 들지 않는 공간까지 전달됨. 자연형 시스템은 커다란 기술적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일사를 받는 모든 건물에 적용할 수 있음. 이 과정에서 창과 유리면의 크기와 배열, 축열성능이 있는 건물부위, 임시적인 열차단 및 보호 기능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자연형 태양열 시스템의 특성 남측으로 면해 있는 곳의 바깥쪽을 유리창으로 처리하고 그안에 집열벽을 두어 낮동안에는 태양에 의해 데워진 공기가 위, 아래에 있는 공기의 구멍으로 순환이 되어 난방이 되고, 밤에는 집열벽에 축열되어 있는 열이 벽체를 통해 방안으로 전달이 되므로써 난방이 되는 방식을 이용하는 것임. 	

기술·시스템	환경농업 전국적 확대육성	
정 의	인간과 환경을 함께 고려한 지속가능한 농업	
현 황		구 상
		
위 치 : 양평 환경농업 21		위 치 : 2000년 친환경농업 선도농가 전진교육
기본구상 및 도입기술	<p>■ 기본구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양평군 세계 처음 환경농업 인증 경기도 양평군(군수 민병채)이 스위스 인증기관인 SGS에서 농업부문 ISO 14001 환경농업경영 인증을 획득했다. 양평군이 농업부문에서 ISO 인증을 획득한 것은 군내 전 지역이 '양평환경농업-21' 시책에 따라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는 친환경 농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며, 양평군은 2000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97년 12월부터 환경농업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자료=매일경제/이봉원기자/000123] ○ 양평환경농업-21"(YEAM-21)의 정의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의 생산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농업형태로 농업생산의경제성 확보, 환경보전 및 농산물의 안정성 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농업 <p>영어의 "YEAM-21"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EAM : Yang-Pyeong Environmental Agriculture Movement • Y는 Yang-Pyeong : 우리고장의 명칭 양평 • E는 Environment : 자연환경 • A는 Agriculture : 농업을 뜻하며 • M은 Movement : (사회적)운동의 뜻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체적으로는 21세기를 앞둔 양평군의 깨끗한 자연환경과 청정농업을 같이 지키자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 	

기술·시스템	식물이용 하수정화	
정의	수생식물을 이용한 수처리 방식으로서 갈대와 부레옥잠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	
	현 황	구 상
		
	위 치 : 양평 용문면 하천	위 치 : 양수리 용늪 일대
기본구상 및 도입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늪, 궁들 일대의 수질을 수생식물들을 이용하여 자연정화 시킨도록 함. ○ 일반적으로 흔하게 이용되는 습지식물은 갈대이며, 갈대와 더불어 부레옥잠과 개구리밥임. ○ 물옥잠과에 속하는 8종류중의 하나인 부레옥잠은 제한 조건이 없다면 최고의 생산력을 보일 정도로 이상적인 속도로 생육, 증식하지만 10도 이하에서 생장이 제한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 ■ 활용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생식물의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정화능력이 탁월한 수종 / 월동이 가능한 수종 · 소재구입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수종 / 환경조건에 잘 적응하는 수종 · 설치목적에 적합하고 전체적인 분위기에 조화되는 수종 · 뿌리가 수중에 있고 표면에 뜨는 부수식물 또는 정수식물 ○ 수생식물의 식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스감 형성을 위하여 수종별 균식처리 · 수생식물간의 식재밀도는 16본/m² · 식재밀도를 낮추므로써 원활한 생육과 번식을 유지할 수 있음. · 식물성 재료인 Jute Pot(식물성 섬유로 만든 황마)와 식재망(Coconut Fiber)을 사용하면 정수식물의 활착과 생육에 보다 나은 조건을 제공함. 	

기술·시스템	지역별 농산물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 작성확대	
정 의	지역별 농산물에 대한 홈페이지를 작성하여 도시민과의 직거래를 장려함.	
현 황	구 상	
 <p>5월 29일 자로 5:00~6:00까지 운영 예정입니다.</p>	 <p>안녕하십니까? 두꺼비 농민 직거래 농민 조정실입니다.(중간) 여러분께서 믿고 활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육을 약속드립니다.</p> <p>◀ 공 지 사 항 ▶</p> <p>● 주말농장 정품 수령합니다 (2000. 5. 30) 참외 따기 행사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p> <p>● 칠산참외 가격이 공급하시다구요(클릭)</p> <p>● 칠산참외 출하 기념-이벤트 결과 발표 응모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p> <p>◀ 개 시 판 ▶</p> <p>● 참외 따기 행사 6시 내고향에 소개예정 (2000. 5.)</p> <p>● 참외 따기 행사 PSB방송에 소개 (2000. 5.)</p> <p>● 참외 따기 행사 농민신문에 소개 (2000. 5. 10.)</p> <p>● 참외 따기 행사 경남신문에 소개 (2000. 5. 8.)</p> <p>● 2000. 5월 29일 업데이트 되었습니다.</p>	
위 치 : 경남 창원시 북면 홈페이지 (http://www.nondurung.co.kr/)		
기본구상 및 도입기술	<p>■ 기본구상</p> <p>정부기관에서 홈페이지 작성에 대한 지원을 하여 마을단위 또는 특산품 지역 단위별로 소개하여 도시민들과의 직거래를 적극 장려함.</p> <p>홈페이지의 내용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의 예나 찾아오는 길, 가격, 그리고 농부들의 사진을 직접 올려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직거래가 되도록 함.</p> <p>또한, 그 밖의 수요자 요구 품목을 접수받을 수 있도록 작성하여 공급자로 하여금 수요에 맞게 농산품목과 양을 조절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함.</p>	

기술·시스템	단열·기밀의 성능의 향상	
정의	열과 공기의 출입을 가능한 억제하기 위하여 고단열·고기밀의 재료사용	
현황		구상
		
위 치 : 청양군 목면 주택		위 치 : 독일 보트펠트 생태주택단지의 단열기밀 에너지 보전형 주택
기본구상 및 도입기술	<p>■ 기본구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름철의 열투입 차단으로 95%를 열선차단의 단열효과를 볼 수 있음. ○ 겨울철의 열손실 차단으로 겨울철의 열 손실 중 29%는 벽을 통해서 20%는 바닥을 통해서 발생하며, 이 열손실 중 70%는 복사현상에 의한 것으로서 이 복사열을 95%이상 차단하는 단열자재는 건축구조물의 종류에 따라서 50%~83%까지의 난방비 절약효과를 가져옴. ○ 완벽한 결로를 방지하여 겨울철에 지붕이나 벽체의 내부에 결로 현상으로 생긴 응결된 물방울은 석고보드, 합판, 벽지 같은 내장재를 손상시키기도 하며 또한, 부피 단열재의 열전도를 급격히 증가시킴. 단열자재는 공기중에 의해 형성된 반사 공간은 결로 현상을 막을 수 있음. ○ 슈퍼온도리 열 전도율은 전도 5%, 대류 25%, 복사 70%임. 	

기술·시스템	폐기물 관리 시스템	
정 의	지역별 특성에 따른 폐기물 종류의 발생량을 조사하여 종류별로 적절한 처리방법을 선택하는 시스템	
현 황		구 상
		
위 치 : 단양군 대강면 문화마을 쓰레기처리 현황		위 치 : 한국물관리 연구소에서 구상한 중간 선별장 도감도
기본구상 및 도입기술	<p>■ 기본구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 전량 자원화의 체계적인 개선방법을 위하여 첫째, 재활용품의 유가성을 높이는 경제적·효율적 「폐기물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며, 지역별 특성에 따른 폐기물 종류의 발생량을 조사하여 종류별로 적절한 처리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중간 선별장(집하장)시설 확충과 재활용품의 유가성을 높여 경제적·효율적인 분리 배출 수거방법인 「폐기물 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것임. ○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방법 생활 쓰레기를 유형별로 색깔과 요일을 정하고, 각 가정은 일반 쓰레기는 현행 봉투로 적용하며 격일간으로 처리하고 재활용품은 지정된 색깔 봉투에 담아 요일별로(격일) 그대로 내 놓도록하며, 이렇게 된 재활용품은 청소, 수거차량이 종류별로 분리 수거함. ○ 폐기물 관리시스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 재활용은 매립과 소각시에 발생하는 각종 침출수, 악취(다이옥신 발생), 해충 등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음. ·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환경보전 효과와 쓰레기 감량화를 통해 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이고 유용한 자원으로 재사용 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있음. · 매립장 사용연한이 늘어나므로 매립지의 절감효과가 있음. · 4대 폐기물 1% 재활용하면 연6백39억원의 이익을 가져옴. 	

별첨

별첨 1. 도시로부터 거리산정 및 군집분석의 결과

별첨 2. 주민 및 공무원 설문지

별첨 3. 예비조사 결과

< 별첨 1 > 도시로부터 거리산정 및 군집분석의 결과

< 별첨표 1 > 도시로부터의 거리 및 군집분석의 결과

< 최단거리적용, 단위(Km) >

사업추진 연도	도명	시(군), 면명	서울부터 의 거리	시간	인접 광역시	광역시로 부터의 거리	시간	Cluster
2000	경기	남양주 진건	22.4	0.54	서울	22.4	0.54	1
1999	경기	김포 하성	43.0	1.28	인천	34.7	1.27	1
1996	경기	양평 옥천	48.0	1.27	서울	48.0	1.27	1
1995	경기	가평 설악	57.6	1.35	서울	57.6	1.35	1
1992	경기	양평 용문	62.7	1.44	서울	62.7	1.44	1
1995	경기	화성 우정	63.6	1.50	서울	63.6	1.50	1
1997	경기	평택 고덕	65.1	1.21	서울	65.1	1.21	1
1998	경기	이천 백사	72.2	2.00	서울	72.2	2.00	1
2000	충남	아산 둔포	77.3	1.32	대전	31.7	3.17	1
1997	경기	안성 일죽	78.4	1.41	서울	78.4	1.41	1
1992	경기	이천 설성	78.6	2.18	서울	78.6	2.18	1
1994	강원	철원 서면	84.4	2.28	서울	84.4	2.28	1
1998	충북	음성 삼성	86.7	2.01	대전	83.8	1.42	1
1994	충북	음성 대소	91.0	1.56	대전	77.9	1.34	1
1996	강원	화천 사내	92.8	2.54	서울	92.8	2.54	1
2000	충북	음성 생극	93.3	2.12	대전	87.8	1.35	1
1994	충북	진천 이월	96.0	2.00	대전	71.8	1.51	1
1996	충남	천안 목천	101.1	1.26	대전	62.1	2.07	1
1994	충북	청원 복이	119.2	2.18	대전	49.5	1.18	1
1996	충북	청원 북일	120.7	2.25	대전	47.8	1.18	1
1999	충북	청원 강내	124.0	1.38	대전	37.8	1.00	1
1995	충북	괴산 사리	124.4	3.15	대전	63.5	1.47	1
2000	충북	괴산 청안	126.8	2.30	대전	61.8	1.44	1
1994	충남	공주 의당	128.6	2.23	대전	38.4	1.16	1
2000	충남	청양 비봉	131.3	4.17	대전	79.2	2.23	1
1998	충남	연기 남면	133.5	2.49	대전	27	1.06	1
1997	충남	공주 우성	138.4	2.29	대전	42.3	1.19	1
1995	충남	청양 목면	143.1	3.18	대전	49.3	1.29	1
1991	충남	공주계룡	144.8	2.39	대전	39.3	1.22	1
1999	충남	청양 청남	147.9	3.31	대전	59.1	2.00	1
1994	충남	부여 초촌	158.5	3.00	대전	50.6	1.28	1
1996	충남	부여 석성	159.3	3.00	대전	50.2	1.19	1
1998	충남	부여 규암	160.8	3.47	대전	62.2	1.39	1
1995	충남	논산 부적	164.3	3.08	대전	37.3	1.00	1
1995	충북	보은 내속리	175.0	3.43	대전	56.2	1.24	1
1999	충북	보은 마로	176.7	3.46	대전	48.3	1.12	1
1995	충남	금산 추부	178.1	3.09	대전	21.4	0.43	1

< 별첨표 1 > 계속

사업추진 연도	도명	시(군), 면명	서울부터의 거리	시간	인접 광역시	광역시로 부터의 거리	시간	Cluster
1996	충북	옥천 이원	179.2	2.31	대전	27.1	0.46	1
1999	전북	익산 함라	186.5	3.49	대전	63.7	1.57	1
1992	충북	영동 심천	187.1	2.37	대전	35	0.52	1
1996	강원	원주 지정	99.0	2.39	서울	99.0	2.39	2
1997	강원	원주 호저	110.0	3.11	서울	110.0	3.11	2
1991	강원	횡성 우천	114.3	3.21	서울	114.3	3.21	2
1997	충북	충주 금가	116.3	3.16	대전	106.7	3.06	2
1994	충북	충주 동량	120.3	3.32	대전	109.1	3.18	2
1997	충남	홍성 홍북	124.8	3.59	대전	98.7	3.04	2
1994	강원	횡성 둔내	132.2	3.31	서울	132.2	3.31	2
1995	강원	인제 남면	136.1	3.35	서울	136.1	3.35	2
1992	충남	서산 고북	142.1	3.49	대전	114.6	3.18	2
1997	충북	제천 한수	148.8	4.13	대전	118.2	3.09	2
1999	충남	보령 주교	151.4	5.07	대전	101	3.02	2
1994	충북	제천 금성	154.2	4.17	대전	149.3	4.32	2
1994	강원	평창 대화	161.1	4.16	서울	161.1	4.16	2
2000	경북	문경 마성	164.5	4.00	대전	107.2	2.47	2
1996	충북	제천 청풍	165.1	4.32	대전	141.8	3.44	2
1992	충북	단양 대강	176.5	5.05	대전	149.5	4.21	2
2000	강원	인제 북면	168.9	4.24	서울	168.9	4.24	2
1996	충북	단양 가곡	171.4	5.15	대전	162.7	4.40	2
1997	강원	평창 도암	186.4	3.54	서울	186.4	3.54	2
1997	강원	정선 북평	202.3	5.29	서울	202.3	5.29	2
1998	경북	영주 이산	212.7	6.03	대구	131.5	2.40	2
1995	강원	강릉 구정	213.5	4.24	서울	213.5	4.24	2
1995	강원	양양 손양	215.1	5.40	서울	215.1	5.40	2
1997	경북	예천 감천	215.1	5.44	대구	119.1	2.09	2
2000	강원	강릉 강동	216.7	4.24	서울	216.7	4.24	2
2000	경북	영주 장수	216.7	6.06	대구	128.2	3.15	2
1997	경북	봉화 봉성	233.4	6.31	대구	133	2.58	2
1999	경북	봉화 춘양	237.6	6.26	대전	186.8	5.58	2
1995	강원	삼척 근덕	267.8	5.24	서울	267.8	5.24	2
2000	충남	서천 마서	191.0	4.46	대전	86.5	2.46	3
1997	전북	군산 서수	196.2	4.15	대전	73.5	2.23	3
2000	전북	군산 임피	196.8	4.06	대전	74	2.14	3
1992	전북	군산 나포	198.0	4.05	대전	75.3	2.13	3
1994	전북	익산 오산	201.1	4.26	대전	75.5	1.31	3
1997	전북	군산 성산	202.8	5.05	대전	80.3	2.23	3

< 별첨표 1 > 계 속

사업추진 연도	도명	시(군), 면명	서울부터 의 거리	시간	인접 광역시	광역시로 부터의 거리	시간	Cluster
1998	전북	군산 회현	209.0	4.26	대전	86.2	2.33	3
1997	경북	상주 공성	211.1	5.23	대전,대구	79.9, 76.6	1.42,2	3
1995	전북	진안 용담	214.1	4.15	대전	57.4	1.49	3
1994	전북	완주 소양	214.9	5.14	대전	81.5	1.57	3
1994	전북	김제 만경	215.1	6.45	대전,광주	90.2, 90.3	2.42,1.47	3
1996	전북	진안 정천	220.1	4.13	대전	63.4	1.48	3
1996	경북	구미 도개	220.3	5.38	대구	63.9	1.36	3
1996	전북	진안 상전	220.3	4.19	대전	63.6	1.54	3
1992	경북	구미 무을	221.3	5.37	대구	67.8	1.23	3
1992	경북	김천 어모	223.0	5.40	대전,대구	64.1, 83.7	1.42,1.30	3
2000	전북	부안 동진	230.0	4.56	광주	79.1	2.06	3
1996	전북	정읍 태안	233.4	4.47	광주	66.2	1.06	3
1999	전북	정읍 이평	235.3	5.08	광주	63.8	1.03	3
1995	경북	의성 봉양	235.6	6.18	대구	53.7	1.14	3
1995	전북	장수 장계	237.2	4.43	대전	80.6	2.15	3
1994	경북	안동 와룡	242.2	6.27	대구	99	1.50	3
1998	전북	부안 계화	243.2	5.13	광주	82.6	2.21	3
1999	경북	군위 효령	252.9	6.43	대구	43.8	1.00	3
1996	전북	정읍 입암	254.6	6.02	광주	47.9	0.52	3
1995	전북	고창 흥덕	256.1	5.56	광주	53.8	1.21	3
2000	경남	거창 남하	263.9	4.32	대구	77.6	1.56	3
2000	경남	함양 안의	267.0	4.44	대구	94.6	1.56	3
1992	전북	고창 고수	268.5	6.12	광주	46.2	1.53	3
1995	전북	남원 이백	269.0	7.05	광주	67.3	1.09	3
1997	전북	남원 주천	269.1	6.50	광주	66.2	1.58	3
1998	전북	남원 금지	273.3	7.07	광주	51.2	1.36	3
1997	전남	담양 금성	274.8	6.40	광주	24.9	0.30	3
2000	경북	영양 석보	278.1	7.29	대구	128.9	3.17	3
1999	전남	장성 동화	281.7	5.12	광주	24.2	0.30	3
1998	전남	담양 수북	285.1	6.55	광주	18.7	0.42	3
1997	전남	함평 월야	298.3	7.23	광주	26.9	0.44	3
1997	경북	경산 남천	304.9	7.31	대구	23	0.47	3
1992	전남	함평 나산	305.7	7.21	광주	32.3	1.03	3
1996	전남	나주 노안	306.6	6.05	광주	21.2	0.58	3
2000	경남	창녕 이방	308.8	5.19	대구	47.4	0.55	3
1992	전남	순천 서면	318.4	8.15	광주	70.3	1.35	3
1996	경남	산청 시천	319.9	5.50	부산	134.1	2.41	3
2000	전남	함평 학교	323.0	8.00	광주	43.7	1.10	3
2000	전남	영암 신북	327.4	6.15	광주	40	1.17	3

< 별첨표 1 > 계 속

사업추진 연도	도명	시(군), 면명	서울부터의 거리	시간	인접 광역도시	광역도시로 부터의 거리	시간	Cluster
1992	경남	창녕 도천	330.0	5.58	부산	73.2	2.13	3
1996	전남	순천 상사	331.2	8.43	광주	77.2	2.41	3
1996	경남	하동 횡천	333.5	8.48	광주	114.2	3.08	3
1997	전남	영암 도포	334.5	6.39	광주	47	1.41	3
1996	전남	여수 올촌	335.0	8.44	광주	87	2.04	3
2000	전남	광양 진월	336.5	8.47	광주	98.5	1.55	3
2000	경남	사천 곤명	338.7	6.47	부산	124.1	2.06	3
1997	경남	창녕 길곡	339.5	6.31	부산	63.9	1.19	3
1995	전남	영암 군서	342.4	6.41	광주	54.4	1.30	3
1995	경남	사천 사남	344.1	5.57	부산	112.6	2.11	3
1992	경남	밀양 무안	344.3	6.21	부산	64.4	1.51	3
2000	전남	장흥 유치	347.8	6.44	광주	54.6	1.38	3
1998	경남	고성 상리	354.7	6.11	부산	111.2	3.17	3
1994	전남	고흥 과역	358.2	8.27	광주	89.3	2.21	3
1995	전남	강진 군동	362.6	7.29	광주	74.5	2.18	3
1997	경남	김해 한림	366.5	7.15	울산	80.8	2.36	3
1996	경남	마산 진전	366.8	7.17	울산	79.5	2.20	3
1994	경남	고성 동해	381.7	6.51	부산	110.8	3.10	3
1998	경남	거제 장목	423.1	8.22	부산	153.3	4.38	3

< 별 첨 2 > 주민 및 공무원 설문지

주민 및 공무원 설문지 조사

설문지 조사 목적

1. 현재 농촌마을의 현 상태에 대한 평가
2. 정주권사업 및 문화마을 사업 등의 정부시책사업에 대한 평가
3. 평가에 의한 문제점·해결과제 도출 및 향후 정책방향 설립

주민 설문지 내용

1. 현재 해당지역에 주거하고 있는 주민에 의해 현재의 생태계보전, 소득증대, 생활 환경의 질, 지역의 특성개발, 주민참여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
2. 문화마을 조성 후 그 동안의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한 평가

공무원 설문지 내용

1. 현재 농촌의 현황과 지역자원에 대한 평가
2. 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한 평가
3. 향후 정책방안에 대한 자문

(A2-1) 2번과 같이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A2-2) 마을의 녹지(산림, 농지)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만족 ② 조금만족 ③ 어느쪽도 아님 ④ 조금불만 ⑤ 불만

(A3) 마을의 공기의 청정함은 5년전(문화마을,정주권사업 실시전)과 비교하여 어떠한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깨끗해졌다 ② 조금 깨끗해졌다 ③ 변화없다 ④ 조금 더러워졌다 ⑤ 더러워졌다

(A3-1) 3번과 같이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A3-2) 마을의 공기의 청정함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만족 ② 조금만족 ③ 어느쪽도 아님 ④ 조금불만 ⑤ 불만

(A4) 마을의 흙(토양)의 질은 5년전(문화마을,정주권사업 실시전)과 비교하여 어떠한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비옥해졌다 ② 조금 비옥해졌다 ③ 변화없다 ④ 조금 척박해졌다 ⑤ 척박해졌다

(A4-1) 4번과 같이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A4-2) 마을의 흙(토양)의 질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만족 ② 조금만족 ③ 어느쪽도 아님 ④ 조금불만 ⑤ 불만

(A5) 마을의 자연의 모습은 5년전(문화마을,정주권사업 실시전)과 비교하여 어떠한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변했다 ② 조금 변했다 ③ 어느쪽도 아님 ④ 조금(대체로) 변화없다 ⑤ 변화없다

(A5-1) 5번과 같이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A5-2) 마을의 자연의 모습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만족 ② 조금만족 ③ 어느쪽도 아님 ④ 조금불만 ⑤ 불만

(A6) 마을의 전체적인 자연환경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만족 ② 조금만족 ③ 어느쪽도 아님 ④ 조금불만 ⑤ 불만

C. 사회·경제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C1) 마을의 인구는 5년전(문화마을,정주권사업 실시전)과 비교하여 어떠한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많아졌다 ② 조금 많아졌다 ③ 변화없다 ④ 조금 줄었다 ⑤ 줄었다

(C1-1) 1번과 같이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C1-2) 마을의 인구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만족 ② 조금만족 ③ 어느쪽도 아님 ④ 조금불만 ⑤ 불만

(C2) 현재 귀댁의 총소득은 5년전(문화마을,정주권사업 실시전)과 비교하여 어떠한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많아졌다 ② 조금 많아졌다 ③ 변화없다 ④ 조금 줄었다 ⑤ 줄었다

(C2-1) 2번과 같이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C2-2) 현재 귀댁의 총소득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만족 ② 조금만족 ③ 어느쪽도 아님 ④ 조금불만 ⑤ 불만

(C3) 마을의 지가(땅값)은 5년전(문화마을,정주권사업 실시전)과 비교하여 어떠한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높아졌다 ② 조금 높아졌다 ③ 변화없다 ④ 조금 낮아졌다 ⑤ 낮아졌다

(C3-1) 3번과 같이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C3-2) 마을의 지가(땅값)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만족 ② 조금만족 ③ 어느쪽도 아님 ④ 조금불만 ⑤ 불만

(C4) 마을의 전체적인 소득증대 및 생산성 향상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만족 ② 조금만족 ③ 어느쪽도 아님 ④ 조금불만 ⑤ 불만

D.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특색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역자원을 조사를 위한 질문입니다. 아래와 같은 항목에 따라 답해주시시오.

(D1) 이 마을에서 유명한 것이나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문화재, 전설 등 모두 포함하여 답해주시시오) ()

(D1-1) 1번에서 답하신 것들이 잘 유지·계승되어 오고 있습니까?

- ① 계승되고있다 ② 일부만 계승되고 있다 ③ 어느쪽도 아님
- ④ 계승되지 않고있다 ⑤ 전혀 계승되지 않고있다

(D1-2) 1번의 사항들이 문화마을, 정주권사업 이후 좀더 계승·발전되어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확실히 살렸다 ② 살렸다 ③ 어느쪽도 아님 ④ 살리지 못했다 ⑤ 전혀 살리지 못했다

(D2) 이 마을에서 옛부터 전해지는 나쁜 전통이나 개선점이 있습니까? (문화재, 전설 등 모두 포함하여 답해주시시오) ()

(D2-1) 2번의 사항들이 문화마을, 정주권사업 이후 개선되어 지역을 보다 좋은방향으로 특색을 살리는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개선되었다 ② 조금 개선되었다 ③ 어느쪽도 아님
- ④ 개선되지 않았다 ⑤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E. 귀하가 살고있는 마을의 일에 대해 어느정도 참여를 원하시는데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와 같은 항목에 따라 답해주시시오.

(E1) 이 마을에는 마을주민들의 모임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E2) 마을모임이 있다면 마을주민들이 참여는 어느정도입니까?

- ① 모든주민이 참석한다 ② 가능한한 많은 주민들은 참석한다. ③ 어느쪽도 아님
- ④ 거의 참석하지 않는다 ⑤ 전혀 참석하지 않는다

(E3) 주로 마을주민들이 모임은 어디에서 이루어 집니까? ()

(E4) 마을주민들의 모임은 문화마을, 정주권사업 실시후 마을주민들의 모임을 위한 장소가 마련되었습니까(마련되었다면 어디입니까)?

- ① 그렇다(장소 :) ② 아니다

(E5) 마을주민들의 모임은 문화마을, 정주권사업전과 비교하여 어떠한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활성화 되었다 ② 활성화 되었다
- ③ 변화없다 ④ 마을모임이 줄었다
- ⑤ 마을모임이 전혀 없게 되었다

환경친화적인 농촌개발에 대한 공무원 설문조사

환경친화적인 농촌개발의 개념 : 환경친화적이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여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진은 환경친화적인 농촌개발이라는 것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생태계 보전을 바탕으로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역의 특성을 살려 개발하므로써 앞으로도 지속가능도록 하는 것이라 정의하였습니다.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환경친화적인 농촌개발계획을 위하여 문헌조사, 국외사례조사 및 국내 138개의 전국 농촌마을 조성사례지역에 대해 비교·분석하였으며 선행된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의 농촌을 유형별로 구분하였습니다. 앞으로 문화마을 실시지역 중 농촌 유형별 한곳씩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주민 및 공무원에 대한 의식조사와 구체적인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추진방향을 모색 할 예정입니다.

본 설문문의 목적은 ① 문화마을 사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대안, ②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지역자원, ③ 지역주민의 참여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000년 7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 최 재 용

연락처 : 02-3488-7635 , 018-247-7799

이 조사는 우선 문화마을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지역자원과 지역 주민참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특색있는 지역 활성화의 방향을 결정짓는데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귀하의 생각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마을, 정주권사업 실시 전후의 변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문화마을, 정주권사업 실시후 좋게 변화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연(생태계보전)환경 : ()

생활환경의 질 : ()

주민소득 : ()

2. 문화마을, 정주권사업 실시후 나쁘게 변화한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자연(생태계보전)환경 : ()
- 생활환경의 질 : ()
- 주민소득 : ()

3. 문화마을, 정주권사업 실시전과 비교해 전체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 아 짐	조금 좋아 짐	변 화 없 음	조금 나 빠 짐	나 빠 짐
1	2	3	4	5

4. 문화마을, 정주권사업의 예산이 가장 중점적으로 투자된 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

5. 문화마을, 정주권사업은 주민의 복지시설(체육시설, 문화시설, 놀이시설, 휴게시설 등)에 대한 어떠한 투자가 이루어 졌습니까?

()

6. 문화마을, 정주권사업 실시시 법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

< 지역의 특성개발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이 마을에서 유명한 것이나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문화재, 전설 등 모두 포함하여 답해주십시오) ()

1-2 1번에서 답하신 것들이 잘 유지·계승되어 오고 있습니까?

- ① 계승되고있다 ② 일부만 계승되고 있다 ③ 어느쪽도 아님
- ④ 계승되지 않고있다 ⑤ 전혀 계승되지 않고있다

1-3 1번의 사항들이 문화마을, 정주권사업 이후 좀더 계승·발전되어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확실히 살렸다 ② 살렸다 ③ 어느쪽도 아님
- ④ 살리지 못했다 ⑤ 전혀 살리지 못했다

2. 이 마을에서 옛부터 전해지는 나쁜 전통이나 개선점이 있습니까? (문화재, 전설 등 모두 포함하여 답해주십시오)

()

2-1 2번의 사항들이 문화마을, 정주권사업 이후 개선되어 지역을 보다 좋은방향으로 특색을 살리는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개선되었다 ② 조금 개선되었다 ③ 어느쪽도 아님
- ④ 개선되지 않았다 ⑤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 지역주민 참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이 마을에는 마을주민들의 모임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2 마을모임이 있다면 마을주민들이 참여는 어느정도입니까?

- ① 모든주민이 참석한다 ② 가능한한 많은 주민들은 참석한다. ③ 어느쪽도 아님
- ④ 거의 참석하지 않는다 ⑤ 전혀 참석하지 않는다

1-3 주로 마을주민들이 모임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

1-4 마을주민들의 모임은 문화마을, 정주권사업전과 비교하여 어떠한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활성화 되었다 ② 활성화 되었다
- ③ 변화없다 ④ 마을모임이 줄었다
- ⑤ 마을모임이 전혀 없게 되었다

2 의견결정에 있어서 주민과의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공청회(주민설명회)를 개최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2-1 향후 공청회 개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형식에 불과하며 현실적으로 필요없다 ② 필요하지만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없다
- ③ 어느쪽도 아님 ④ 어느정도 필요하다 ⑤ 의사결정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별 첨 3 > 예비조사 결과

- 설문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작성한 설문지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음. 예비조사는 양평군 용문면의 거주주민을 대상으로 총 25부의 설문(문화마을 10부, 문화마을 외 지역 15부)조사를 실시하였음.
- 설문지 내용은 5개의 축(생태계의 보전, 생활환경의 질 개선, 소득증대, 지역특성 개발, 주민참여)에 대하여 우선 만족도에 대한 질문을 하였으며, 다음으로 사업실시 전·후와 비교하였을 때의 변화에 대한 질문을 하였음.
- 예비조사 결과 몇몇 용어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위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었으며 (예를들어 생태계보전은 자연환경으로), 소득증대 항목에 대한 주민들의 답변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사회·경제환경이라고 약간의 우회적인 표현으로 수정하였음.
- 문화마을과 문화마을 외 지역과의 분석결과의 차이를 구체적인 원인분석을 하기 위하여 답변이유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였음.
- 분석결과 만족도와 개선도에 대한 질문으로 양분하여 실시한 이유로 다양한 항목별에 대한 주민들의 답변에 약간의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5개의 축을 중심으로 항목별 개선도, 개선도 답변 이유, 만족도의 순으로 질문을 하되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별로 각각을 묶어서 작성하였음.